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70 1981년11월1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November 14, 1981

NOV 1 6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실협선거 참가율 70% 예상

선거전 열기일어, 지상정책발표등 전략도 다양

본지조사응답자 지지후보 밝히기 꺼려

11월 26일 실시될 한국실업인협회 회장 선거가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11일 입후보등록 마감으로 임철원, 차선겸 두회장 후보의 열띤 각축전이 됐다.

이번 실협회장선거는 예상외로 투표참가자가 많을것 같다. 본사가 11, 12일 양일간 조사한 통계 의하면 무작위 추출된 회원 3 7명중 70.2%선인 26명이 투표참가의 사를 밝혀 지난번 선거에서 보인 40%미만 투 표참가기록과 비교가 된다.

12일 현재 실업인협회가 밝힌바에 의하면투표권은 80년 11월 26일이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갖게되며 전체회원 6백여명중 320명이 이에 해당된다.

선거당일인 11월 26일로 다가갈수록 유권자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통계에 준할 경우 투표참가자수는 230명선. 본지조사에서 두 후보의 인기도를 묻는 두번째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미정내지 의사표시를 거부해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웠으나 차씨팀이 임씨팀보다 7 : 3으로 유리했다.

현 실협집행부의 실적을 묻는 제3항에서는 37명중 1 4명이 잘한다고 응답, 38% 이고, 못한다고 응답한 회원은 9명으로 24%선이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회원은 14명으로 잘한다고 응답한 수와 같았다.

본사가 이번에 실시한 앙케이트는 얼마나 많은 투표율을 보이나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후보들의 인기도를 가름하는 설문에서는 37명의 응답자중 73%인 27명이 밝히기를 꺼려, 충분한 자료가 될 수가 없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별표참조)

◇임철원 회장후보

◇차선겸 회장후보

이국영선거관리위원장이 밝힌 선거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1월 7 일 이후로 가입하는 신회원은 영업허가증(Vendor's permit)이나 기타증빙서류첨부총회직전인 25일 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이미 회원명부에 등록이 돼있으나 신문지상에 공고되는 명단에서 누락된 회원들은 선거당일 (26일) 투표개시전 까지 미납된 회비 50달러를 납부해야 투표권을 받는다.

○. 투표당일 모든 회원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소셜·인슈어런스 카드등 자신의신분을 증명할만한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 선관위원장은 철저한 선거관리만이 후유증과 실협의 명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므로 위원장은 회원들이 적극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지나친 열기로 협회가 두쪽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임씨와 차씨양 후보들은 "선거에 지더라도 협회에 적극 협조하겠다." 수차례 공언했다.

한회원은 "실협이란 단체도 이제 약진해야 될 때가 왔다. 우리 회원 모두가 참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고 반문했다.

이번 선거운동의 양상은 초반에는 혈연, 지연등을 찾아 회원개인에게 지지를 호소했었으나 이제는 신문지상을 통한 정책제시광고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선거장소는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Wy nford Dr 입구) 시각은 26일 하오 6 시이다.

본지의 여론조사에 쓰인 질문은 3가지로 회원명단을 각지구별로 임의로 60명을 추출했으나 응답자는 37명이었다. 조사에 응하지 못한 23명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회원및 이사, 외출등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전화 앙케이트에는 평균 3분 2 6초씩 걸렸다.

실협회장선거 여론조사

(조사자 : 본사편집부)

〈조사결과〉 (총 37명)

질문 1 : 11월 26일의 실협회장선거의 참석여부	참가한다 : 26명－70.2% 안한다 : 8명－21.6%	미정 : 3명－8.1%
질문 2 : 회장후보팀중 누구를 지지하나?	임철원후보팀 3명－8.1% 차선겸 〃 7명－18.9%	미정내지 의사거부27명－73%(투표불참회원포함)
질문 3 : 현 실협회장단의 공헌도	잘한다 : 14명－37.8% 못한다 : 9명－24.3%	모르겠다 : 14명－37.8%

11월중 최고 $700까지

81년형차에 판매세 공제

온타리오 주정부는 자동차매매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금년 11월중 81년형 재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세를 주정부가 보조해준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1월 29일까지 매매계약완료, 12월5일 이전 픽업해가는 81년형 차의 경우 판매세 7%를 최고 700불까지 차후에 정부로 부터 되돌려 받는다.

예를 들어 만2천불짜리 차를 구입하는 경우 주 판매세인 7% 840불중 7 00불까지는 주정부가 보조해주고 나머지세금 140불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주정부의 세금보조발표가 있자 고이자율등으로한산했던 자동차판매업계가 약간 매기를 회복, 평소보다 바빠지기 시작했다.

자동차 딜러 이한구씨는 (그랜트·브라운 GM) "GM차의 경우 11월중 81년도형을 사는 사람에 한해 대부율을 일반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14.2%로 혜택을 주기때문에 주정부의 판매세 공제혜택까지 첨가하면 만불을 대부받을 경우 최고 약 2,920불까지 싸게 살 수 있으므로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 서둘러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매년 신형차가 선보이는 가을이 되면 전년도 모델의 가격은 떨어진다.

또한 김병권(노스·욕 쉬보레)씨는 "특히 81년형과 8 2년 모델은 내용면, 기술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차인데도 가격면에서도 $800~$ $1,200까지 차이가 있는 81년형을 11월중 살 경우 세금보조, 이자율혜택과 더불어 3중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타리오주의 야당인 자유당은 "비록 주정부가 막대한 손실을 각오하고 세금을 보조해 주더라도 자동차 딜러들이 가격을 올려 받을 경우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딜러에 돌아가게 되는 셈" 이라면서 주정부의 조치를 반대했다.

한편 캐나다 최대의 포드차 딜러인 베이·스트릿의 엘긴·포드 세일즈 회사가 12월 3 1일부로 140여 종업원중 90명을 해고시킨다고 밝힌 것을 비롯, 많은 자동차딜러들이 차가 팔리지 않아 규모를 줄이거나 문을 닫는 형편이다.

한때 자동차 딜러는 수익좋은 비지니스의 하나로 꼽혀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비지니스중의 하나였다.

북미교포들 북한방문

조동훈씨「단순한 관광목적」

캐나다교포 4명포함

(샌프란시스코지사)

이스트베이 거주 교포 조동훈씨는 캐나다의 모 교포 여행사가 주선한 북한관광 여행단에 참가,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2주동안 평양에 다녀왔다.

조동훈씨를 비롯, LA의 최진환씨(치과의사)와 워싱턴DC 교포, 캐나다 교포등 4명이 관광단으로 북한에 다녀 왔다고 말한 조동훈씨는「1인당 항공료와 숙식비를 포함 1천 9백불의 여비를 부담했다」고 밝히고, 여행목적은「순수한 관광」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조동훈씨는 그가본 북한주민은 남한과는 비교가 되지않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었다고 밝히고, 남침 적화통일의 야욕에 날뛰고있는것을 실제로 체험했다고 그의 북한 방문소감을 피력했다.

조동훈씨는 미국 시민권을 소지했으며 북한에는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다.

북한 방문동안 금강산에서 우연히 금년 6월중순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 함정에 나포된 어선 공영1호(선장 : 손순익)선원 21명을 만났던 조동훈씨는 그들이 현재 해주 부근에 억류되어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공영1호 선원들은 북한 주민들과는 달리 비교적 장밥에 건강도 좋아보였다고 그가 전했다.

조동훈씨는 공영1호선원들이「교육을 받은다음」조만간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파킹티켓제도 변경

벌금 기한 14일에서5일로

기한넘기면 배로 늘어나

토론토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파킹티켓(주차위반딱지) 벌금을 물경우 티켓을 받은 날부터 14일의 여유를 주던 현행 제도를 5일 기한으로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시의회에서 19 : 9로 가결을 본 개정안은 메트로토론토의 6개시의 승인을 받으면 공식효력을 발생한다.

파킹티켓에 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ㅁ법정출두없이 벌금을 물경우 종전 14일의 지불기한이 5일로 줄어든다.

ㅁ벌금은 종전과 같으나 지불기한을 넘기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ㅁ정차금지 (no-stopping, no-standing) 위반 벌금은 5일이내에 물면 .20, 5일~35일에는 $30, 소환장이 발부되면 $40이 된다.

ㅁ주차금지(no-parking) 위반벌금은 5일이내에 물면 $10, 5일~35일에는 $20, 소환장이 발부되면 $30.

ㅁ중장비트럭 주차위반의경우 5일 이내, 벌금은 $30, 5일~ 35일에는 $40, 그후에는 $50이 된다.

ㅁ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킹위반은 위에 지명된 기간에 따라 각각 $ $5, $10, $30이 된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SunLife OF CANADA

취 급 보 험

ㅁ생명보험

ㅁ연금제도

ㅁ교육보험

ㅁ그룹보험

ㅁ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ㅁR. R. S. 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 922-3111 R) 439-8885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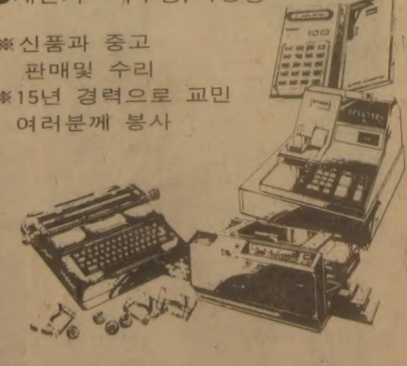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이색만찬 음악회 성황

선교교회 성전기금 모금

지난7일 성전기금모금을 위한 토론토 선교교회의만찬 음악회가 동교회에서약 300여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유회자 박사가 지휘하는 동교회 성가대원의"강물같은 평화가있네"를 선두로 한 음악회는 두번째 순서로 초청 바이올리스트 토론토심포니의 악장 박영대씨의 구노의 아베마리아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계속된, 토론토에서는 2개밖에 없다는 성종연주는 한인음악회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었다.

크고작은종 20여개로 내는 음률은 종소리라기보다 신비스런 악기에서 나오는 독특한 음악이었다.

"연습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성공을 못 거두었다"는 지휘자 유회자씨는 팀웍이 보다 잘 되고 연습이 충분히 될 경우 아주 훌륭한음악을 연주해 낼 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후반에 재등장한 박영대씨는 크라이슬러작"사랑의 애가", "사랑의 찬가" 두곡을 열연, 약 5분동안의 긴 박수갈채를 받았다.

동 합창단 소속이기도한 테너 유인씨와 소프라노장숙씨는 기성음악가를 능가하는 기법으로 산유화, 파랑새등 우리가곡을 선사했다.

합창단의 몽금포타령 을 끝으로 음악회 순서가 끝난뒤 청중들과의 싱어롱(Sing along)순서가 있었다.

약 50명의 서양인들이 포함된 청중들은 합창단의 리드에따라"에델바이스", "유 아 마이 선샤인"등 4곡을 합창했다.

이번 음악회를 기획주도한 유회자 박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않고 합창단의지휘, 바이올린 독주의 피아노반주, 독창반주, 올갠연주등을 맡아 계속 수고했다.

음악회가 끝난후 선교교회 건물에서 같이 예배를 보는 세인트·막 장로교회 존·콘그램 목사는 "한국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줄몰랐다"며 감탄을 연발했다.

◇성전기금 음악회를 가진 선교교회 합창단 가운데 지휘자 유회자씨의 뒷모습이 보인다.

재외한국인 160만

북미, 일본 앞질러

(서울11일=연합)6월말 현재 재외한국인수는 98개국에 총 1,590,853 명이 되었다.

북미에 가장많은 685,981명이 거주하고, 일본 670,853명, 중동 160,893명, 유럽29,214명, 중남미 22,35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80년까지 일본거주 재외한국인이 가장 많았으나올해부터 북미에 수위를 빼앗겼다.

60대 이후에도 섹스건재

체력소모는 층계오르는 정도

◇로버트·버틀러 박사

섹스의 연령적 한계는 과연 몇세일까? 60대에도 섹스를 즐길 수 있을까?

퓰리처상 수상자로 노인문제전문가인 로버트·버틀러박사의 대답은 "와이낫"(왜 않느냐?)이다.

미국노인문제연구소장이며 <60대 이후의 섹스>라는 책을 펴내고 최근 토론토에 들른 버틀러박사에 따르면 많은 60대가 왕성한 섹스생활을 누리고 있고, 은밀한 섹스생활을 누리는 노인들일 수록 이를 완전 포기한 같은 년령층의 사람들보다 한결 행복해 한다고.

76년 또 다른 노인들에 관한 책자를 발간, 퓰리처상을 수상한 버틀러박사는 섹스에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일 수록 우울해하고, 짜증스러워한다고 했다. 그는 노년층의 섹스생활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공개리에 논의돼오질 않았으나 이제 차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 남녀관계의 중요성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통념으로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섹스에의 흥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었는데 버틀러박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섹스에 대한 욕망이나 능력이 감퇴되는 것이 아니라 체력에 자신이 없는 노인들 특히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섹스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버틀러박사에 의하면 섹스행위에 소모되는 체력은 층계를 오르는 정도의 체력과 맞먹는다.

사랑에 국경배제

프랑스장관, 중공 고루성 공박

북경을 방문중인 프랑스의 미셸·조베 해외 무역장관은 중공당국이 북경주재 프랑스외교관과 동거생활을 해오던 중국인 예술가를 투옥한데 대해 강력 항의, 10일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외교소식통은 문제의 여인 리·슈앙(24)의 투옥사건으로 조베장관은 중공지도자들과의 회담일정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10일 등소평 중공부주석은 조베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베 장관의 방문과 「리」여인의 구속은 불행한 우연의 일치였다고 말했다.

프랑스소식통에 의하면 조자양 중공수상은 「리」여인에 대한 그의 태도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여인은지난 9월 그녀의 애인 에마뉴엘·벨러프레(33)가 홍콩을 일시방문시 체포되었다.

「리」여인은 "음란조장죄"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북경근교의 강제수용소에 수감중이다.

혼전동거는 중공에선 아직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특히 외국인과의 동거는 많은 중공관리들의 눈에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벨러프레는 최근 「리」여인이 구속되기 전 파리로 돌아왔다. 이들은 곧 결혼허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와같은 중공당국의 처사는 몬트리얼의 인류학자 죄베·라보아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라보아는 등소평의 중재로 그의 몽고애인 바오·휴에 여인과 재결합한 바 있다.

라보아(28)는 외국인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애인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바오 여인과 헤어졌었다.

그러나, 캐나다 마크·맥귀간 외무장관이 지난8월 중공방문시 이 두사람이 결합돼야 한다는 청원을 등소평 부주석에게 드려 이들이 재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바오 여인은 9월7일몽고에서 결혼한 후 라보아와 같이 몬트리얼로 가는 허락을 받았다.

◇비운의 연인들 : 중공당국에 의해 헤어지기전 프랑스외교관 에마뉴엘·벨러프레와 그의 약혼자 리·슈앙의 다정한 한때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91)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가꾸미는 내가 만난 에스키모중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첫 에스키모였다.

한동안 오택과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그의 이야기를 믿고 말았다.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이할미우트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가꾸미는 자기 민족에게는 직접적으로 공갈협박을 했고 우리에게는 간접적으로 협박하면서 우리를 그사람들과 떼어 놓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우리는 그의 위협에 넘어 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감하게 우리편에 가담했다. 가꾸미는 나에게 유회작전을 썼고 뇌물을 주기로했다. 거짓말로 했고 공갈로 위협했으며 정면으로 대항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 나는 이사람의 성격에 매혹을 느꼈으며 이사람만이 가진모든 과거에 대한 그의 놀랄만하고 비상한 기억력에 점점 끌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기에 능수능란했고 그의 교활함은 가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나는 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후에 나는 그에게 관계되는 모든 사실을 알아냈다.

가꾸미는 현재 이사람들이 사는 리틀·레이크 위에서 그리 멀지 않은「인간이 사는 강」(River of Man)이라고 불리는 강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아주트는 해변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질만큼 유명한 샤만이었다.

어린시절에 가꾸미는 강변과 주위 호숫가에 살고 있었단 일천명이 넘는 이할미우트의 한 소년이었다. 아주트의 아내 3명은 여러 아들을 낳았고 이아들중 제일 큰애가 카쿠트였는데후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가꾸미와는 서로 적대시 하며 살았다. 1880년 가꾸미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백인이 이사람들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후 1894년 봄에 낯선 이방인이 남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강을 두개의 카누로 타고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이 바로 타이렐씨였으며 그때 가꾸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당시를 아주 잘 기억했다. 타이렐씨는 불안을 느끼던중 뜻밖에 이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캠프에서 단 하루를 묵고 떠나가버렸다. 정중히 손님을 대접했던 아주트는 타이렐씨를 몸소 동반하고 이할미우트지역을 빠져나오는 강어구까지 바래다 주었다. 타이렐씨가 떠나올 때 아주트와 그의 큰아들 카쿠트의 카약(일종의 배)도 함께 떠났다.

아주트와 카쿠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한달이 지난후였으며 그들은 그 백인이 배에실고 다니는 놀랄만한 물건들에 대해 굉장히 이야기했다. 가꾸미는 낯선 백인의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낱낱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모든 이할미우트는 타이렐씨가 가져왔던 물건들의 진가를 감정해보고 물건에 대해 놀랐던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그 백인을 부러워 하지않았다. 이 사람들은 변화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했으며 타이렐씨가 주고갔던 몇개의 기념품들은 1~2년내에 잃어버렸거나 부서져 버렸다. 백인들의 물건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었다. 이할미우트의 모든 사람들은 단한사람만 빼놓고 모두 그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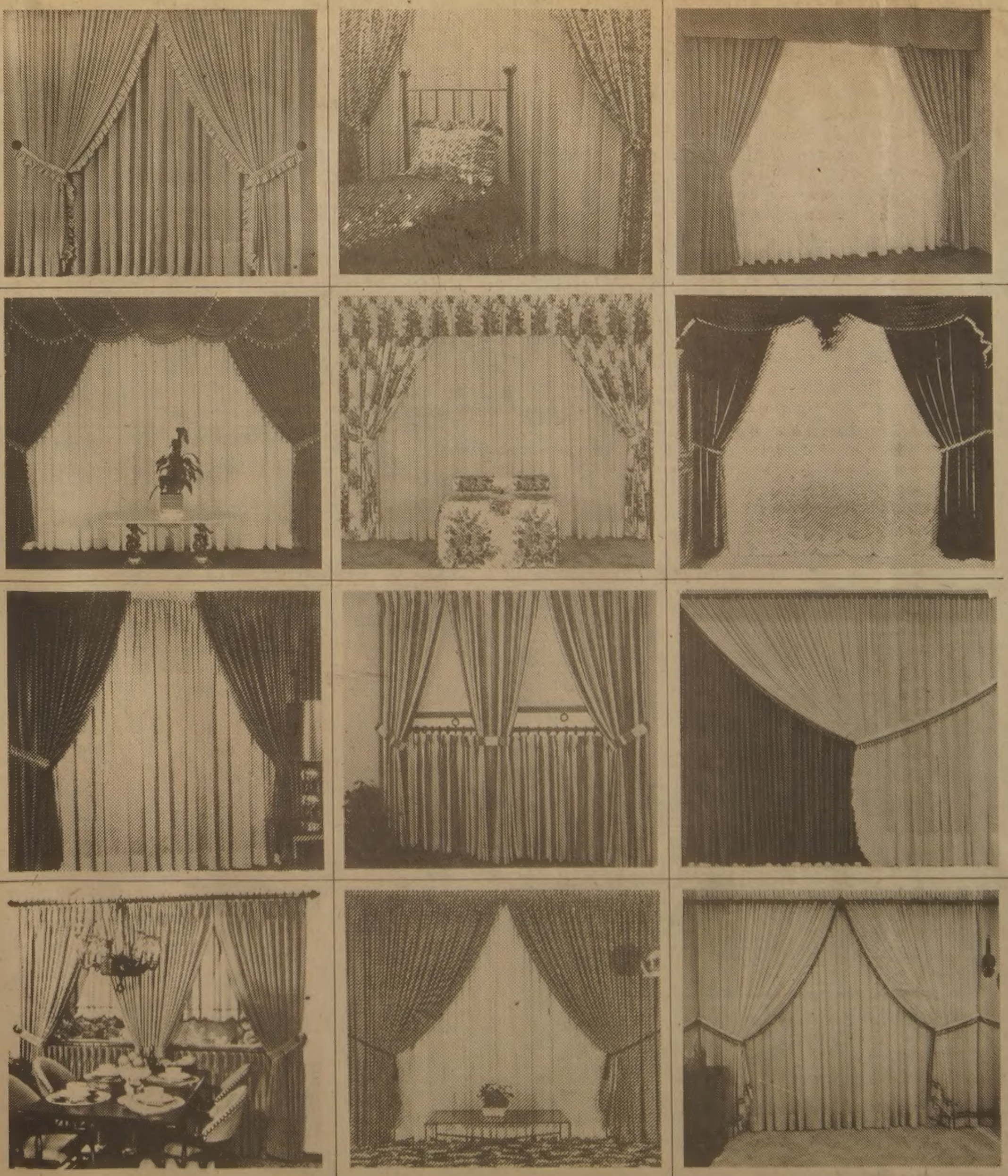
그 사람은 가꾸미였다. 그는 백인들의 물건이 마치 자기 물건이었던 것처럼 기억했다. 그는 생생하게 꿈을 꾸기도 하고 이꿈이 낮에는 그를 괴롭히기로 했다. 그의 마음속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큰 동경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할미우트의 언어로는 물질에 관한 그의 탐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가 이꿈을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욕심이 이땅의 생명의 법칙에 저촉이 되는 사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몽상을 남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다.

타이렐씨가 다녀간 바로 그해 겨울 아주트는 그의 장성한 아들을 청년으로 정식 인정키로 했고,

그 겨울 내내 카쿠트와 가꾸미는 그들의 아버지가 알고있는 샤만의 비밀을 전수받기 시작했다. 이 샤만의 아들 둘은 늙은 아주트가 보낸 샤만의 길을 택하도록 오래전부터 결정되어있었다.

(계속)



During our sale you get great ideas and savings on custom draperies and bedspreads.
A sales consultant will come to your home and show you the largest selection of decorative fabrics from the world's finest mills. Select from over $1.5 million dollars worth of fabrics and save.

National Drapery 1.5 Million Dollars Inventory Sale

30% off

Custom Drapery Trea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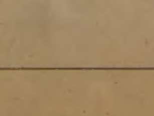
Sheers. Satins. Velvets. Brocades. Wouldn't you like to make your home more beautiful for Christmas? We have hundreds of fabrics and colors in plain, printed, woven and textured styles in stock. So we can manufacture your custom draperies in time for Christmas.
And bedspreads too!

But you must order now. When you call us, a professional salesperson comes direct to your home with a complete set of samples, measures your windows and suggests window treatments. You can make an appointment for daytime, evening or even Saturday.

Call now and have beautiful custom draperies, delivered and installed in time for Christmas.

본사 광고부를 창설하고 Art Director로서 광고부를 이끌어 온지도 10년이 되어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에두고 본사 제직이후 처음으로 30% Off 대매출을 시작 하였기에 교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캐나다 최대규모의 Custom Drapery maker이며 최고의 품질을 보증 합니다. Sales Decorator 직접 Sample을 가지고 각가정을 방문하여 주문할 수 있는 Shop-at-HOME Service를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대매출 기간동안 특별한 디자인이나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전화로 Mr. Rhim(림)을 불러주시면 제반도움을 드리겠읍니다. 공장직매장에서는 완성제품(Read made drapery) 을 50% 절반가격으로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규격을 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종류를 선택하실수 있읍니다. 림 중 남 드림

National Drapery



Showroom & Factory Outlet Center
4100 Weston Road
Mon.-Wed. 9-5pm. Thurs.-Fri. 9-9pm
Saturday 9-5pm.
SHOP AT HOME CALL 742-1880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정,부회장 입후보자들 등록

마감일 11월11일(수)오전12시까지

오는 11월26일(목요일) 오후 6시 홀리데이 인 돈 밸리 (1250 Eglinton Ave. E.) 컴언웰스 룸 웨스트(Commonwealth West)에서 열리는 81년도실협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게 될 협회 정,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1호로 회장 후보 임철원(부회장 후보, 최복기, 하소영)씨 팀이 등록접수 되었다. 이들은 지난 11월3일 화요일 오후2시 협회 사무실에서 이국영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박찬도위원의 입회 아래 제반 구비서류에 하자 없음을 확인하고 등록필증을 교부하였다.

또한 11월5일 목요일오후1시 회장 후보 차선겸(부회장후보 김이열, 조기연)씨 팀이 등록2호로 접수완료되므로서 선거의 서전을 장식하게 되었다. 이로써 현재 2개팀이 본 협회 정, 부회장 후보로 공식선거운동을 하게된 것이다.

후보들의 등록과 함께 일반 회원들의 투표권 여부에 대한 확인을 사무실로 연락하기를 선거관계 실무자들은 촉구하고 있다.

별지 공고와 같이 투표권자를 발표하니 누락된 분들은 속히 제반수속을 확인하여 완료하고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기를 거듭 부탁한다.

"알림"
문예작품공모작품연재물.
기사가 많어서 금주에 휴재 합니다.

맥스밀크 가격경쟁 안한다?

맥스 부회장 죤 드윗씨의 확언

맥스(Mac's) 밀크스토어들은 가격경쟁을 통한 상질서의 파괴를 원치 않는다고 맥스회사 부회장 죤 드윗(John Deweit)씨와 온타리오 세일스 매니저 스텐 휴즈씨가 함께 확언하고 있다. 이같은 장담은 맥스회사가 토론토시내 동부지역에 3개소, 서부지역에 2개소를 선정하여 가격덤핑을 시도하여 왔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협회 회원들의 스토어가 피해를 입고 있어 누차 회사의 관계자들과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핑게 저핑게로 면담과 언질을 회피해 오게 때문에 마침내 협회의 도움을 청하므로 협회 고위층에서 공식으로 그 진상을 요구하자 전화로 답변해온 사실에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맥스스토어에서는 담배값을 스몰싸이즈 99센트, 킹싸이즈 라아지를 $1.35씩 받으며, 밀크 2%짜리은 $1.69-1.88씩 받고 있어 지난 초여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부사장 드윗씨는 "우리 회사의 판매정책으로는 절대로 가격을 덤핑하는 일이 없다. 현재 5곳에서 시험적으로 가격 컷다운(Cut down)하는 이유는 상대방 스토어들이 먼저 도전해 왔기 때문이며 결코 우리 쪽에서 경쟁을 유발한 일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일은 우리가 바라는바가 아님을 밝힌다.

문제된 곳의 케이스는 속히 검토하여 가격을 환원시킬것을 약속한다"고 말해왔다. 이같은 언명이 상투적인 변명인지 아니면 신빙성 있는 약속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피해를 입고있는 회원은 주장하고 있다. 거대한 자본력과 막강한 체인 스토어를 경영하는 대회사가 의식적으로 개인점포를 상대로 도전하는 세태의 단면을 보게되는 샘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회의 모든 회원들은 더욱 단결하여 이러한 살벌한 현실을 직시하고 권익보호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회 장: 이 형 인
부 회 장: 임 철 원
〃: 김 명 정
이 사 장: 김 태 진
부이사장: 전 윤 식

교포사업체매입가격결정의주요개념 ①

권리금, 굿윌, 프리미엄

(시카고지사)

교포사회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사업체의 매매양도 또한 빈번해짐에 따라 뜻밖의 상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 발생과 함께 당사자들 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새롭고 다양한 전문용어들이 자주 쓰여지고 있다.

권리금, GOODWILL, PREMIUM, TRUST, ESCREW, MORTGAGE ASSUMPTION, MORTGAGE SUBJECT TO등 이들 모두가 생소하기만하다.

이 가운데서도 권리금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또 그에 대한 시비가 자주 일고있다.

권리금의 진원과 그 이론적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또 이와 대등한 개념인 GOODWILL, PREMIUM과의 차이점을 웨인대학 경리직원으로 일하고있는 홍순백씨를 통해 들어본다.【편집자 주】

권리금이란 한국과 같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경제질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모든 경제 지표가 불확실하고 이자, 환율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이 다원화되어 있는 특수기업풍토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권리금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투자조건이 안정되어 있고 모든 필요한 경제지표가 확실하고 또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비나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

굿윌, 기업자산의 중추적요소 이뤄

항용 영업의 매매 양도시 양도 가격을 "권리금 플러스 인벤토리"란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경우 시설, 비품의 가격은 평가상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비교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금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시재상품은 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계약일 당시 실제있는 양으로 정한다.

서재상품 가격은 "최근 구입 가격"에 수량을 곱한 객관성있는 수치이지만 권리금이란 주관적인 가치라서 여기에는 위험과 시비가 있게 마련이다.

권리금이란 높은 이윤(초과 영업이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GOODWILL과도 비슷하며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누가 먼저 취득했느냐에 따라 일시적이긴 하지만 비영업적 초과 이익을 얻을 잠재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PREMIUM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적든 크든 지속적이고 일정한 영업 수입을 바탕으로 취득, 허용된 영업권이나 연구개발비의 투하로 얻은 특허권, 상표권 또는 유리한 영업 조건으로 표현되는 FRANCHISE나 ROYALTY와 같은 무형 자산들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때문에 이상의 기존 영업 지표들은 다음에서 설명하게될 "투자 고용 효과"라는 새개념상의 지표와 더불어 권리금 결정의 기본 요소가 된다.

◎초과 영업 이윤으로서의 권리금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하면 대개는 영업이윤의 "초과"(EXCESS INCOME)라는 개념과 동일시 하는데 이것은 이곳 미국 비지네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선 영업의 매매 가격이 시장가치(REPLACEMENT COST)보다 높은 경우 여기에는 그 초과액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초과 이윤에서 결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같이 권리금이 초과 이윤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곧 GOODWILL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영업 이익의 한 지표로서도 권리금의 개념이 확실시 될수있으며 또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될수 있을 것이다.

권리금과 초과 이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GOODWILL의 형성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자.
(계속)

제5차 정기이사회 소식

11월6일 오후6시30분 Holiday Inn DonVally에서 제5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궂은 가을비가 내려 이사들의 도착이 늦어져 저녁9시에야 개회가 선언되었다. 참석이사 21명(방청4명)으로 성원이 됨을 확인하고 김태진 이사장의 인사와 사회로 예정된 회순이 진행되었는데 이형인 회장이 현황보고를 하고 곧이어 협회 공인계리사(C/A)심상수씨의 소개와 인사 그리고 대차 대조표의 설명을 청취하고, 서동춘 감사의 81회계년도 감사보고를 접수처리한 후, 81년도 세출세입결산서와 82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그 예산안을 심의 통과했다. 그런후에 장시간 협회이사선임세칙을 축조 심의 제정했으며, 회장 입후보자들의 간략한 인사가 있은후 이사회는 폐막되었는데, 이날의 특기할 사항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 13명에게 협회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한 일이었다.

로고제작 완료

오랫동안 심사숙고 연구해오던 협회의 로고(Logo—상징.표지)가 제작완료되어 회원들에게 배부하게 되었다. 우선 도어 스티커를 3,000개 제작했는데 이 로고를 회원들 스토어정면 도어에 선명히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 주기를 바라며 가능하면 회원들 차의 전면 윈도우에 부쳐주시면 더욱 좋을 것이다. 회원 가게에 두장씩 먼저 보낼 것이라고 하며 더 필요하신 분들은 협회로 요청하여 주기를 바란다.

한국일보
533-2361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1981년도정기총회선거인명단 공고

본 협회 회칙 제5장 17조와 제6장 선거의 제 조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인 명단을 공개합니다.

1981년 11월 9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국 영

—아 래—

(1981년 11월 7일 현재)
(계속해서 추가명단 공고할 예정임)

투표권자 명단 11월 7일 현재

101	김사만	158	이임석	210	손용호	268	전병일
103	이순복	163	임승철	212	임창빈	271	최인열
104	노공흥	165	이선욱	213	정병열	272	손성진
108	조정대	166	신상철	214	문영환	273	신중화
110	전종완	167	홍한기	216	이범천	276	이우순
112	장재춘	171	윤·병	218	박문웅	277	박찬웅
114	이형대	172	김천만	221	김충천	278	유승인
115	최한철	174	차자운	222	박경덕	279	윤재용
117	구연원	175	백경락	223	염영호	280	이세용
118	함덕상	179	김기성	225	김은하	281	하청남
119	조가연	182	김성규	230	유승천	282	정미라
121	김성욱	183	김성종	231	혜리천	285	장가진
122	유현복	184	정삼현	233	원장호	286	이 준
124	이기훈	185	엄봉우	234	서중석	290	김창호
127	최장복	186	장선희	235	전윤식	291	김준환
129	원영신	187	강선진	236	이학천	293	정관복
133	문택락	188	곽창수	239	방익석	296	정종선
134	문영천	189	황주빈	242	안병원	297	이양구
136	김학출	193	한정차	243	박상남		
139	한희정	100-1	김윤거	246	김경애	200-1	임정남
141	김영무	100-2	샌디정	248	정우화	200-2	양정우
144	고광천	100-6	민경욱	250	유창수	200-4	김종세
149	안종훈	100-7	박광철	251	장운택	200-6	박건우
150	김 정	100-9	김진현	252	권창림	200-8	장영대
153	김선배			253	김신철	200-12	김덕용
154	이영규			254	정재문	200-13	신상현
157	김형호			255	정희철	200-14	최상수
201	박찬도	259	박경태	200-16	김종열	301	이광노
203	김흥철	260	김창호	200-20	석영남	302	이윤현
205	최광춘	261	신대균	200-27	한승련	303	박두하
206	최용근	262	오상철	200-30	이철수	304	조동언
208	정종섭	263	김봉자	200-31	신성식	305	이상봉
209	최복기	266	유 인	200-32	홍성호	308	한명철

200-33	차선행	309	노명숙
200-34	유만춘	312	엄기수
200-35	김의휘	313	정효생
200-28	이재택	317	박시환
200-41	박인걸	322	석영창
200-42	우인도	323	이달현
200-43	이기월	324	백세현
200-46	장재원	325	이상철
200-47	박남희	327	노성기
		330	김명정
347	이충범	332	황선완
349	진현철	334	이춘수
354	송광보	335	김효순
356	김기백	336	서득우
358	장재식	338	강우석
359	홍애교	340	박영구
360	배기웅	341	차선겸
363	차선철	343	석종윤
366	김영경	345	하소영

371	최덕형	405	김정치
374	호민식	406	이건길
376	윤득림	407	김주학
379	송충량	408	이창수
380	김연자	411	최승범
381	조지섭	412	김병환
382	송완일	413	김청남
383	임철원	414	박유네스
384	김광철	417	김홍식
386	박시흔	418	유영갑
389	강경하	422	김광정
390	박재원	423	전기석
391	이문주	424	김광현
392	김학성	425	송종구
395	조남용	426	서상수
397	이국영	427	박종진
398	노용란	430	심경자
300-2	조한권	434	임방식
300-5	전병웅	435	정인필
300-6	우희두	438	김영희
300-7	이재영	440	이 윤
300-8	이욱희	442	전희택
300-9	황욱화	443	배정규
300-10	정순자	446	이명숙
300-15	박영조	448	이용천
300-16	양정승	449	구철회
300-17	김중기	450	김기열
300-18	방성식		
300-20	최재오		
300-22	최우현		
300-24	원종필		
300-23	황보영희		
300-27	김대원		
300-28	하길영		
502	홍경기	564	김영달

503	최상철	565	유동수
505	이용구	166	김기수
506	한문식	567	정상우
507	이신녕	569	윤종영
509	이형재	570	나상선
511	권순권		
512	배기욱	604	윤의웅
514	김연오	607	전동휘
520	이근호	612	장천진
521	신명철	614	송승섭
522	송광보	618	김희수
525	이규용	619	박재영
526	이병권	622	유기훈
528	오세봉	623	하영화
529	이정영	627	심태섭
530	방윤식	630	신재판
533	한용식	632	송남성
534	송종남	638	장석진
535	남송우	639	천태은
538	함태선	640	오동기
539	송기선	641	박기복
544	김병선	646	이회용
545	신재철	647	강태경
546	김태진	651	이병문
548	최원보	652	신갑천
550	이우규	653	여문석
552	김성기	656	임문호
553	장현수	657	김이열
555	박희용	658	윤용탁
559	김재은	659	이형인
560	허종수	660	강기헌
561	서준경	663	장추국
562	이현배		

102	박남진	393	김순남
113	이종수	431	김정숙
168	문남커	503	이혜창
210	이종훈	505	이영만
288	노도용	513	서동춘
295	황 준	227	강경필
200-5	황 준	335	김이열
200-20	이시우	310	양해룡
301	정효기	274	김헌덕
321	허충식	628	박상곤
343	정영춘	403	나영삼
350	우인도	131	유명인
370	이욱자	517	김만용
371	심용웅	200-36	전정구
388	이춘식	662	이범재

주간女性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인실업인협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본회 회칙 제3장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1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시 일 : 1981년11월26일(목요일) 하오6시

장 소 :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Wynford Dr. 에 입구있음)

안 건 : 1.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3. 이사회 보고
4. 감사보고
5. 정 부회장및 이사선출
6. 회칙개정
7. 기타안건.

1981년10월9일

한인실업인협회장
이 형 인

교육자 청빙공고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에서는(캐나다 장로교 소속교회임)사명감이 두터우시고, 헌신적으로 목회하실 목사님을 모시고자하오니 뜻이 있으신 목사님의 연락을 바랍니다.

1. 자격 ●신학대학을 졸업 하시고 목사안수를받으신 분으로 목회경험 3년이상 되신분
●영어를 어느정도 구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인정 받으실수 있는분.
●년령 45세 전후
2. 대우 ●캐나다 장로교 기본에 준함.
3. 제출서류 ●이력서(한글및 영어)
●목회소견서 1통
●명함판 사진 1매
●설교녹음 카셑트가 가능하면 함께 우송바람
4. 연락처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54 QUEEN ST. NORTH
KITCHENER ONT N2H 2H2

※그외 자세한 내용은 전화 : (519) 576-4926
(김진욱 장로)

키치너-워터루 한인장로교회

金利 連動制실시방침

10개 經濟指標와 연계

물가·景氣등 종합판단 小幅·수시調整 衝擊없게

정부는 금리의 탄력적인 운용을위해 주요 經濟指標에 연결시켜 금리를 수시 조정해 나가는 連動制를 실시할방침이다。1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金利連動制는 종래의경직적인 금리운용방식을 탈피, 필요에따라 작은폭으로 자주조정하는 신축적인 金利運用방식을 전환키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물가와경기, 국제수지등 10개 주요경제지표의 변화방향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시로 조정하게 돼 있다。

10개 관련지표는▲물가(도매및소매)▲경기(예고지표)▲국제수지▲수요(민간소비、비재생산지수、도·소매지수)▲산업(재고、출하및생산지수)▲기업경영(손익및자기자본비율등)▲통화(총통화、통화및 관련지수)▲저축(저축성예금)▲자금사정(부도율、사채금리、국공채수익률)▲국제금리(프라임레이트및리보레이트)등으로 이들 지표는 指數增減率또는 前期對比增減率을 통해 계량적으로 인상、인하、거치등의 금리조정의 방향을 나타내게되며 당국이 이들10개지표의 개별적인 변화방향을종합、일차적으로 전체적인 변동방향과 조정폭을 산정한다음 여기에 정책적인 판단을 가미시켜 최종적인 결정을하도록돼있다。

정부는 금리의 일시적인대폭조정이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주고 부작용을유발하는것을 피하기위해 金利連動制를 실시키로 했으며 앞으로는 10개連動指標의 변화방향에따라 0.5~1.5%포인트범위내에서 금리를 소폭으로 수시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방침에 따라 물가、저축、국제금리、기업경영등관련지표의 추이에따라 연내에라도 0.5~1%포인트정도의 소폭적인 금리재인하가가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美 優待金利 17%로 引下

【뉴욕9日AP·UPI=聯】뱅크·오브·아메리카、체이스·맨해턴·뱅크등 미국의 주요은행들은 기업의 대출수요격감에따라 침체되고있는 국내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조처로 프라임레이트(우량기업에대한 우대금리)를 연초이래 최저수준인 17%로 일제히 인하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프라임레이트가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게 될것이며 조만간 다시 16.5%로 떨어질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국내은행들이 프라임레이트를 인하하고 있는것은 기업의 대출수요격감과 이에따른 경기침체및 실업격증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所得控除額 높여야

국회常委질의답변·65세이상 成人病등록 관리

국회는 10일하오 豫決委를 開會하여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內務·財務委등 常委를열고 정부와 議員들이 제출한 각종 法案을 심의했다。

▪豫決委▪ 申秉鉉부총리는 답변에서 「9일의 金利인하조치이후 別途의 경기부양책을 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徐錫俊상공장관은 「새마을공장 지정에 있어 부락민의 협동사업은 지정요건을 완화하겠으며 현재 7백23개의 새마을공장중 완공된것은 5백97개로 이중 71개 공장이 대부분 자금난으로 휴업중」이라고 밝히고 「금년중 확보되고있는 1백억원의 운전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金容烋총무처장관은 南北공휴일지정문제에 대해 「공휴일지정에 따른 공장稼動정지등 사회손실이있으며 물가를 올리고 허례낭비풍조를 조장한다고 판단, 南北 공휴일을 반대한다」면서 「오늘의 결단이후에 존경받을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千命基보사장관은 내년부터 敬老대우를 65세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 「어버이날」을 기해 老人憲章을 선포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65세이상 老人들의 성인병은 등록관리하며 老人학교를 국민학교단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65세이상의 無依託老人에게 1백%의 의료보험혜택을, 영세가구 老人은 50%의 혜택을 주도록하겠다고 말했다。

▪財務委▪ 民正黨이 제출한 所得稅法 개정안과 法人稅法,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附價稅法개정안등 5개稅法案과 정부가 제출한 은행관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해 河政府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개정안은 세율구조 축소와 소득공제및 세액공제가 국민의 부담을 정부안보다 훨씬 輕減시키는것은 틀림없으나 82년기준 4천7백96억원의 지나친 稅收減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그보다는 저소득층의 稅부담輕減을위해 근로소득稅額공제의 범위확대、근로소득세 공제율의인상 또는 근로소득공제액의 최저한도를 인상하는것이 타당할것」이라고 말했다。

李承潤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앞으로 國立대학의 등록금을 私立대학 수준으로인상하고 남는경비는 국립대하

나가겠다」고 말했다。

▪經科委▪ 경제기획원측으로부터 제5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대한 보고를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南北韓 最高당국자 만나는것만이 韓半島문제 解決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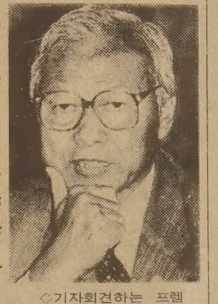
全대통령、프렘泰首相만찬서

全斗煥 대통령은 10일『南北韓 최고당국자간의 상호방문및 회담만이 韓半島문제해결을위한 유일한 현실적인길이며 北韓도 언젠가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아 궤도를 修正할것으로 확신하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프렘泰國수상을위해 만찬을 베푼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7월 본인의 泰國방문과 프렘수상각하의 이번 한국방문은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재확인했을뿐아니라 한국과 泰國이 지역안보에관한 공통된 인식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준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렘수상은 이에대해 答辭를 통해 『韓泰양국간의 긴밀한 雙務관계발전은 양국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될것이며 양국이 속한 東北亞、東南亞지역뿐만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한국측에서 南悳祐국무총리 申秉鉉부총리 盧信永외무 徐廷和내무 李承潤재무 徐錫俊상공 金容烋총무처장관과 權泰雄駐泰대사등이, 泰國측에서는 싯·사웨실라外相 차차이·춘하완工業相등 공식수행원 13명이 참석했다。★관련기사2면



◇기자회견하는 프렘泰國수상。

泰5次계획 적극參與 요청

泰 프렘首相회견

프렘泰國수상은 10일 한국과 泰國은 상호交易과 經協및 투자를 더욱 증대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泰國의 제5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에 한국측의 참여가 요망되며 특히 經協·投資증대를 위해 韓泰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에 큰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프렘수상은 이날하오 3일간의 공식訪韓을 끝내고 離韓에 앞서 숙소인 新羅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泰國의 경제전망이 매우 밝으며 외국 투자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韓泰양국은 특히 농업과 造船공업분야에서 經協및 합작투자의 폭을 넓힐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렘수상은 韓泰양국의 경제가 상호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다는 南悳祐국무총리와의 합의내용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中東지역에 대한건설합작 투자도 함께 추진해 나갈것을 희망하고있다』고 말했다。

프렘수상은 또 南北韓의 동시유엔加入을 희망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에대해 『泰國은 南北韓동시유엔 가입을 여러차례에걸쳐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對外職名 副總理신설

特使등 時限附、外交활동지원

정부는 외교활동의 원활한 수행을위해 국무위원을 特使에 임명한 경우 副總理의 對外職名을 부여할수 있도록하는 對外職名副總理制를 신설키로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特命全權委員및 政府代表의 任命과 權限에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對外직명 부총리제를 신설하고 민간인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대표에 대해서도 特命全權大使나 大使의 對外직명을 지정할수있게했다。

그런데 對外職名을 부여받은 特使는 그임무가 끝나면 부총리의 對外職名은 자연히 소멸된다。

개정안은 또 特使는 외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經由, 대통령이 임명토록하고 특정한 목적을위해 외국정부또는 국제기구와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조약에서명하는 권한을 갖는 정부대표는 외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임명하게했는데 이경우 特命全權大使나 大使의 對外직명을 부여할수있게 했다。

改正案은 「特命全權委員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관한 법률」 명칭을 「特使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법률」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의 제안설명에서 「국제법과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관례에 따라 특별사절의 임명에관한法的 근거를 규정하고 최근 임명사례가없는 特命全權委員을 정부대표의 범주에 통합하며 아울러 외교활동의 원활한수행을위해 이같은 규정을신설했다」고밝혔다。

정부는 이 改正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觀象臺를 氣象臺로

總定員制案 의결

국무회의는 10일 정부기구 축소에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및 總定員制실시근거를 마련,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통합, 관리함이 효율적인경우 그정원을통합할수 있게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관상대의 명칭을 중앙氣象臺로 바꾸고 기획조정실과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는등 정부조직개편작업을 뒷받침했다。

教育稅 재산稅附加방식 철회

政府·與黨방침 原案 國會심의서 대폭修正키로

持續的인 目的稅로 財源계속확보

정부와 民正黨은 정부의敎育稅신설 原案을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대폭 修正、오는 82년부터 86년까지 5년간의 時限附를 철폐하여 持續的인 目的稅로 바꾸는것을 검토하는 한편 財産稅에 대한 附加방법을 철회하고 새로운 代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民正黨의 한소식통은 10일 교육세에 관해 정부측과 협의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黨政協議과정에서 새로운 代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5년간의 時限附를 철폐하고 이를 연장하는 것은 교육財源확보의 긴요성 때문에 稅신설을 한다면 그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위해 時限부 목적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 기간동안 확보된 교육財源은 시설부문에 집중투자될 계획인만큼 그 다음단계인 교육의質을 향상시키기위해서는 지속적인 財源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또 재산세에 대한 교육세부가는『중산층의 稅부담輕減이라는 문제와 상충될뿐만아니라 많은 물의와 租稅抵抗이 우려되기때문에 철회하는것이 타당하다』고말했다。

이 소식통은 재산세부가방법이 철회됨으로써 예상되는 5백억원의 稅收확보를위해▲현재 정부案중 酒稅에대한일부課稅案을일률과세로하는방안▲은행의 법인세등을 인상시키는 방안 ▲정부안중 利子배당소득세부분중 高所得者에 대해 重課하는 방안등이 검토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民正黨은 지금까지 교육세신설엔 찬성하되 財産稅에 附加방법은 租稅의重複부담인점을 들어 반대의뜻을 분명히했고 李承潤재무장관은 지난주 국회財務委에서재산세에대한 附加방법을 변경할뜻을 示唆한바있다。

한편 民韓黨을 비롯한 야당측은 교육稅신설을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제안지인 재무장관이 5년동안 시한부목적세로 신설하겠다는 기본입장을 천명한 싯점에서 시한연장론을 내세우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11일부터 시작되는 稅法小委의 심의과정에서 많은 論難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司法府 소폭縮小

사법부기구도 일부 소폭축소됐다。지난6일 대법원판사회의를거쳐 대법원이10일 확정한 사법부기구축소방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감사담당관과 민원담당관을 합쳐 감사민원담당관으로 통합하고 행정조정관과 기획조정관직은 폐지했다。

또 법원행정처산하에 두고있는 각종 위원회가운데 공문서양식개선위원회와 상고심제도개선위원회를 폐지하는대신 그기능을 송무제도개선위원회에 흡수하고 규칙정비위원회도 폐지、해당실무부서가 그기능을맡도록했다。

中·北部 함박눈…곳곳서 交通滯症

10일 새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에 함박눈이내렸다。서울지방의 4·5cm를 비롯 ▲春川 5·5cm ▲淸州1·5cm ▲大關嶺1·8cm등의 적설량을보인 이날눈은 따뜻한 날씨에 곧 녹았으나 출근길에집중적으로 쏟아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서울의 경우 새벽 2시45분께부터 내리기시작한 눈이 쌓이자 미처 스노타이어등을 준비못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했고 仁旺·北岳스카이웨이와 南山순환도로등의 교통이 통제되는등 고가도로입구나 고갯길이 막혀 한때 큰 혼잡을 빚었다。눈이내리자 서울시경은 이날상오6시를기해 교통비상령을 내리고 교통소통작업에 나섰으나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간선도로마다 심한 체증현상을 보여 각 직장마다 지각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10일상오8시秘苑앞】

社會漫評

大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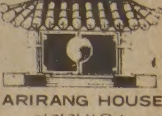
地平線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절대로 같은 비행기에 타지 않는다。단추하나로 核戰爭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판에 후계자의 위치를 안전하게 해놓으려는 배려가 숨어있기 때문이다。▼레이건저격사건때 부시부통령과 헤이그국무장관 사이에 잠시 代理權을 둘러싸고 혼선이 생겼지만 그것은 숨가쁜 순간의 헤이그 착각에 불과했다。하나 일본의 大平首相이 갑자기 별세했을때 후계자가 한참동안 결정되지 않은채 官房長官이 葬禮式등 모든행사를 차근차근히 진행했어도 아무탈이없었다。後繼者선임이 늦어져도 별문제가 안일어난것이다。미국과일본은 첫째 危機意識부터 다르지만 옛날부터騎馬型社會나農耕型社會나에따라 後繼者문제에대한 사고방식도 다른 점이 뚜렷이 나타났다。농경사회에선 한마을의酋長이 죽었을때 평화적정권교체가 조용히 이루어지지만、騎馬型社會에선 後繼者문제가 그순간에 결정안되면 그마을의 存亡이 걸려 한시각이 급한 것을 알수있다。▼後繼者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법절차에 따르므로 별문제가 없는듯하나、그래도 미묘한 경우가있고 딴나라에선 심각할때가 많다。소련이나 중공、유고등지에서 後繼者難으로 集團指導體制가 잠정적으로 이룩된것만 봐도 알수있다。소련은 스탈린이 죽은뒤 말렌코프、불가닌、흐루시초프가 집권했지만 결국 브레즈네프、코시긴、포드고르니의 트로이카체제를 거쳐 브레즈네프시대로 넘어갔다。중공은 毛澤東死後에 華國鋒이 優勢한것같이 보이더니 鄧小平이 角逐끝에 實權을 잡기까지 權力暗鬪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줬다。말로는 쉬워도 平和的政權交替란 정말어려운 것이다。그런데 이평화적정권교체를 모범적으로버마의네·윈 대통령이 이번에해냄으로써 세계의 관심을 끌고있다。▼올해71살의 네·윈 대통령이 집권20년만에 권좌에서 스스로 물러난것이다。평화적정권교체에 따라 바통을 새로 이어받은 산·유 대통령은버마군참모총장을 지낸 제2인자로 알려져왔고 정권교체 또한 스무드한것같다。高齡과건강악화를 이유로下野한 네·윈은 버마사회주의계획당의당수직만 계속 맡을모양이며 네·윈체제20년에 자신감을얻어 이번에下野를결심한것이다。네·윈은 두번의무혈쿠데타로 집권한이래 非同盟과 경제자립을 내걸고 독자적一黨體制를 굳혀오다가 작년부터는 은퇴에 대비、국내정치에 '폭넓은 유화정책을 써왔다。버마가 後繼者難으로 고심해온것은 73년에 나온 親政府紙의 集團指導體制論說에서도 엿보였다。▼이제 40년동안 네·윈을 補佐해온 산·유 대통령의 등장으로 버마 정국이 더안정될지 모른다。다만 버마의 平和的政權交替를 보면서 언제적 네·윈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것만은 어쩔수없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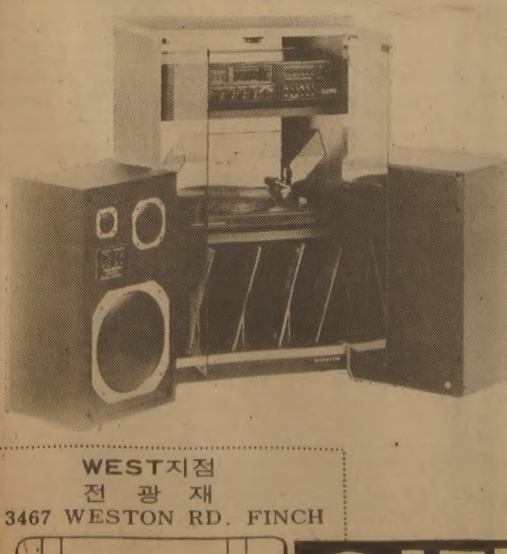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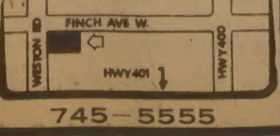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TELEFUNKEN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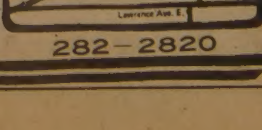
745-5555

SPECIAL SALE
특별할인

FEATURES :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

독립신문、帝國主義인식 잘못

新聞學會 세미나 金珉煥교수 발표

「미국은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일본은 동양의 파수꾼이며 열국은 공동이익을 보존한다。침략야욕을 가진것은 러시아이다」 독립신문에 비친 외세에 대한 인식이다。全南大 金珉煥교수(新聞科)는 7일 外大에서 열린 신문학회학술발표에서의 「독립신문의 민족주의」란 주제발표를 통해 『독립신문이 민족운동에 기여한 공은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이처럼 제국주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美國은 弱한 나라 돕고 日本은 東洋의 파수꾼
強大國침략、收奪보다 開化로 해석
清國末路 임박…對露경계심만 강화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폐간될때까지 8백4개의 논설을 실었다. 정치문제에 관한것이 3백7개(38%)、경제문제에 대한 것이 76개(9%)、사회문제가 1백88개(23%)、국제·외교가 1백11개(14%)、학문·예술 35개、기타 87개이다.

외세분석과 관계깊은 국제·외교에 관한 1백11개를 주제별로 보면 국제정세 일반이 55개、외세수용이 41개、자주독립및 중립외교론이 15개이다. 이중 국제정세 일반에 관한 논설 55개를 다시 분류하면 세계정세에 관한것이 18개、동남아주변정세 일반이 7개、일본에 관한것이 6개、청국에 대한것 15개、露日관계에 관한것 7개、기타 2개등이다.

세계정세에대한 18개의 논설은 전반적인 정세설명이 7개、美西전쟁이 3개、동남아에서의 전쟁 3개、그리스와 터키전쟁 1개、기타 4개이다. 전쟁에 관한것이 7개나 되는점이 눈길을 끈다.

이처럼 전쟁에대해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제국주의의 속성을 파악하는데는 비교적 소홀했다. 제국주의국가의 후진국 침투가 「수탈」보다는 「開化」에 있다고 인식한듯하고 제국주의에 국권을 빼앗기는것을 후진국의 생존권에 직결된것 보다는 「명예」에 관계된 것으로 잘못본 일면도 있다.

강대국에대한 인식도 그렇다. 미국은 약한나라를 기어이 도와주는나라、일본은 동양의 파수꾼등 英·美·日3국을 조선의 국권을 넘보는 제국주의적 국가라기보다는 화평을 유지하여 공동이익을 보존하는 나라로 보았다. 다만 러시아만을 침략의 야욕을 가진 나라로 경계했다.

이같은 제국주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분쟁원인을 잘못 보는 한 요인이 됐고 주변정세를 파악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열국이 중국을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고 있음에 따라 독립신문은 『청국이 멸망하면 결국 사냥꾼들이 조선으로 몰려올것』이라는등 조선과 청국이 운명을 같이하게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의식과 일본과의 親和주의로 이어지면서 일본·조선·중국 세나라의 共榮論으로 발전한다.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大東合邦」하는 의리로 동양과 조선을 지키고 보호해줄 것을 기대、친일주의를 재삼 강조한 것은 독립신문이 보여준 민족주의의 가장 큰 결함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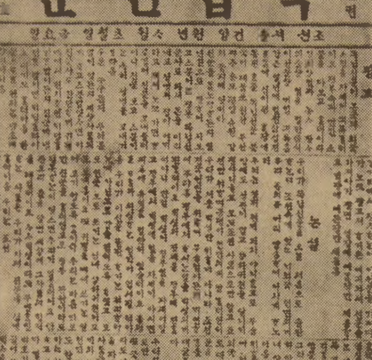
독립신문은 외세수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편이다. 외세수용에 관한 41개의 논설을 내용별로 나누면 개항2개、상권침탈 9개、개발이권 讓與 5개 租借·租界설정 7개、재정·군사 간섭권 12개、외국인의 인권침해 6개이다.

독립신문은 「한문이 통두하기 전에는 본국 법도라도 좋은 것은 취하고 외국 規模라도 낮은 것은 버린다는 은 바람직한 생각이아니다」고 전제、외국사람의 窮究磨琢하는 길로만 가는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무비판적인 變法開化論은 적극 개항론으로 연결돼 독립신문이 개발이권의 讓與、재정·군사고문관고빙등 외세개입에 대해서도 지극히 안이한 자세를 보이게한다.

독립신문은 선진국의 자유무역주의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開港—자유무역」을 통해 開明進步를 기할수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와함께 개발이권 양여와 재정및 군사고문관의 고빙에 대해서도 후반기에는 아주 비판적이었지만 초창기에는 소극적인자세를 취했다.

독립신문은 한말의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해나가기 위해서는 「팔방미인의 정체와 풍신좋은 장부의 뚜렷한 처사로 행하여 편벽되이 사귀지말고 동편 서편에 연합하여 화친하고 서로 제어하는 자세를 얽어맨」하고 중립외교를 내세웠다. 외교 최우선주의에 입각、국방력의 강화보다 중립외교를 강조한 것이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신지식층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같은 인식결여는 결국 그들이 자신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적 다위니즘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추종하게 만들었고 상당수가 매판지식인으로 전락까지했다. 우리민족으로서는 斥邪운동이나 농민운동까지 수렴하고 이끌어간 지도성의 결핍으로 망국의 비운까지 감내해야 했던 추요한 원인이 됐다. 【李炳日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한말의 외세를 인식하는데 상당히 안이한 자세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經濟短信

▲許愼九사장명예대표로지명받아=許愼九 金星社사장(사진 왼쪽두번째)이 9일 앨라배마州廳舍에서 줄·제임즈州知事로부터 한국인투자업자명예대표로 지명받고 명예대표증서를 (사진) 받고있다.

▲農協 사과3천톤수매=農協中央會는 풍작을이룬사과의 홍수출하를막아 농가소득증대및 가격안정을 기하기위해 5억원의 자금으로 비축용사과(국광) 3천톤을 12월10일까지 수매키로했다。

▲ABN銀行 서울지점장에 리들린씨=네덜란드계의 ABN은행 서울지점장에 노·W·E·리들린씨가 11일字로 취임한다。

▲韓·美·日비교노사관계월례회=韓國人事管理協會(회장 鄭東俊)는 제86차 월례회를 13일하오6시30분 美8군사령부에서 갖는다。주제는 노사관계의 韓·美·日비교。

▲國民銀 낙도어린이 초청=국민은행은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소재 볼음국민학교6학년어린이 전원을 초청、임직원집에 민박을 시키면서 주요산업시설과 현충사 참배를 통해 조국애와저축심을 고취시켰다。

▲리바이社 한국지점개설=세계적인 블루진 메이커인 리바이社는 최근 한국에서의 구매활동을 더욱 활발히하기위해 한국지점을 개설했다。

주간女性

現代版알라딘의 燈

趙完圭 〈서울大 교수〉

아라비안나이트에 소년 알라딘이 들고있는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이 등은 모든 소망을 풀어주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오늘 그러한 등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癌의 치료제라는 「인터페론」을 대량 제조해 낼수있는 간단한 방법이 알려진 뒤 「遺傳工學」이라는 낯선 용어가 우리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널리 번져나가고 있다。효소、혹은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遺傳子를 우리의 세포에서 도려내어 이를 大腸菌등 박테리아세포 안에 이식해두면 속도가 빠른 박테리아의 增殖과 더불어 그 遺傳子가 생성하는 물질을 대량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原理를 이용하게되면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물이나 肥料를 주지 않고서도 곡식이 재배되고 석유와 대체되는 에너지源의 개발이 가능하고 두·세배크기의 家畜을 길러낼수 있다는등 이는 필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게하는 「알라딘의 등」임이 틀림없다。그러기에 이미 歐美、심지어는 日本까지도 遺傳子産業과관련된 企業體들이 속출하고 섣급히 特許를 신청한다던가 株價가 한·두해사이에 수십배로 뛰어 오르는등 그 주변의 움직임이 어지러울만큼 요란하다。어쨌든 遺傳工學은 宇宙産業과 더불어 새로운 世界질서 형성을 예고하는 20세기 人類의 마지막 걸작이라고 할수 있다。

다행히 우리도 遺傳工學을 國家研究課題로 指定하고있다。또 몇몇 企業體에서 비상한 關心을 보이고도 있다。이 분야를 전공하는 中堅學者들이 아직 그 수는 적지만 부푼 꿈의 실현을 위해서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히 여기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특히 다른 나라와의 水準차가 크지않고 또 돈 보다 머리싸움이고 보면 우리도 한번 겨루어 볼 만 하다。다만 國家나 企業體들은 엄담아 들볶을것이 아니라 이들 學者들이 조용히 장래 연구를 설계할수 있도록 그 研究環境의 조성을 위하여 뒤를 밀어주어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도 남과같이 「알라딘의 등」을 소유할 수 있게될것이기 때문이다。

對外職名副總理制

【解說】對外職名부총리제도의 신설로 그동안 정부내에서 간간히 있어온 複數副總理制 신설논의는 일단락 된셈이다.

複數副總理制는 國保委시절부터 논의가 있었고 지난 3월 政務장관신설때도 검토됐으며 盧泰愚정무2장관의 歐洲및 아프리카순방을 계기로 다시 거론됐었다.

정부안에서도 정부조직법에 複數의 부총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가 신중히 검토됐으며 이에따라 실무선에서도 신중히 작업을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간소한정부를 목표로 기구를 축소해오고 있는 때에 複數의 부총리를 두는 것은 자칫오해를 불러일으킬수있다는 판단에서 對外직명부총리제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第3세계 主對象

對外직명 부총리제는 제3세계를 대상으로한 외교에여러명의 부수상을 임명해온 北傀의 對外활동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없지않다.

對外직명부총리제에 대해 대통령의 特使는 그 자격만으로 충분한 것이며 外交相對國에서 이를어떻게 받아들일것이냐는것이 문젯점으로 지적될 수도있다.

그러나 우리의特使가 외국에 파견될때 그 신분상의 지위때문에 외국관계자들을 접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과 제3세계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에선 높은지위가 그만큼 더 교섭에 편리하고 성과도 많이 거둘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외직명부총리제가 신설된것으로 볼수있다.

한편 9일 特使로 순방길에 오른 盧장관의경우 법개정이 안돼 對外職名부총리로 임명할수는 없으나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확정되는경우 盧장관의 순방중에 對外직명부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은 배제할수없다. 【河長春기자】

國境을조월한 사랑얘기담아

美CBSTV「北京에서만나다」

영국 작가 키플링은 일찌기 『동양은 동양이며 서양은 서양이다. 이들은 영원히 만날수가 없다』고 말한바 있지만 현재 北京에서는 東西洋이 함께 만나 악수도 나누고 키스도 하고 있다.

「北京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의 영화제작이 그것인데 내년 CBS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헝가리출신 미국인이며 전직 라이프지 사진작가였던할미씨에 의해 제작중인 이 영화는 원래의 시나리오대로하자면 한 미국청년이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 오게되어 중국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되는것인데 맹목적 중국인 애국주의자들의 반대에 의해 「한 미국아가씨가 중국의청년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것」으로 바뀌었다.

중국인들로서는 중국인 남자가 서양여자에게 반한다는 것은 대륙적 기질로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이유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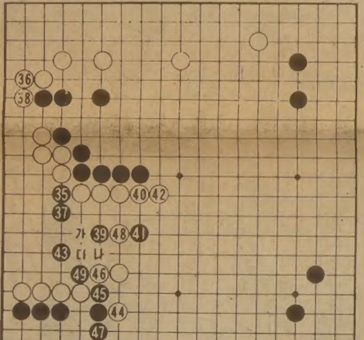
뿐아니라 키스는 점잖치못하니 악수나 하면서 『나는당신을 사랑합니다』며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주장이다.

제작팀들은 중국인들은 점심먹는데 3시간입니다。풀코스 점심을 먹으며 잡담을 하는데 끝이 없다。또 하루 8시간이상 일을하지않는다. 끝나는 시간만은 정확해 1~2분을 초과하는 일이 없다』고 느릿느릿한 행동에화가 치민다고 투덜투덜. 【UPI】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4譜 35~49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姜哲民〈2敗〉
黑(5段)張秀英〈2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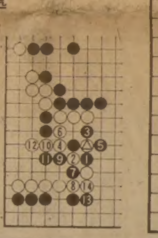


白36으로 37자리에 몰아잡지않고 黑이 37로 뻗었을때 38로넘어간 것은 白의 예정코스이며 이것으로 귀의실리를 확보하여 얻은바가컸지만、黑이 39에서 움직여 47까지로 된 이모양은 白쪽이 괴롭게 되었다는 중론이다.

姜6단은 이과정을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실은 도중에 임시응변책으로 강구할기회는 있었다. 白40에 밀어붙인 수론 직접 48자리에 뛰어붙여야 했던것이다. 그러면참고도 △표에 대하여 黑1에끼운다음 白2이하 14까지 수습할수 있었기때문이다.

또 白40으로 「가」에 건너붙여 끊는수는 어떤가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그러나 黑「나」에 뻗은다음 43에장문을 씌우는수와 42자리를 젖히는 수를 맞보게되면 白이 재미없다.

때이른 勝負處



좌우간 黑39로되자 姜6단은 난감한처지에 놓여 고심 또고심. 뭔가 비상수단을 모색해야 될판이다.

이리하여 白48。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이렇게 승부수를 던져야했다。黑48을 평범하게 白「다」호구로 잇고 黑도「가」자리를 잇게되면 白은 양곤마의 꼴로서 고전을면치 못한다.

그렇지만 黑이 마침내 49로 끊어버리자 문제발생。이곳 싸움이 곧 승부에 직결하는 판국인것이다. 【一凡】

한국일보 詩壇

裸木

柳謹助

쉴 짬도 없이 울고 있다
내 보잘 것 없던 생애를
네 純白의 그늘로 바꿔 가지면서
잠시
街路樹의 잎 잎에 매달렸던
지난、지난 여름의
식지 않은
生命의 熱氣를 다시 생각해 본다。

흐린날
친구의 痕跡처럼
너 또한 물기 흐른 피부에
아침 한 때의 햇빛을
灼熱하는 생명의 衝擊으로 바꿔 가지면서
이미 떠난 자의 不在를 慟哭하는가、
시방
喜悲가 엇갈린
코리아의 아침에
사람의 긴 겨울을 위하여
아니면
다시 忍從의 먼 길을 준비하는가。

이機、사우디領空 침범

警報機·아랍外相회담관련重大의미

紅海上空 2차례…交戰은 미확인

【리야드9日AP合同=聯】이스라엘전투기들이 9일 사우디아라비아서북부영공을 침범했다고 사우디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워싱턴에서 미정부소식통들도 이스라엘기들이 이날하오 홍해서북쪽1백68㎞의 사우디영 타부크인근 상공을 2차례침범 『상당 시간』동안 작전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사우디영공출현은 美의회의 최신예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對사우디판매승인및 리야드 아랍외상회담등과 시기적으로 일치해 더욱주목을 끌고 있다。

사우디통신은 이들 이스라엘기들이 사우디전투기에 의해 국경밖으로쫓겨났다고 전했는데 사우디국영방송은 이스라엘기들이 사우디내의 목표물을 공격했는지 여부에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 미정부소식통들은 이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출몰한 지역이 사우디군사요충 인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쌍방간에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는 나오지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래리·스피크스백악관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사건발생직후 제임즈·베이커 수석보좌관으로부터 사건전모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국방성은 아직 이에 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텔아비브의 이스라엘군사령부대변인은 사우디통신의 보도에관해 논평하기를 거부하면서 『軍은 여하한 항공작전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사우디領空침범 論評회피
이軍사령부 "飛行내용公開안해"

【텔아비브9日合同=聯】이스라엘군사령부는 9일 이스라엘전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우디측발표에 논평을 회피했다。

『이스라엘군대변인은 『이스라엘공군기들이 어느곳을 비행했든간에 구체적인 비행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만 해 사우디의 영공침범보도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았다。

버마大統領에 산·유

네윈 執權20년만에 물러나

【랭군(버마)9日AP=聯】버마최고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 서기로 권력서열 제2인자 산·유前육군참모총장(63)이 은퇴한 네·윈대통령의 후임으로 9일 버마대통령에 선출됐다。이로써 지난62년 무혈쿠데타로 집권한 네·윈 대통령(70)은 근20년만에 권좌에서 물러났다。

산·유 대통령은 이날 새로구성된 28인국가평의회의 지명을 받은후 지난달 선거에서 당선된 4백7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대통령에 선출됐다。

금년 70세인 네·윈 前대통령은 지난8월 노령과 건강악화및 평화적 정권교체의 열망등을 이유로 대통령에 재입후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그러나 그는 버마군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의 하나인 집권 버마사회주의계획당의 의장직을 계속 맡을 예정이다。

관측통들은 네·윈前대통령이 상당한 정도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며 따라서 버마 정치정세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退院한 브래디대변인 지난3월 레이건대통령 피격사건때 중상을 입었던 제임즈·브래디 백악관대변인(右)이 9일 새로단장된 백악관기자실개설식에 참석、테이프를 끊기전 대통령내외의 축하를 받고있다. 브래디대변인이 공석상에 나타나기는 피격사건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9日AP合同=聯】

얼굴

네윈補佐40年 第2人者
버마新任大統領 산유將軍

버마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산·유장군(63)은 근 40년동안 軍·政·官계에서 그의 전임자인 네·윈 대통령을 보좌해온 측근인물。

외하도였던 산·유는 일본점령치하에서 버마방위군대위로 복무했으며 2차대전후는 같은 계급으로 버마군에 참가、對英독립전쟁을 수행했다。

62년 네·윈의 무혈쿠데타가 성공한후 산·유는 버마군부참모총장과 함께 재정기획상을 겸임했으며 72년부터 74년까지 버마군참모총장겸 국방상으로 봉직한바 있다。

그는 지난64년 버마유일의 정당인 사회주의계획당(BSPP)의 서기장으로 임명돼 지난10월까지 그 직책을 맡아왔었다。

또 그는 지난 62년 혁명평의회 서기로 기용됐으며 74년 국가평의회로 대체된이후 지금까지 서기직을 맡아 왔었다。

네·윈의 후원하에 순조로운 승진을 거듭하던 그는 지난74년 BSPP중앙위원회 선거에서 네·윈보다 많은표를얻음으로써 영향력에 제동이걸리는시련을겪기로했다。

메아리

옛 그림

외신에 의하면 파리의 한 화랑에서 열린 일본미술품경매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던 채에 섞는 짐의 포장지로 쓰였던 18세기 일본의 그림들1백69점이 경매금에 약4억3천여만원에 팔렸다는 소식이다.

이번 경매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그림은 거울앞에서 입술연지를 바르고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을 그린것으로서 한장에 7천6백30만원이나 나갔다는 얘기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일본의 그림으로서 해외에서 팔린 그림 가운데서는 가장 비싼것이라는데 18세기 당시만 해도 화물의 포장지에 지나지 않았던 그림이 이렇게 새로운 평가를 받게된것이다.

이날 경매의 주종을 이루었던것은 일본이 산업화하던 19세기말의 것이었다. 이 그림들은 너무 최근의 것이어서 큰 가치가 없는것으로 알고 외국 애호가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겨 그돈으로 공장을 짓기도 하고、가게를 차리는등 하여 돈벌이 재미를 보는데만 열을 올렸던 것이라 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비단 일본만의 것이 아니고 미술의 본고장으로 자처해 왔던 프랑스에서 조차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 대해서 초기에는 아랑곳 하려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사정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 고유의 회화라 할수가 있는 민화도 해방후 또는 최근까지 천덕꾸러기로 국내의 애호를 받지 못하고 해외로 마구 흘러 나갔다가、근자의 이상붐을 만나 각사찰이나 사당의 탱화와 무속도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러나 때는 늦어서 민화나 탱화 가운데 좋은것은 이미 외국에 많은양이 불법반출되어 되려 외국에서 비싼 값으로 사들여야할 형편인것은 일본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하기야 성인도 제고장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했거늘 미술품도 그와 마찬가지 이치로 제나라에서는 제때에 평가를 못받는것이 십상인가 싶다。

이미 때가 늦었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전래의 회화나 공예품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애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것은 물론 외국에서 되찾아오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DOMINION SMALLWARES

금주의 스페샬

Nov. 16 - Nov.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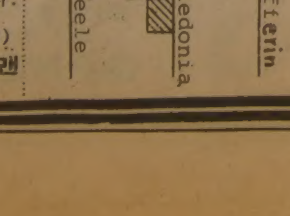
		SPECIAL
Fruitella	36/25¢	$ 5.12
Rowntree and Neilson Reg. Chocobar	36/40¢	9.59
Cadbury & Rowntree Neilson Family choco. Bar	25/99¢	15.09
Cadbury thick bar	24/55¢	13.75
Neilson thick bar	24/55¢	13.25
Breath saver	12.30¢	2.55
Blue diamond almond 17g Reg. Rosted		5.59
" 85g Reg. Rosted		12.09
Y & S Licorice Pipes	48/10¢	3.05
" Cigar	48/10¢	3.05
Y & S Mr. Chew	48/10¢	3.05
Pal Gum	240/ 2¢	3.09
Acta throat soothers	20/40¢	4.75
Nha stickers	100/15¢	10.29

DOMINION SMALLWARES

크리스 마스때 까지(일요일 오전중만 OPEN 합니다.

920 Caledonia Rd (Cash & Carry에 한함)

789-7214(MR. 김)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창립5주년
기념예배및 집사안수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포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교회는 창립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예배와 아울러 집사안수식을 하오니 오셔서 축복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 래—

안수집사 : 김복득
일　　자 : 1981년11월22일(주일) 오후4시
교회전화 : 247-9577
목 사 관 : 881-7162
주　　소 : 1KING ST. WESTON ONT. (KING & WESTON)

순복음 토론토교회 담임목사
이필주

國校生은 李舜臣장군 中學生 世宗大王존경
초·중·고교생 의식조사

우리나라 국민학교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李舜臣장군이며 중학생은 世宗大王인 것으로 나타났다。존경하는 인물 10인 중에는 국교생의 경우 국내 위인대 국외위인 비율이 4대6이며 중학생은 5대5이고 또 초·중·고학생들은 정치가에대한 존경심보다는 발명가와 사회봉사자를 더 존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초·중·고생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위인 및 독서 성향을 조사한 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남학생에겐 정치가·과학자 여학생은 사회봉사者 人氣
외국인 選好경향…主體性교육시급

이 조사에서 국민학생들은 존경하는위인의 순위는 ①李舜臣 ②에디슨 ③世宗大王 ④申師任堂 ⑤柳寬順 ⑥헬렌켈러 ⑦슈바이처 ⑧링컨 ⑨나이팅겔 ⑩퀴리부인 순이었으며 중학생은 ①世宗大王 ②李舜臣 ③헬렌켈러 ④李栗谷 ⑤슈바이처 ⑥申師任堂 ⑦에디슨 ⑧아인슈타인 ⑨링컨 ⑩柳寬順 순이었다。

이중 나이팅겔은 국민학생에만 나타나고 중학생은 아인슈타인 李栗谷을 좋아하고있어 중학생들이 사상적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헬렌켈러와 슈바이처가 압도적으로 많은것은 사회정서가 메말라가는 현시대에 인정·봉사·희생에대한 기대가 많은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학생들이 외국위인을 존경하는경우가 많은것은 주체성있는 교육정책수립에 중요한의미를 부여하고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또 남학생의경우 정치가나 과학자를 존경하는반면 여학생들은 현모양처나 사회에공헌한여성을 존경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중학생 대상의 위인전및 단편소설등의 도서물개발이 시급하며▲어린이들의 위인에대한 사고방식이 경직화돼있어 위인의 대상을 한정시키지 말고 선진국처럼 과학자·사회사업가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조사는 결론짓고있다。

한편 이조사를주관한 동방생명은 10일 이조사기간중에 독후감을 제출한 1만1천8백명의 학생들에게 양서 1권씩을 보냈으며 이중 최우수작으로뽑힌 경남 昌原여고 1년 이영주양(마지막잎새) 서울 東白여중3년 최문정양(슈바이처) 경기도安城郡一竹국교5년 신동준군(헬렌켈러)등 3명을비롯 입상자 2백37명에게 5백48만원의 장학금과 부상을 시상했다。【昌】

「美월드카」가 上陸한다
大宇·GM합작 내년着工 84년에 市販
年産 30만대規模
50%輸出·50%는 內需로 공급
조립工場 富平·엔진등은 昌原에 세워

美제너럴모터즈가 세계시장을 지냥해서 제작하고있는 월드카가 한국에 상륙한다。제너럴모터즈와 대우그룹과의 합작회사인 새한自動車는 10일 월드카생산공장건설계획을 徐錫俊상공부장관에게 보고했다。새한自動車가 이날 상공부에 제출한 월드카도입계획에 따르면 도입차종은 1천cc급S카로하고 공장규모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산30만대 규모의 대단위공장을 건설하여 82년공장건설에착수, 84년말께 준공과함께 새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한측은 애당초 1천3백cc나 T카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現代自動車가 먼저 1천3백cc급 소형차 개발계획을 제시했을뿐아니라 T카는 이미 개발된 모델이기때문에 매력이 덜하다는 점을 감안, 현재 개발중에있는 최신모델인 S카를 도입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새한측은 S카의 개발계획에 맞추어 공장을건설, 美國의 시보레, 서독의 오펠社와 동시에 S카를 내놓을 계획이다。

연산 30만대규모의 S카공장건설에는 약8억달러가 소요되는데 새한측은 조립공장은 富平에, 그리고 엔진·주물등 부품공장은 昌原에 건설할 계획이다。

새한자동차는 생산된 승용차의 50%는 수출하고 나머지 50%는 내수로 돌린다。

그러나 5차5개년계획에 따르면 86년의 승용차생산능력은 63만7천대인데대해 현재의 능력은 35만6천대로 30만대규모의 대단위 승용차공장 1개만건설하면 계획을초과한다。이에대해 現代와 새한이 각각 30만대규모의 대단위 공장건설계획을 제시하고있어 정부가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을끈다。

또 현대와새한측은 최신형 소형승용차의 건설계획을 제시하고있으나 부품공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상공부는 2·28자동차산업 통합조치이래 1백86개 부품업체를 심사한적이있는데 기술및 품질수준이 떨어져있어 최신형 승용차생산에 적합하지 않을뿐아니라 최근에는 그나마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여개 업체가 부도를내고 도산상태에있어 부품공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경쟁력있는 승용차를 생산할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국내수요가 침체된상태에 있기때문에 국내수요 창출시책이 마련되지않으면 대단위공장을세워도 차가 팔리지않아 새로운부실화요인을 조성할 우려가있다。

셰익스피어劇 演技術지도
패트릭·스튜어트夫婦내한

셰익스피어연기지도술의권위자인 로열셰익스피어극단의 패트릭·스튜어트、셰일러·팔키너 부부가 우리나라연기자들에게 셰익스피어극연기지도를 하기위해 8일하오 내한했다。

『한국연기인들에게 서사적인 대사와 유연하고 박력있는 몸동작이 특징인 셰익스피어연기술의 정수를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이들은 9일부터20일까지국립극장연습실에서한국연극협회주최현대극장주관으로열리는『셰익스피어연기강습회』를이끌면서한국연기자들에게발성법및 신체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된다。

이번 연기자 훈련은 극단현대극장이 82년부터 셰익스피어 4대비극시리즈를 무대화 한다는 계획에 따라 그 초작업으로 마련한것。

훈련법이 고도의 기술과 인내를요하는것이어서기성연극인들의 참석도 희망한다는것이 주최측의 말이다。(문의 ⑳6740、⑳7021)

강사인 패트릭·스튜어트는 21년 경력의 직업배우로 영국연극계를 대표하는 1966년 영국 로열셰익스피어극단에 들어간이래 셰익스피어의「겨울이야기」「타이터스·안드로니커스」등에서 주역을 맡았으며 금년말에는 헨리4세/1·2부에서 타이틀롤인 헨리王으로 출연할예정。

한국일보
533-2361~4

나의 이력서
윤치영 ⑧⑧

50년대 나는 政治圈외에서 숱한 사회활동에도 간여했다。외교、체육 교육、언론、문화등 각계에서의 활동중엔 내스스로 주관이 된것도 있고 名譽職비슷하게 업혀다닌 것도 있다。

돌이켜보면 사회활동、특별활동이란 이름의 갖가지 활동중엔 지금 생각해도 보람이 있는것도 있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외람되고 과분한 역할도 있었다。해방후 50년대까지 내가 맡아봤던 직책은 대소 30여개에 이른다。

그중 보람이 있었던 일중의 하나로는 해방후 내가 주축이되어 만든 外交後援會를 들수 있다。외교후원회는 그뒤 외교구락부가 되었는데 지금도 南山기슭에 자리잡고 古典的인 洋食집의 전통을 이어가고있다。당시 南山외교구락부에선 유엔대표、외신기자、외교사절들을 빈번히초대해 좌담회도 갖고 국제정세도 논의했다。외국인에게 우리의 문제를 홍보하고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는 그렇게 좋은기회가 또 없었다。나라의 기틀이 잡히지않았던 당시엔 弘報역할을 단단히 한셈이다。

그때 나를도와 적극적으로 활동했든 인물로는 林炳稷、任永信、張基永씨등을 들수 있다。

해방후와 6·25당시엔 뉴욕·타임즈紙의 존스톤·차핀기자를 비롯

감투洪水

워싱턴·포스트、시카고·트리뷴등 세계 有力신문과 통신의 쟁쟁한 기자들이 몰려들어 외교구락부를 드나들었다。세계의 저명기자들이 그때처럼 모여든것은 그뒤도 없었던 것같다。6·25동란중 나는 외신기자들 40여명앞에서 中立을 표방하고 한국지원에 냉담한 印度軍들이 한국땅에 들어온는것을 반대한다고 외쳤다。나의 기세때문인지 印度의 中立軍들은 仁川앞바다에서 上陸을 못하고 곧장 中立지대로 들어간 일이 있었다。

政治외에 30여직책맡아 東奔西走
外交後援會통해 한국소개 큰보람

戰亂중 나는 太平洋日日新聞사장을 지낸 경험을살려 52년엔 週刊인 太平洋誌를 내손으로 만들었다。戰時홍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이름을「太平洋」으로한 것은 하와이에서 李承晩박사를 도와 太平洋誌를 만들던 추억을 되살리고자 함이었다。

太平洋誌의 사무실은 鍾閣근처인 鍾路2街에 있었다。자금은 釜山의 金容浩씨가 대주었다。주간지의 내용은 정치、외교등 時事性문제를 주로 다뤘다。식구로는 기자가 7명、사무직이 20명가량 이었다。난 직접 편집에 손을 댔는데 주간지편집이 그렇게 힘든 줄은 미처몰랐다。

그럭저럭 한 1년반가량 꾸려나갔는데 재정문제에 어두운 탓인지 破産지경에 이르렀다。막판엔 전화등 집기를 다 팔고 기자들봉급을 6개월이나 못줬다。

언론의 운영은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그때절실히깨달았다。

太平洋誌를 내던 당시 난 國產獎勵會를 만들어 2년간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戰亂중 입을것、먹을것도 변변치않은 판국에 절약할것도 없었지만、外國軍과함께 들어온 外製물건과 구호물자가 장차 민족의 自主性을 해치고「自生」의 기운을 꺾을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국산장려회를 만든 배경엔 또 日帝때 物產장려운동의 독립정신을 다시 일깨우고 나자신 興業구락부사건때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쓰라린 경험을 생산적인 교훈으로 되살리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

動亂을 전후한 나의 사회활동 이력중엔 韓美협회회장、太平洋同志會이사장、라틴아메리카협회장、大韓鑛業會總裁、大韓義勇軍總裁、국제법학회회장、制憲同志會長、韓美文化協會長、學生… 회장、韓·에티오피아회장…등등 내가 생각해도 요란한 감투아닌 감투를 참많이도 뒤집어썼었다。

이중 太平洋同志會는 하와이에서 李박사를 중심으로 독립활동을했던 인물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李박사를 지원하기위한 정치적 伏線이 다분히 있었다。

국제법학회는 임시수도 釜山에서 내가 만들었는데 당시 黃聖秀(前국회부의장)가 부회장을 맡아 같이 일했다。지금의 국제법학회는 내가 유엔에 간 사이 釜山에서 兪鎭午씨등이 중심이 돼 새로 만든 단체로 처음의 국제법학회와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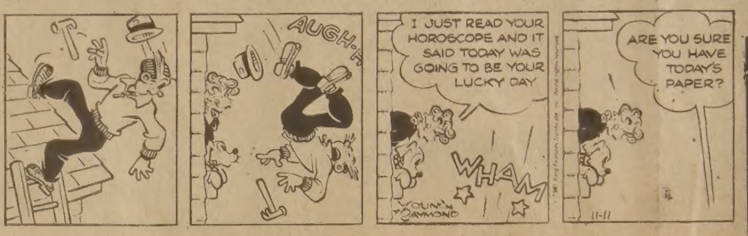
무슨 財閥의 간판같은 大韓鑛業會총재란 직책은 광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날 내세운、팔자에 없는「감투」였다。日帝말기 난 독립자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夢陽 呂運亨등과 같이 광산에 손을 댔다가 전재산을 날리고 빚을 진채 무참히 파산했었는데 광산하는 사람들은 나의 그런 前歷과 實力(?)을 인정해 감투를 씌웠던 모양이다。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은 앞서 말한 바 있었던 戰時의 大韓義勇軍활동이다。

義勇軍단장 金斗漢、敵陣以北의 유격대를 맡았던 韓哲民、서울유격대의 孫瑱、釜山에서 나와같이 유엔군參戰을 도왔던 潘…등 고생을 함께 했던 많은 동지들의 모습이 走馬燈처럼 머리를 스쳐간다。정치적 동지들이 이해관계 따라 세월따라 人心이 無常하고 덧없는 것이라면 오직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苦行을 함께한 이들과의 友情은 세월이 흘러도 한없이 뜨겁게만 느껴진다。

◇나는 建國이래 本業인 정치외에도 30여개의 사회단체활동에 간여했다。사진은 外交後援會회장을 맡던 2代국회부의장시절 外信記者들에게 印度軍의 派韓반대를 밝히고있는 筆者。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아이구—

"방금 당신 운세를 읽었는데 오늘은 당신한테 길일이라던데요" —펑—

"당신 분명히 오늘 신문에서 본거야?"

「신부님…」公演

출판계의 화제작이었던 조반니노·과레스키의 소설「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 극단 作業에 의해 연극으로 만들어져 무대위에 오른다。金春洙각색 吉明一연출로 12일~18일 하오4시·7시 문예회관대극장。책의 출판사인 百濟가 후원하고 기획제작「예닌」가 제작했다。출연은 윤주상 정재진 정미경 전혜순 윤석화 이도경 김석호 윤태영 장재명 등。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流星의 賦 <231>
李炳注作 李友範畵

秋風何處至 ㉙

수수께끼로 남은 것은 정개청(鄭介淸) 사건이다。정개청이 불리한 것은 전라감사 홍여순때문이었다。홍여순의 상소에 이르길、

『정개청이 유생 조봉서와 같이 여립의 집터 보는데 갔었다고 하므로 정개청을 나주옥에 가두었읍니다』

여립의 집터를 보아주었으니 죄인이란 논법이다。

이에 정개청은 공초하여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옥중에서 올린 정개청의 소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역적 여립에 대하여 처음엔 지혜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 자가 역적이 될줄은 참으로 몰랐읍니다。하물며 저 같이 어둡고 용렬한 것이 어찌 그가 흉역을 품고 있음을 알았겠읍니까。무릇 서찰에 쓰는 말은 친밀할수록 그 말이 번거롭고 공경과 칭도는 뜻이 없으며 사이가 소원할수록 그말의 공경과 칭도(稱道)를 더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신이 역적에게 보낸 편지에 그의 간악함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칭도한것은 용서받을수 없는 죄이오나 그와 친밀하지않다는 것은 그 편지로서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편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다 두번에 그친 것입니다。그것을 보아도 제가 그와 결탁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지 않겠읍니까…』

정개청은 이때 그가 지은 배절의론(排節義論)이 절의를 배척하는 것으로 지목받아 함께 고발당해있어 그「배절의론」에 관한 해명에도 애썼다。지금 그「배절의론」을 보면 추호의 난점도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죄목으로 될 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기록에의하면 정개청을국문한 사람은 정철이라고 되어있고 정철과 정개청사이에 다음과같은문답이있었다。

『너는 절의를 배척한 놈이 아니냐』

한 정철。

『읽어보면 알것이 아닌가。나는 절의를 배척한 적이없다』

『그러나 책 이름이「배절의론」이 아니냐』

『나는 동한시대(東漢時代)에 있어서의 절의의 폐를 논했을 뿐이고 그 논지는 주자에 있다』

『잔말 말라。배절의면 알 수 있는 것이다。동한시대의 절의의 폐를 새삼스럽게 들먹일 필요가 있느냐』

『주자를 해석하기 위해 한 것이다』

그러자 정철이 고함을 질렀다。

『넌 주자 주자 하는데 네가 주자를 어떻게 아느냐。주자가 그 스승에게 배운 일을 배척한 적이 있었는가』

여기서 정개청은 머리를 숙이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철의 말에 승복한 탓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백언(百言)이 소용 없다고 느끼고 한것인진 판단하기 어렵다。다만「배절의론」의 내용으로 보아 정개청이 정철의 말에 승복했을 까닭이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정철은

『개청이 한결 같이 여립의 터를 보러갔었다는 것은 정여립과 대질하라고 하는걸 보면 그 죄목은 성립될 것 같지 않습니다。다만「배절의론」은 세인을 현혹한 문서이오니 형벌을 가해야 할줄 압니다』

고 아뢰었다。임금은 그대로 하라고 일렀다。정개청은 경원 아산보로 귀양을 갔다。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

모눈종이위의 生 <250>
趙善作 金光培畵

모눈종이위의生 ⑰

『그래 참。나도 그런걸 본 기억이 있어。그런데…』

나는 군자의 의문을 갑자기 덮어줬다。

『그 집에 한번 놀러가 보고싶다』

군자는 잠시동안 입조차 열지 못했다。그러나 나는 군자의 아파트를 찾기로 했을 때 이미 그런 말을 입에 올리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때문에 결코 당황하지도 않았다。

『너 어디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한참 뒤에 군자가 말했고, 나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아니다만…』

『그런데…』

『그냥 독자로서 찾아갈수도 있지 뭐。네가 함께 가준다면 더욱 좋고…혹시 놀러오라고 한적은 없었니? 아래 아파트 부인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구나』

『가만히 있어봐。너 그 집에 한번가 보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 거로구나?』

『그래。네가 주선을 안해준다면 나 혼자라도、그냥 독자라고 하고 찾아가볼생각이니까』

〈파출부의 집〉을 찾았을 때 파출부가 되어서라도 그의 아파트에 침입해 들어가고자 했던 예전의 일을 생각해 내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군자는 그런 내 표정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그래 꼭 가 보고싶니?』

하고 물었다。내가 끄덕이자 군자는 다시

『가서 뭐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려는건 아니지?』

하고 물으며 전화기 쪽으로 돌아앉았다。

군자는 바로 아래층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전화 내용은 한민일씨 아파트에 놀러가지 않겠느냐, 길에서 만나면 한번 놀러오라고 늘 그러는데 한번도 못갔다。마침 친구가 하나 놀러왔는데 한민일씨의 독자여서 가보고 싶어한다。그런 것이었고 상대방은 쾌히 승낙하는 눈치였다。

전화를 걸고 돌아앉은 군자가 나를 보았다。

『혹시 한민일씨가 집에 있으면 어떡허니? 그럼 못가는거지?』

『글쎄。어떻게니 뭐?』

미처 나는 그가 집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그러나 설사 그가 집에 있다 해도 그의 부인이 와 주어도 좋다고만 한다면 거리낄것이 없다는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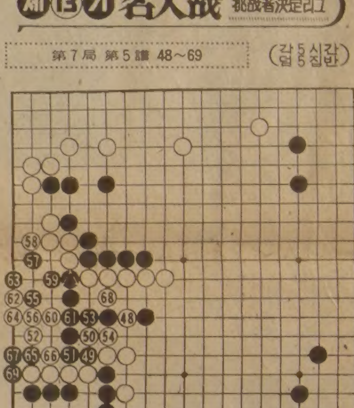
순간적으로 황폐해지는 그의 얼굴따위를 상상하며 나는 군자도 모르게 조금웃었다。

…서 전화가 걸려왔다。놀러와도 좋다는 한민일씨 부인의 전갈을 전하면서 독자도 한분 오신다는데 괜찮은지 본인이 집에 없으니 미안해서 어쩌느냐는 말도 전해 주었다나는 조금 실망의 느낌이었지만 잠시후 군자를 따라 그녀의 아파트를 나왔다。아래층의 부인은 이미 계단에 나와 있었다。군자가 나를 그 부인에게 소개했고 세사람은 계단을 모두 내려와 단지 안의 도로를 걸었다。

나는 결코 떨리거나 설레지는 않았다。다만 뿌연 안개 같은 것이 눈앞을 가려서 시야를 흐리게 할 뿐이었는데 그것은 내 마음 속에 깊이 감추어진 죽음、그것에 이르는 슬픈 도정(道程)을 반추하는 것이리라。

슈퍼마켓앞에 이르자 나는 앞의 두 여자에게 양해를구한다음 슈퍼마켓안으로 들어갔다。『두분이야 가볍게 놀러 가시는 거지만 전 다르잖아요。』하고 나는 그녀들에게 말했는데 나만슈퍼에 보내기가 미안했던지 그녀들도 따라 들어왔다。나는 좀망설이다가 청과류 부로가서 선물용 과일을 한바구니 샀다。꽤 비싼값을 지불하는 내손을보며 군자는 놀라움과 불만의 표정을 지어보였다。

제13기 名人战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5譜 48~69 (각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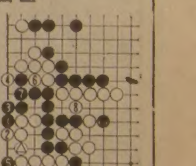
白(6段) 姜哲民〈2敗〉
黑(5段) 張秀英〈2勝〉

白48의 승부수를 던진 姜6단은 黑이 당장 49로 끊어버리자『역시…』하고 불쑥 뇌었다。분명치는 않았으나 진작▲표한점을 잡아둘걸 그랬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았다。물론 때늦은 후회다。이제와서는 별건 최대한의 반항으로 버텨야 된다。白50에 몰아 이하 黑61까지는 외길인데 자그마치 1시간20분이나 소비되었다。그중 3분의2에 해당하는 시간은 말할것도 없이 고전중인 姜6단이 소비한 것이다。

한데 여기서 白은 아차하는순간 대악수를 범하고 말았다。바로 62、64에 젖혀이은수가 자충수로 된것이다。이모양에서 黑65가 급소에 해당하여 이 手相戰은 白이 한수부족、별도리없이 대마가 함몰되어 버렸다。

국후에 張5단도 그 것을 지적하고

左邊白大馬 함몰



상대를 위하여 애석한 표정을 지었다。白62는 65자리를 참고도처럼 △표로 잇는것이 급소였다。그랬더라면 黑1、3이하 白8까지「빅」이되어 전체형세는 아직도 장기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 복잡한 수순은 아니었는데 姜6단은 돌이키지 못할 착각으로 黑69까지 白을 몽땅 죽여버렸다。이곳 黑집만해도 35집이나 되니 白은 분명한 열세다。【一凡】

제6주년 기념부흥회

강사 : 이옥란 수도사
강사약력 : ● 기두온 신학교 졸업
● 오순절 성결교 신학교 졸업
● 감린산 기도원원장 15년
● 수도원 수도 7년
● 장병 선교회 회장 12년간
● 현재 일본동경 신학대학 재학중
일 시 : 1981년11월26(목)~29(일)
매일저녁 오후7시 30분부터
새벽기도 : 토, 일(주일) 오전6시
신앙강좌 : 28일(토) 낮12시
장 소 : 16 THORNCLIFF PARK DR.
(Woolco, Miracle Shopping Plaza 뒤)

주최 : 토론토기도원
원 장 : 심상대 전 화 : 226-2583

"X-MAS를 위한"
장난감, 선물용 GIFT 대 세일

X-Mas카드, Paper등
● 한번와서 보십시요(일요일도 OPEN).
● 매주 특별세일을 합니다..
● 100달러이상 주문시, 배달합니다.

◆◆ 금주의 스페샬 ◆◆
★ Ruby-cube (puzzle)
.large $18 (1doz.)
.small key-chain $12 (1doz.)
● 많은 장난감 구비

※이 광고를 잘라갖고 오시면 5%를 다시 할인해 드립니다.

스토아 시간 : 월~금 -오전10 : 00~오후6 : 00
토 -CLOSE
일 -오전10 : 00~오후3 : 00
보다 자세한 내용은 : MR. ASH에게 (366-0026)
410 SPADINA AVE. (칼리쥐×스파다이나)

GANESH IMPORTS CO.,

서울大 定員70% 1지망자 選拔

각大學、82학년도 複數지망 전형기준 확정

각대학의 82학년도 복수지망전형기준이 확정됐다。이 기준에 의하면 서울大등 대부분의 대학은 모집정원의 70%를 제1지망자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제1지망자중의 탈락자와 제2지망자를 합쳐 선발하게 되는데 高麗大는 모집정원의 80%를 제1지망자에서 선발, 나머지 20%는 제1지망자중 탈락자와 제2지망자를 섞어 선발한다。

서울大 2·3志望者 감점제없어
高麗大 同一系는 豫試 10%加算
延世大 2·3지망5·10점씩감점
梨大 同系 자연계 20점 加算

서울大는 9일 오는82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중 복수지망 전형기준을 확정, 모집인원의 70%를 제1지망자중 성적순에 의해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제1지망에서 탈락된 수험생과 제2지망자를 합쳐 역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모집인원에 미달일때는 제3지망자중에서 선발키로 했다。

서울大 당국자는 『이같은 전형기준은 제1지망자를 우대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한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제2지망, 제3지망자에 대한 감점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延大·梨大도 70%、高大80%

서울시내 주요대학의 복수지망자의 합격사정, 동일계 지원자의 처리기준등 확정된 내년도신입생 모집요강은 다음과같다。

▲延世大=모집정원의 70%를 1지망에서 뽑고 30%는 1·2·3지망자중에서 뽑되 1지망자는 성적의 1백%를 모두 인정하고 2지망자는 5점, 3지망자는 10점을 각각 감점한뒤 1·2·3지망자중에서성적순으로선발한다 동일계 지원자는 인문·자연계모두 30점씩 가산해준다。

▲高麗大=제1지망 학과(계열) 정원의 80%는 1지망자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1지망자중 탈락자와2지망자를 섞어 성적순으로선발한다。 제2지망선발에서도 미달일경우 3지망에서 선발하고 동일계진학자는 예시성적의 10%를 가산해준다。

▲梨花女大=정원의 70%를 제1지망자중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1지망탈락자와 2·3지망자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감점제는 없으며 동일계 지망자는 자연계에 한해서 20점을 가산해준다。

家出노파등 첫凍死

釜山서 過飮 50代남자도 공터서

【釜山=聯】 한파가 몰아친 8일 釜山지방에서 두명의동사자가 발생했다。

이날하오6시께 부산 南區大淵3洞613 釜山 수산대학옆 공터에서 鄭용규씨(50·釜山鎭區凡川1洞842)가 술취해있는것을 길을지나던 李한우씨(46·南區大淵3洞56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李씨에 따르면 이날 鄭씨는 몸아래에 종이박스를 깔고 숨져있었으며 옆에는 2홉들이 소주병2개가 놓여있었다는것。

경찰은 鄭씨의 시체검안결과 영양실조에 과음으로인한 동사로 사인을 규명했다。

또 8일상오7시30분께 釜山市南區龍湖1洞404의8 영진아파트앞 공터에서 신분악할머니(84·南區大淵4洞1128)가 웅크린채 숨져있는것을 이마을 金명순씨(5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신노파는 정신박약자로서 지난 7일상오7시께 내복도입지않고 집을나간후 이날 변시체로 발견됐다는것。

신노파는 경찰의 검시결과 동사한것으로 밝혀졌다。

比여인拉致 금품강탈

20代青年셋 호텔앞서

乘用車태워 1시간끌고다녀

8일 상오4시15분께 서울 中區南學洞13의2 아스토리아호텔 현관앞에서 이호텔610호실에 투숙한 필리핀인 에버린·B·슈다드양(28·전어물상·필리핀 카로칸市거주)이 20대청년3명에의해 승용차로납치돼 일화10만엔, 미화1백달러, 한화5만원과 18K반지, 귀고리등 모두 50여만원어치의 금품을털렸다。

범인들은 슈다드양을 1시간가량 서울시내에서 끌고다니다상오5시30분께서울城東區上往十里洞344光武극장뒷골목에내려놓고달아났다。

슈다드양에 의하면 전날밤 明洞로얄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벨만·조모씨 (27)등과 술을 마시며 놀뒤 택시편으로 숙소인아스토리아호텔에 도착했는데 현관에들어설때 뒤따라온 서울2라6967호 검정색 제미니승용차에서 보롱키의 20대청년 2명이 다가와 양팔을 끼고 강제로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는것。

슈다드양은 지난3일 관광차 처음 한국에 와 부산에서 2박한뒤 5일 서울에 와로얄호텔에 투숙했다가 지난6일 아스토리아호텔로 옮겨 묵어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키1백75㎝에 하늘색 잠바를입은 22세가량의 청년과 연한 밤색상의 차림에 미남형등 3명을 수배하고 범인들이 호텔 나이트클럽주변의 불량배가 아닌가 보고 조사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차가 지난8월 金모씨(26·전과1범)가 사들인 것임을 밝혀내고 사건관련여부를 캐기위해 金씨의 소재를 찾고있다。

初·中·高 수업일수 年2백20일로 短縮

國務會議 확정

국무회의는 9일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종전 연2백30일이상에서 2백20일이상으로 줄이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령은 이밖에▲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의 2년이상수료자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학력으로 인정할수있도록하고▲경북 또는 경기도내 중학졸업자가 大邱 또는 仁川직할시내 고교에 지원할수있게 했으며▲유치원 보육일수도 종전의 연2백일이상에서 1백80일이상으로 감축하고▲종전의 교육교재 인정제도를 폐지시켰다。

汚物 청소法案도

국무회의는 9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아파트단지에 오수(汚水)정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오물청소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共同구역警備員 武器회수

유엔측、어제 軍事停戰委서 제의

【板門店=韓周動기자】군사정전위원회 제408차 본회의가 9일 상오11시 공산측 요청으로판문각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유엔군 측 수석대표 제임즈·G·스톰스 소장은 지난 10월31일 비무장 지대내에서 있었던 총격사건이 우리측이 촉발했다는 북괴측의 주장을 일축하고、『총격 사건직후 4개국장교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 34시간에 걸쳐 철저히 조사한 결과 북괴군이 먼저 3차례에 걸쳐 1시간22분동안 총격을 가해온것임이밝혀졌다』고 밝혔다。

스톰스소장은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긴장완화를위해▲공동감시 소조구성▲비무장지대내의 진지와 무기제거▲공동구역 경비원이 소지한 무기회수▲공동경비구역의 비공식 경비장교회의 개최등 4개항을 제의했다。

이날회담장에 나온 북괴대표들은 흔히 이례적으로 金日成 배지를 달지않아 눈길을 끌었다。

不動産사기 百18명拘束

삼킨 남의땅 14萬여坪

당시時價 百75億원

檢察、2달동안 特別團束、百18명은 입건

◇검찰이 부동산사기범들로부터 압수한 관인·직인·사인등 각종가짜인장과 교묘하게위조 변조한 등기관계서류。

검찰은 지난9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2개월동안 경찰을 지휘, 부동산사기범별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여 사기범1백18명을 적발,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기간중 대검중앙수사부(부장 李種南대검검사·辛建4과장)가 검거한 부동산사기범은 23개파 1백1명에 달했는데 대검은 이중 7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사기행위를 대상으로한 부동산은 전국에서 모두 44필지 14만1천4백34평으로 범행당시의 싯가만도 1백75억2천여만원에 이른다는것。

검찰은 이들 부동산 사기범들이 범행에 사용한 위조등기권리증,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인장·직인등 증거물 1천89점도 압수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난 부동산 사기의 특징은▲점조직형태로 범행이 분업화돼있고▲서류및 인장에대한 전문위조기술자가 반드시 가담하고 있으며▲범행계획을 숨기기위해 범죄조직원간에 은어를 사용하고▲범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틀리는 한편▲단골다방을 연락거점으로 이용하는 점등이다。

검찰이 밝힌 부동산사기범행의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大田파 (9명)=79년2월 大田市佳陽洞12의12외14필지 3만3천8백22평(싯가7억원)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지적계공무원과짜고 공범명의로 기재를 변조、소유권이전을 등기한뒤 일부는팔고 또 일부는 담보로 제공、1억7천만원을 가로챘다。

▲樹여사파 (6명)=80년8월 仁川市北區元倉洞32외3필지 1만2천평 (싯가 2억원)의 소유자인 兪東萬씨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위임장등을 위조, 주범 崔相玉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뒤 은행에 담보로 넘어 3천5백만원을챙겼다。

▲金회장파 (9명)=81년8월 서울 江南區瑞草洞山19 3천4백4평 (싯가20억원) 소유자 申世勳씨의 주민등록표를 위조、주소지를 서울龍山區漢南洞에서 경기始興郡儀旺邑으로 옮겨 등기권리증과 申씨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가짜로 만들어 공범 權順吉이소유자申씨로행세, 대금 5억원에매도하려다사전에발각됐다。

★관련기사10면

姜秉淳과장永訣式 全北遞信廳葬으로

【全州=聯】德裕山에서 공무수행중 순직한 全北체신청 姜秉淳총무과장의 영결식이 李海旭체신부우정국장등을비롯한 체신공무원 7백여명과 유족이 오열하는가운데 全州우체국후정에서 全北체신청장으로 거행됐다。

鄭德教全北체신청장은 조사에서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를 위해 애쓰다 간 姜과장의 투철한 책임감은 체신공무원들의 표상이 될것』이라고 애도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漢江에 겨울철새떼 飛翔

立冬추위도 아랑곳 없이…

漢江의 겨울철새들。 立冬추위가 몰아닥친 지난7일 이후 漢江에는 물오리등 각종 겨울철새가 날아들었다。 潛水橋、城山大橋、蘭芝島주위에 진을친 철새들은 추위에 아랑곳없이 힘차게 날개를 치며 江上의 군무를 즐겼다。 【9日낮 蘭芝島앞한강】

「立冬火魔」 기승

山불등 21건 1억원 被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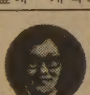
입동추위가 한창인 7일밤과 8일사이 서울시내에서 5건의 산불을포함, 모두 21건의 화재가발생, 3명의 사상자와함께 1억여원 (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8일밤11시20분께 서울 江西區 登村洞499의1 광성산업사 지하실 봉제공장(주인 金在俊·24)에서불이나 주인 金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공장내부 45평과 수출용여자코트 5백벌을 태워 6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냈다。

▲8일 새벽 6시20분께는 서울 城北區東仙洞1街85의7 강석봉씨(60) 집 2층방에서 불이나 방에서자던 강씨가 불에타 숨지고 옆방에 세든 林點順씨(26·여·상업)방등에 옮겨붙어 1백여만원의재산피해를낸뒤 30분만에 꺼졌다。

▲8일 하오5시50분께 서울鍾路區忠信洞60 예일재단 참고내 상원스폰지 가게에서 불이나 이웃 5개점포 2백평을 태워 6천여만원의재산피해를내고50분만에꺼졌다。

前女軍과장 金賢淑씨



초대여군병과장및제8대 국회의원을 지낸 金賢淑여사(사진)가 7일하오9시 숙환으로 수도통합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66세。

고인은 1915년 平南순천에서 출생、일본체육전문대를 졸업한뒤 1950년9월6일 여군창설과함께 초대여군병과장을 역임했으며 71년5월부터는 8대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위원으로 일해왔다。

영결식은 9일상오10시 고인의장남 金然洙씨등 가족친지와 여군장병들이 참석한가운데 수도통합병원에서 거행됐다。

前국회의원 李東根씨

4代국회의원을 지낸 李東根씨(사진)가 8일상오9시45분 서울 江南區狎鷗亭洞 한양아파트 10동405호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발인 10일상오10시 장지 신세계공원묘지。 연락처586 3639

鑛夫에 兵役면제를

太白탄광업계 건의

【太白=聯】 太白지구탄광업계대표들은 『광산지구의 근로인력확보를 위해 광부들지원하는 적령기의 징집자들에게 병역면제혜택을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대해 국회조사단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트림모습 雙瀑發見

襄陽 九龍嶺 米川·黃耳골서

【束草=聯】 강원도襄陽郡西面黃耳里 九龍嶺동쪽 속칭 米川골과 黃耳골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않았던 웅장한폭포3개가 발견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게됐다。

70리 계곡따라 이름없는크고 작은 폭포와 潭·淵이 즐비한 米川골에서 새로 발견된 폭포는 이계곡 중머리에 자리잡은것으로 용이하늘을 오르는듯한 모습을 하고있고 두개의 폭포가 마주보고있는 雙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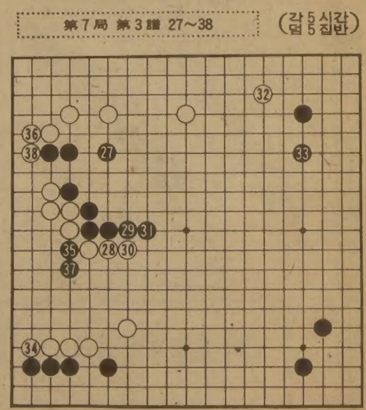
또다른 폭포1개는 黃耳골 50리계곡중단에 자리하고 이곳 龍沼머리에 걸려 마치 비단폭이 절벽에 걸린 형상이다。

이폭포는 지난6일 九龍嶺에 올랐던 전襄陽郡교육장 金鍾極씨(68·襄陽邑군행리)등 일행3명이 찾아낸것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3譜 27~38　(각5시간 덤5집반)

白 (6段) 姜 哲 民 〈2敗〉
黑 (5段) 張 秀 英 〈2勝〉



黑27로 모양을 갖추었을때 姜6단은 허리를 꼿꼿이펴고 담배 한개비。 『이거 어디다 둬야하나』하면서 연기를 내뿜는다。 그리고는 白28에서 30까지 밀어놓고 머리를 갸웃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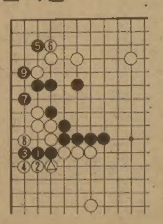
아마도 黑31까지 중앙에 뻗어나간 모양이 너무좋고 白은또 그뒤를 따라간돌이 마뜩치않다는 눈치。그래선지 28、30은 후에도 평이좋지 않았다。

그러나 우상으로 一轉하여 白32로 걸치고 黑33때 다시 좌하귀로 되돌아와 白34의곳을 꽉막고서는 만족한 표정。

『黑은 33을 응수하기에 앞서 34자리를 선수로 꼬부려야 유리했다』는 국후 중론인데 과연 이白34의 絶好處는 당면한 必爭點인가 싶었다。

여기서 黑35는 일종의 응수타진。 이에대한 白36은 좀과했던모양이다。

左邊白陣에 시한폭탄



36의 뜻인즉 黑이38자리를 차단하면 그때 37자리를 몰아서 잡자는것。다시 말해서 귀를 확보하고 좌변도 크게차지하자는 일거양득을 본것이다。

36을 두지않고 보통대로 37자리를 몰면 참고도처럼 黑1이하 9까지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물론 이정도의 결과이다。

黑37로 강경히 뻗어두자 우선 白38로 넘어갔으나 좌변白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있는꼴。과연 어찌되려나 궁금한 장면이다。 【一九】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883-9407
●MARKHAM PLACE ☎:881-8211
대표:윤호섭
세일즈 매니저: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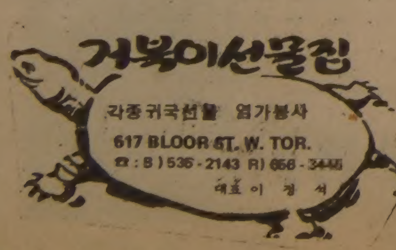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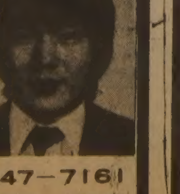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고려식품 옆)
☎:533-7966　김 영 철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961-311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B)536-2143 R)656-3446
대표 이 정 석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김명종 한약방
침, 한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력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 상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745-2058

제1區間 慶北 계속 先頭지켜

朴元根·李善熙·鄭晩和등 활약 慶北

서울 후반피치 2位골인

27회 釜山·서울大驛傳경주

【京釜驛傳競走대회취재반】 이날출발에앞서간단한입장식겸출발식이 釜山시청앞광장에서 베풀어졌으며 상오9시 정각 金武然釜山직할시장의출발 신호와 함께6개시·도건각들이 시청앞광장을 박차고나섰다. 작년과는달리 釜山~密陽~大邱를 연결하는 변경된코스중 첫날釜山~密陽간레이스에서 慶北의첫주자 崔慶烈이 慶北을선두의반석위에끌어올려놓았다. 釜山~堂里간제1소구에서각팀들은 맹장들을 제쳐두고 유망주를기용、탐색전을 노렸는데 노련한 崔慶烈을내세운慶北이선두로、서울이2위、全南이3위의순으로 1소구를 통과했다.

선두 慶北을 위협할수있는 복병으로 꼽히던 京畿는 첫주자 柳光烈의 부진으로 최하위를 달렸으나 제2소구부터 맹장 朴京德의 쾌주、京畿를 3위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慶北은 朴元根、李善熙、鄭晩和등 기라성같은 선수들이 전반의 리드를 지켜주어 한번도 선두를 빼앗기지않고 密陽에 1위로 골인했다. 서울은 柳文鍾、李洪烈、沈鉉澤등이 제패이스를 지켜주어 제1소구에서 최하위로 처졌다가 중반 맹반격을 벌인 京畿의 추격을 따돌리고 2위로 密陽에 골인했으며 京畿는 초반의 부진을 씻고 慶南、全南、釜山을 따돌리고 3위를 마크하는 저력을 보였다.

첫날 첫레이스에나선 선수들이 密陽에들어서는순간 연도를메운 밀양군민들은 17년만에 京釜驛傳 경주 코스가 밀양으로 되돌아왔다면서 기뻐했으며 초중교 남녀학생3~4백여명은 한국일보 깃발을흔들며 선수들을 반겼다. 특히 마라톤경주를 처음보는꼬마들은 선수들이 지날때마다『나도커서 마라토너가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三南면사무소 직원 30여명은「축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나와 선수들을 격려해주었고 여직원들은 따끈한 보리차를 선수와 임원들에게 대접해주었다.

한편 이에앞서 8일釜山한국일보支社에서열린 감독자회의에서는 마라톤강화위원회가마련한 선수격려금이 각팀마다 10만원씩 전달되었다.

徐潤福마라톤 강화위원회부위원장은 이자리에서 京釜驛傳경주대회가 한국마라톤중흥에 보탬이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大驛傳 구간표

◇1 구간釜山—密陽 <9일9시출발> (87·6㎞)
▲1소구 釜山—堂里(10·7㎞)
▲2소구 堂里—龜浦(11·4㎞)
▲3소구 龜浦—金海(12·9㎞)
▲4소구 金海—二北(10·7㎞)
▲5소구 二北—進永(10·2㎞)
▲6소구 進永—守山(12·3㎞)
▲7소구 守山—上南(12·9㎞)
▲8소구 上南—密陽(6·5㎞)

◇2 구간密陽—大邱 <10일10시출발> (70·6㎞)
▲1소구 密陽—楡川(10·0㎞)
▲2소구 楡川—淸道(13·8㎞)
▲3소구 淸道—南松峴(9·6㎞)
▲4소구 南松峴—三省(11·1㎞)
▲5소구 三省—慶山(7·6㎞)
▲6소구 慶山—만천동(10·4㎞)
▲7소구 만천동—大邱(8·1㎞)

◇3 구간大邱—金泉 <11일10시출발> (67·9㎞)
▲1소구 大邱—新洞(19·7㎞)
▲2소구 新洞—倭館(11·4㎞)
▲3소구 倭館—若木(6·3㎞)
▲4소구 若木—扶桑(10·7㎞)
▲5소구 扶桑—月谷(10·3㎞)
▲6소구 月谷—金泉(9·5㎞)

◇4 구간金泉—大田 <12일9시출발> (93·9㎞)
▲1소구 金泉—新岩(12·1㎞)
▲2소구 新岩—秋風嶺(6·0㎞)
▲3소구 秋風嶺—黃澗(9·4㎞)
▲4소구 黃澗—永同(15·6㎞)
▲5소구 永同—楊江橋(10·1㎞)
▲6소구 楊江橋—伊院(11·5㎞)
▲7소구 伊院—沃川(10·7㎞)
▲8소구 沃川—細川(10·7㎞)
▲9소구 細川—大田(7·8㎞)

◇5 구간大田—天安 <13일10시출발> (81·8㎞)
▲1소구 大田—儒城(10·9㎞)
▲2소구 儒城—太平里(16·2㎞)
▲3소구 太平里—燕岐(11·1㎞)
▲4소구 燕岐—鳥致院(7·4㎞)
▲5소구 鳥致院—全義(15·5㎞)
▲6소구 全義—小井里(8·4㎞)
▲7소구 小井里—天安(12·3㎞)

◇6 구간天安—서울 <14일10시출발> (94·5㎞)
▲1소구 天安—成歡(13·4㎞)
▲2소구 成歡—平澤(11·0㎞)
▲3소구 平澤—西井里(8·2㎞)
▲4소구 西井里—烏山(10·8㎞)
▲5소구 烏山—餠店(8·1㎞)
▲6소구 餠店—水原(8·5㎞)
▲7소구 水原—軍浦(12·5㎞)
▲8소구 軍浦—始興(11·6㎞)
▲9소구 始興—汝矣島(10·4㎞)

<제1區間 기록>

◇제1區間 (釜山~密陽 87·6㎞)
①慶北 4시간18분05초
②서울 4시간21분14초
③京畿 4시간21분39초
④釜山 4시간25분58초
⑤慶南 4시간28분10초
⑥全南 4시간31분55초

<小區間별 기록>

◇제1소구 (釜山~堂里 10·7㎞)
①최경열 (慶北) 31분39초
②오재도 (서울) 31분58초
③박종규 (全南) 32분01초
④김학수 (慶南) 32분06초
⑤권영조 (釜山) 32분24초
⑥유광열 (京畿) 33분54초

◇제2소구 (堂里~龜浦 11·4㎞)
①박경덕 (京畿) 33분22초
①박원근 (慶北) 33분22초
③유재성 (慶南) 33분42초
④황규훈 (서울) 33분58초
⑤이명호 (釜山) 35분09초
⑥이병옥 (全南) 36분08초

◇제3소구 (龜浦~金海 12·9㎞)
①임상규 (京畿) 39분07초
②이선희 (慶北) 39분24초
③김양곤 (서울) 39분45초
④박영배 (釜山) 40분10초
⑤정위식 (慶南) 40분33초
⑥맹동렬 (全南) 40분44초

◇제4소구 (金海~二北 10·7㎞)
①송준규 (京畿) 33분16초
①유문종 (서울) 33분16초
③김주용 (慶北) 33분35초
④함홍근 (慶南) 33분43초
⑤이상근 (釜山) 34분31초
⑥이후봉 (全南) 35분23초

◇제5소구 (二北~進永 10·2㎞)
①정만화 (慶北) 23분59초
②이홍렬 (서울) 24분17초
③임종구 (釜山) 24분54초
④윤충구 (京畿) 25분14초
⑤김원식 (全南) 25분48초
⑥김경호 (慶南) 26분12초

◇제6소구 (進永~守山 12·3㎞)
①채홍락 (慶北) 37분11초
②이홍식 (京畿) 37분41초
③이성직 (서울) 38분19초
④손진문 (釜山) 38분45초
⑤조재용 (慶南) 40분17초
⑥지철권 (全南) 40분39초

◇제7소구 (守山~上南 12·9㎞)
①김종윤 (慶北) 39분37초
②심현택 (서울) 39분48초
③김정돈 (釜山) 39분53초
④황인철 (京畿) 40분05초
⑤환만연 (全南) 41분03초
⑥오세과 (慶南) 41분30초

◇제8소구 (上南~密陽 6·5㎞)
①유정준 (京畿) 19분F
②최동호 (慶北) 19분18초
③이상섭 (서울) 19분53초
④정필화 (慶南) 20분07초
⑤장헌규 (全南) 20분09초
⑥노호용 (釜山) 20분12초

張允虎 우승 男일반 道路사이클

제36회 사이클 도로선수권대회가 8일 여의도고수부지 체육공원내 순환도로에서 열려 張允虎(기아산업)는 1백34·6㎞의 남자일반부에서 3시간35분09초17로 우승했으며 金相培(경남대)는 張보다 0·11초뒤지는 기록으로 2위를차지했다。67·4㎞의 고등부에서는 鄭在天(유신고)이 1시간45분57초45로 우승했다。

한편 22명의선수들이 출전한 여자부에서는 朴貞順(한다리고)이 22·4㎞를 47분30초98로 1착했으며 청송클럽의 崔貞愛는 47분31초20으로 2위를 차지했다。

태릉 國際스케이트 來14일부터 문열어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이 14일부터 개장된다。평일 상오10시부터 하오5시까지、일요일및 공휴일은 상오9시부터 개장될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입장료는 일반 1천5백원、학생 1천2백원。

崔景海·宋景子씨 男女部 각각優勝

日本고령자마라톤

崔景海씨(68)와 宋景子씨(51)는 제6회 全日本고령자마라톤대회에서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대회는 지난1일 日本太田市三瓶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3명과 여자1명이 참가、崔씨는 남자부 60대 5㎞에서、宋씨는 여자부 50대 5㎞에서 각각 우승을했다。

延世大 覇權차지

高明和등활약 漢大제압

전국 秋季대학농구

延世大가 漢陽大를꺾고 제18회 추계 전국대학농구연맹전에서 우승、78년에이어 3년만에 통산8번째의 패권을 차지하고 춘계연맹전、종별선수권 대학선수권에이어 올시즌 4관왕에 올랐다。

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연맹전 결승리그 마지막경기에서 延世大는 高明和(26점) 吳世雄(24점)의 맹활약과 고른 개인기를 바탕으로한 팀웍으로 漢陽大를 87-82로 이겨 결승리그 3승을 포함、7전전승을거두고 대학농구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편 東國大는 郭長錫(31점)의 수훈으로 明知大를 90-78로 격파、결승리그 1승2패로 3위를 차지했다。

이날 延世大의 민완가드 金甲琯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최우수=金甲琯(연세) ▲우수=黃仁奎(한양) ▲미기=林貞浩(동국) ▲지도=金東園(연세)

高麗大·建國大 내일 再對決

蹴球선수권 延長戰 포함 百10分間열전 無勝負

高麗大와 建國大는 제36회 전국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놓고 9일하오 서울운동장서 연장전을 포함한 1백10분간의 열전을 벌였으나 1-1로 무승부를 기록, 대회 규정에 따라 11일 하오2시 결승재경기를 갖게 되었다.

高麗大는 전반12분에 李康助가 建大페널티에리어 오른쪽을 돌파하여 볼을 문전으로 패스하자 黃石根이 슛을 성공시켜 1-0으로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장신FW 朴晶一(184㎝)을 최일공선에 내세운 建大는 집요한 추격끝에 후반19분에 동점골을 뽑아냈다. 高大오른쪽 코너플랙근처에서 秋鍾浩가 센터링, 문전에 있던 鄭京洙가 이볼을 쓰러지면서 헤딩으로 받아 깨끗하게 네트에 꽂았다.

양팀은 1-1이후 치열한 공방전을 폈으나 피로로 스피드와 체력이 떨어져 득점하지 못했다.

高大는 이대회 76년도 우승팀이며 建國大는 이듬해인 77년대회서 우승했었다.

◇결승1차전

대고 1 (1-0, 0-1, 延 0-0, 0-0) 1 대전 한국

仁川體高 續戰장식

大一 6-4로 꺾고 高校아이스하키

제7회 慶熙大총장기쟁탈

전국 고교 아이스하키대회가 4連覇를노리는 景城高등 10개고교팀이 출전한가운데 9일 동대문실내링크에서 개막됐다.

첫날 A조에서 仁川體高는 林在圭와 車勳이 각각 두골씩을 올리는 활약에 힘입어 大一高에 6-4로 승리했으며 中東高와 光城高는 3-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첫날전적

▲A조

체인고천 6 (1-1, 4-1, 1-0) 4 고대교일

고중교동 3 (0-1, 2-1, 1-2) 3 고광교섬

全釜山高 결승진출

野球제전 全群商·全仁川승자와 覇權겨뤄

모교의 명예를 걸고그라운드에 모인 야구인들의 잔치 제3회야구 대제전 패권을 놓고 10일 全釜山高와 全群山商-全仁川高승자가 결승전을 갖는다.

9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9일째 준결승전에서 全釜山高는 13안타로 12타점을 기록하는 집중공격으로 동향의 全釜山商高를 12-5로 대파결승전에 진출했다. 釜山의 5번 金秉浩(동국대)는 5회말 결승타를 비롯, 5타수 3안타 5타점의 수훈을 세웠다.

전통의 釜山商高는 투수 4명외에 코치겸 주장선수인 朴福龍(단국대코치)을 포함, 8명이 대회에 참가, 간신히 팀을 구성, 선전했으나 4강에 그쳤다.

全群山商과 全仁川高는 1회 1점씩, 4회 2점씩 주고 받으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가 仁川이 5회말 宋慶燮의 솔로호머와 群山투수 劉熙明의 보크로 5-3의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群山商은 8회초 趙鍾奎의 동점타로 5-5, 세번째 타이를 기록하고 이후 연장12회까지 승부를 가리지못해 상오11시 반 계속경기를 갖게되었다.

◇제9일 준결승

全부산상	200 020 001	5
全부산고	320 041 02×	12
全군산상	100 200 002	:
全인천	100 220 000	:

<12회연장 일몰일시정지>

▲홈런=宋慶燮(5회·인천)

日미하라 새챔피언

WBA J미들級

【로체스터(美뉴욕州) 8日UPI=聯】 프로복싱WBA(세계권투협회) 주니어 미들급 1위인 日本의 미하라·다다시(三原正)는 7일 美로체스터에서 벌어진 동급챔피언 결정전에서 동급2위인 美國의 롤프·프라토에 판정승, 새챔피언에 올랐다.

미하라는 이날 4회에 프라토를 한차례 다운시키는등 경기초반에 우세를 잡아 승리를 거뒀다.

WBA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은 챔피언인 美國의 슈거·레이·레너드가 반납함으로써 공석이 되어있었다.

이로써 미하라는 프로통산 전적 15연승(11KO)을 기록했으며 日本유일의 세계챔피언이 됐다.

김희선 優勝

전국롤러스케이팅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쟁탈 전국 롤러스케이팅대회가 8일 대한 스포츠센터서 폐막, 여고부개인전서 김희선(서울여의도)이 20·96점으로 우승했다.

◇최종일 전적

◆피겨개인경기(각종목 1위) ▲남국=이윤석(서울여의도) 30·7점 ▲여국=남진경(서울윤중) 30·48점 ▲남중=최철규(서울마포) 19·2점 ▲여중=오선욱(서울대선) 20·64점 ▲남고=김상곤(부산) 16·3점 ▲여고=김희선(서울여의도) 20·96점 ▲남일반=이태영(서울) 30·5점 ▲여일반=석정아(서울) 13·72점

◆페어스케이팅 ▲일반부=이태영·남진경 17·3점

◆그룹스케이팅 ▲일반부=서울클럽 18·8 ▲대학부=인덕공업전문대 10·6점

한국、日本에도 完敗

월드컵女子배구、오늘中共과 3次戰

【東京8日=聯】 제3회 월드컵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팀은 1、2차전에서 美國과 日本에 각각 3-0으로 완패함으로써 상위입상이 어려울것같다.

8일 도오꾜(東京) 요요기(代代木)올림픽체육관에서 벌어진 韓·日戰에서 한국은 棒實淑대신 陳春梅를 기용, 邊京子·金花福의 속공및 연타작전이 주효, 초반에 한때 8대6까지 리드했으나 日本의 장신 에가미(175㎝)、마쓰야(177㎝)의 블로킹과 미즈하라의 강타에 밀려 1시간17분만에 분전의 보람도 없이 침몰하고 말았다.

한국은 10일 강력한 우승후보 中共과 3차전을 갖는다.

한편 이날 中共·쿠바·美國은 蘇聯·불가리아·브라질을 각각 3-0으로 꺾고 日本과 함께 2승으로 선두에 나섰다.

◇제2일전적

日本 3 (15-7, 15-11, 15-8) 0 한국 (2승)(2패)

中共 3 (15-0, 16-14, 15-4) 0 蘇聯 (2승)(2패)

美國 3 (15-3, 15-8, 15-13) 0 불가리아

쿠바 3 (15-10, 15-5, 15-6) 0 브라질 (2승)(2패)

ISF 事務總長 팔머氏 來韓

金雲龍총재招請

국제경기연맹(ISF) 사무총장이며 국제유도경기연맹 명예회장인 찰즈·팔머씨가 9일하오 CPA편으로 내한했다.

朴鍾八 8회KO敗

技倆열세…챔피언挑戰꿈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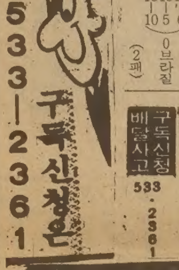
【카라카스(베네수엘라)=聯】 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미들급1위 이며 OPBF(동양·태평양권투연맹) 동급 챔피언인 朴鍾八(21)은 8일 상오(한국시간) 이곳서 벌어진 WBA동급2위 풀헨시오·오벨메이아스(28·베네수엘라)와의 실력대결에서 기량열세로 8회 2분47초만에 TKO패, 실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WBA·WBC동급 챔피언 마빈·해글러(미국)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던 朴은 1회서 오벨메이아스의 오른쪽 크로스·카운터 펀치를 맞고 녹다운되어 초반부터 열세였으며 신장、체력、스피드、펀치력、링감각등에서 오벨메이아스는 한수위였다.

朴은 8회초반한때 오벨메이아스에 접근하여 맹렬한 공격을 폈으나 중반에접어들어 터에 강타를맞고 열세에빠져 계속연타를 허용、캔버스에 무릎을 꿇고 TKO패 하고 말았다.

朴은 동양무대에서는 19연속KO승을 기록한 강자였으나 세계수준에는 아득하다는 사실이 이날 대전을통해 드러났다.

이날 OPBF 밴텀급5위 李相奉도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피낭고에 5회TKO패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MARVIN—STARR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카보로 지역의 마빈·스타 G.M딜러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서 일하게됐읍니다.
과거의 자동차 세일즈맨의 경험을 토대로 성심 성의껏 여러분께 봉사코자 하오니 언제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신 성 우 배

취급종류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LESABRE, ELECTRA, RIVIERA.
〈각종 VAN트럭〉, 〈데모카〉, 〈USED CAR〉

※ BEST SERVICE IN TORONTO
○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 세일즈맨
○ 최고의 아프터써비스, 토론토지역 최저의 자동차 가격보장。
○ 항상 300—400대의 차를 보유。
○ GMAC 이자율 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 스카보로의 유일한 한국인 세일즈맨

신성우

주소 : 3132 EGLINTON AVE.E (마캄X에그린톤)
전화 : 264— 2311 신 성 우 (PAUL SHIN)

사무실金庫서 6億5千萬원 盜難

쇠줄로 문잘라 現金·어음·다이어등 털어

서울半島기계…9일새벽 發見

7일 하오8시부터 9일상오7시 사이에 서울鍾路區勳洞198의1 홍익빌딩 601호 半島기계주식회사(대표 韓圭鎭·59)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철제금고안에 들어있던 현금76만원, 약속어음6억2천만원, 2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백만원이든 정기예금증서와 3푼, 1푼짜리 다이어 각1개, 금패물등 모두 6억5천5백여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

도난사실을 처음 발견한 홍익빌딩 청소부 金모씨(여)에 의하면 9일상오7시께 청소를하기위해 빌딩수위에게 부탁,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보니 관리이사 金씨(55)자리뒤에 있는 가로60·세로70cm의 철제금고의 오른쪽 문짝이 줄로 잘리고 쇠막대로 뜯겨져 옆에 놓여있었고 금고안이 비어있었다는 것이다.

관리이사 金씨에 의하면 토요일인 지난7일 하오8시께 총무과장 李錫淳씨(40)와 영업부직원등 8명이 퇴근하면서 사무실문을 잠그고 나갔다는것.

범인들의 침입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무실동쪽에 있는 비상구가 평상시 폐쇄돼 있었으나 뜯겨져있는 것으로 미루어 범인들이 2층에 있는 비상계단을 따라 6층까지올라와 비상구출입문을뜯고 침입했거나, 미리 빌딩안에 숨어들었다가 직원들이 모두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출입문을 걸고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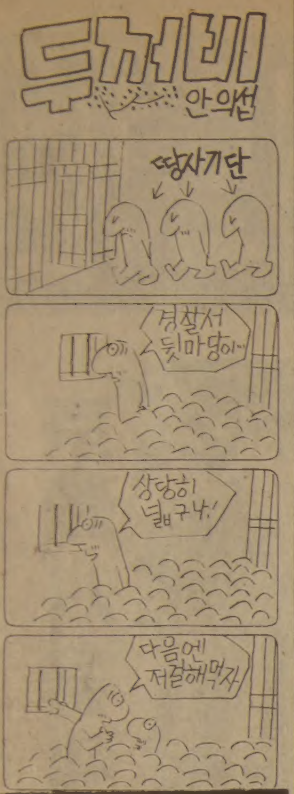
현금등 6억5천여만원의 금품이 들어있던 이철제금고는 半島금고에서 제작한것으로 10년전에구입,사용해 왔는데 금고옆에는 범인이 금고를 뜯을때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쇠톱한개가 떨어져있었고 쇠막대기는 2층 비상계단위에 버려져 있었다.

한편 9일 도난사실을 확인한 半島기계측에서는 약속어음등 유가증권에 대한 분실공고를 냈다.

半島기계주식회사는 호이스터,컨베이어,크레인등 중량물운반 하역기재를제작판매해온 회사로 평소 피해금고에는 4억~5억원 상당의 현금·유가증권등이 보관되곤했는데 지난주말에는 수금액수가 많아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있었다는것.

한편 수사에 나선 서울鍾路경찰서는 금고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데 실패, 범인들이 금고안에 거액의 금액이 보관돼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했을것으로 판단, 전직 사원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펴고있다.

한편 금고안에들어있던 다이어와 금패물등은 영업부장의 개인 소유임이 밝혀졌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中學生 1년째 실종

登校후 증발…父母, 田畓팔아 헤매

서울 佛光中1년생

【尙州=新】학교에 간다고 집을나간 중학교1학년 학생이 이유없이 실종된뒤 1년이넘도록 돌아오지 않아 부모들이 애타게 찾고있다.

행방불명된 어린이는 서울 불광중학교 1학년11반에 재학중이던 金鎭鎬군(15)。경북尙州郡攻城面仁昌里308 金春秀씨(38)의 2남1녀중 장남인 鎭鎬군은 서울恩平區碌磻洞517의4 고모집에 기숙하면서 불광중학교에 다니고있던 지난해6월26일 학교에간다고 집을나간후 1년4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실종된 金鎭鎬군。

鎭鎬군이 실종되자 아버지 金씨와 어머니 金英淑씨(35)는 그리 넉넉지 못한 가산을 탕진하다시피하며 鎭鎬군을 찾아 헤매고있으나 이렇다할 아무런 소식을 얻지못한채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鎭鎬군이 서울로온것은 실종되기 1년전인 지난79년7월。

중농으로 그리 부유하지못한 아버지 金씨가 아들을 대도시에서 키우겠다는 열망으로 당시 국민학교6학년에 재학중인 鎭鎬군을 서울의 국민학교로 진학시켜 무시험으로 중학교에 진학할수 있었다.

鎭鎬군은 국민학교 6년을 개근하고 중학교에 입학한후에도 결석은 물론, 지각한번 하지않은 [illegible] 열중했다.

또한 실종되기 2개월전부터는 D일보 葛峴동보급소에서 신문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보탤 정도로 성실하고 근면했다는것.

이같이 모범생이던 鎭鎬군이 1주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자 金군의 부모들은 7월2일 鎭鎬군의 실종사실을 관할파출소에 신고하고 학교에도 통보했다.

鎭鎬군이 집을 나갈 이유가 없다고 믿고있는 부모들은 20마지기의 전답가운데 10마지기를 팔아 돈을 마련、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었으나 찾지못했다는 것이다.

荷役업체 1억脫稅

架空인부채용…勞賃지급 申告

【釜山=新】부산시경은 10일 가공인부를내세워 노임을 지급한것처럼 허위신고한뒤 각종세금 1억여원을 포탈한 釜山港항만하역업체인 동양통운사장 申정하씨(6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회사 총무과장 安정상씨(52)、상무 李현규씨(40)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illegible] 까지 1만6천여명의 하역인부를 고용하면서 5백42명을 추가로 채용한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뒤 이들에게 그동안 노임 6억2천2백만원을 지급했다고 관할 影島세무서에 신고、부가세·소득세등 1억여원을 포탈했다는것이다. 이들은 가공인부의명단을 작성하면서 전국항만노조 釜山南浦분회 명의의 노임청구서를 사용해 16개월동안 노임을 [illegible]

◇극적 상봉 水原까지가 버려졌던 민선양이 몇다리를 건너 4일만에 다시 부모품을 찾아 들어 편안히 잠들었다.

4일만에 父母품에

家政婦에업혀 轉轉

女兒실종事件

속보=지난6일 패물을 훔친 가정부가 주인 눈을 속이기위해 그대로 업고달아났던 서울九老區加里峰2洞81의9 구룡여인숙 주인 李종치씨(37)의 생후11개월된 막내딸 민선양이 사건발생4일만에 부모품에무사히돌아왔다。

지난6일낮12시께 구룡여인숙에서 가정부로일하던 李은주양(22)이 업고 달아났던 민선양은 李양이 水原까지가서 버리고달아난후 다시 두사람을거쳐 마지막으로 보호중이던 경기平澤邑동북1里31 韓承榮씨(37)부부가 경찰에 신고, 4일만에 부모에 인계된것。

민선양을 데리고달아난 李양은 8일하오2시께 水原市梅山路2街36 대구여인숙(주인 車선덕·48)에 들어와 주인 車씨에게『아기젖병과 우유를 사올테니 잠깐만보아달라』고 말한뒤 밖으로나간후 그대로 도망쳐버렸는데、같은날 하오4시께 車씨집에 고추를팔러왔던 행상 金정옥씨(32·女·경기安城郡공로면 원숭루리685)가 민선양을『친척중 애가없는 사람에게 키우게하겠다』며 데려갔다。친척이 이사가고없자 동네구멍가게주인 韓承榮씨부부에게 맡겼다。

韓씨부부는 딸이없어 키우고 싶었으나 애를 더키울 형편이못돼 이날 하오2시께 집근처 동북파출소에 신고했다는것。

◇中共·自由中國선수 나란히 도쿄(東京)에서개막된페더레이션·컵 국제여자테니스대회에 참석한 自由中國(右)선수와 中共선수(左)가개막식에앞서악수를나누고있다。【도쿄(東京) 10日AP=聯合】

"내車는 내가" 운전免許따기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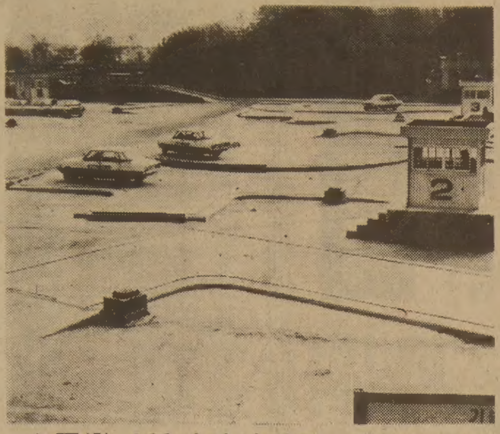
「自家운전」처벌완화·官用 직접運轉制 이후

試驗場마다 연일 滿員熱氣

기업체任職員·高官등 러시

筆記시험 성적優秀 實技운전 낙방일쑤

자가운전면허붐이 3년만에 다시 불붙었다. 차가운 날씨와 불경기에도 아랑곳없이 서울시내 운전면허시험장은 연일 면허증을 따려는 수험생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특히 수험생중에는 고급공무원과 판·검사 국영기업체, 대기업체의 임직원등이 부쩍늘어 재미있는 화제도 많다. 3~4년전 마이카·붐이 처음 조성됐을때를 방불케하듯 이처럼 운전면허 수험생들이 크게 늘고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가운전(오너·드라이버) 희망자가 꾸준하게 늘고있는데다 정부의 관용차 직접 운전제실시와 자가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처벌규정의 완화조치(反意思不罰罪의 對人사고 확대적용)등이 뒤따랐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있다.


◇異變…2種면허시험장 정부의 오너·드라이브 확대방침발표와 관용차 직접운전제 실시에 따라 자가용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붐을 이루고있다。사진은 서울시 龍山區漢南洞의 2종(자가용)면허 시험장。

서울龍山區漢南洞에 있는 2종면허(자가용)시험장의경우 요즘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수험생이 재시험 응시자를 포함하면 하루평균 2백50명선에 이르고 있다. 지난 9월한달의 경우 신규응시자는 3천9백명에 달해 지난해9월의 3천3백명에 비해 무려 6백명이나 늘어났다.

마이카·붐이 한창이던 지난77~78년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79년이후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이라고까지 말해지고 있다.

10월들어 이숫자는 더욱늘어나 무려 4천9백여명으로 지난9월에 비해서도 25%가 불어난셈.

2년전 운전사월급등 경비를 감당할수없어 자가용을처분했다는 柳武振씨(54·사업·江南區內谷洞)는『그동안 사업상 차가 꼭 필요한형편인데도 직접운전을하다 사고를 낼것이두려워 엄두를내지못했다』고 말하면서 자신과같은 처지의 응시자가 많다고했다.

또 상당수의기업체에서 회사차를 사원들이 직접운전하도록하는 이른바 셀프·드라이브제를 실시해 경비절감효과를 노리고있으나 사고때의 처벌이 두려워 업무를내지못하다가 요즈음 면허시험장을 한꺼번에 찾아오는것도 면허취득붐의 요인이되고 있다.

요즘 면허시험장에 나타나고있는 이색적인 현상은 소위「높은 사람들」이 몰려오고있다는것。

지난달 31일 서울지법 南部지원과 서울지검 南部지청의 지원장, 차청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사무직원등 40명이 면허시험을 치른것을 비롯, 지난 3일에는 靑瓦臺정무 제2수석비서관등 비서실직원 27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신문사간부, 한국도로공사의 국장급간부직원 7명, KBS탤런트 10여명도 면허시험을 치렀다.

면허시험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에 앞서 이미 지난3월부터 영관급 군장교들이 대거 운전면허를 따고 있다는것。

이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응시하고 있기때문에 단체로 몰려와 응시하는 경우와는달리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수 없지만 상당수에 이른다는얘기。

각부처나 국영기업체등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운전교육이 본궤도에 오르는 12월초순께부터는 면허시험을 치르는 고급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간부들의 면허시험응시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들 고급공무원 국영기업체간부등「높은사람들」의 면허시험에서 나타난 특색은 학과시험에는 대부분 일반응시자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을 보인반면 코스와 장거리주행등 실기시험에서는 형편없는 솜씨를 보이는 사람들이 끼어있다는것.

27명이 응시한 靑瓦臺비서실의경우 학과시험에서 3명이 1백점만점을받는등 평균 90점의 우수한「실력」을 과시했다는것。

실기에서도 25명이 합격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그러나 모국영기업체의경우 응시자7명이 모두 학과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실기에서 기본코스마저 제대로 돌지못하고 5명이나 도중하차, 겨우 2명만 합격했다는 것이다.

낙방한 고급공무원들은 저마다 떨어질경우 체면손상이 걱정돼 긴장했다』든가『업무에 바빠 운전교육을 제대로못받았다』는등 저마다 나름대로의 변명을하기도한다는것。

하지만 고급공무원의 직접운전제실시등 본격적인 자가운전시대의 개막을앞두고 자가운전제의 부작용도 적지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좁은 자동차운전교습장안에서만 운전교육을 시키고있기때문에 시험에 합격, 면허증을 따도 시가지주행이 어렵다는 문제가나와 운전교습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것이다.

서울시경 면허 3계장 慶廷浩경정은『자가운전제확대와 관용차 직접운전제 실시에따른 잦은사고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을하는 사람들의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형사처벌등이 완화 된다고해서 면허를따는데에만 노력할것이아니라 항상 자신의 지위와 사회적 책임윤리의식,안전운행을 할수있는 자세를갖고 운전기술숙달에노력해야할것』이라고 권고 했다。【姜秉泰기자】

非情…두아들내버린 아버지

새부인얻은뒤 "귀찮다"…30代令狀

生母가 수소문끝에 釜山고아원등서 찾아

서울西部경찰서는 10일 부인과 헤어진뒤 어린두아들을 내다버린 宋淳玉씨(34·노동·서울市恩平區응암2동593의27)를 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宋씨는 부인 金英淑씨(26·서울麻浦區城山洞455)와 헤어진뒤 孔모씨(21·여)와 동거하면서 두아들이 거추장스럽자 지난7월25일장남元英군(4)과 차남元燮군(2)을 데리고나가 元英군은 淸凉里역부근에, 元燮군은 道峰區上溪洞불암산에 각각 버렸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전부인金씨가 아들을보고싶어 지난9월20일 宋씨집을찾아갔다가 밝혀낸것이다。金씨는 그뒤 두아들을 찾아나서 釜山의 모고아원에 맡겨져있던 元英군은 찾았고 입양기관에 맡겨져있던 元燮군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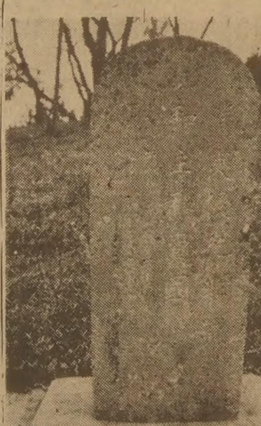
煉炭가스에 中毒 女工員1명 숨져

10일상오 3시30분께 서울冠岳區奉天9洞102 대정섬유공장(대표 白輝大·45)기숙사에서 잠자던 공원 林貞淑(17)、鄭明淑(15)、林福鉉양(16)등 3명이 연탄가스에 중독, 신음중인것을 옆방의동료 文英姬양(16)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林貞淑양은 숨지고 鄭양등2명은 중태다。

咸平서 斥和碑발견

높이 百40cm 규모

【錦城=新】李朝 高宗(1871년)때 洋人을 배척하기위해 세운 斥和碑(사진)가 전남咸平郡 咸平공원에서 뒤늦게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높이 1m40cm 넓이45cm 두께24cm의 화강석으로된 비문에는『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戒吾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라고 적혀있다。

이비는 서울·江華·東萊·咸陽·釜山鎭·慶州에 이어 7번째 발견된것이다。

보광한약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남집

동양한약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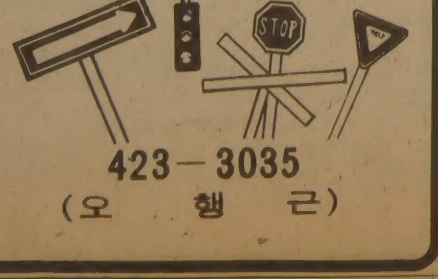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AUDI　CATCH A RABBIT

거구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선남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운전교습

423-3035
(오행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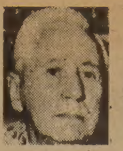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Bathurst / Bloor / CHINA HOUS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文明이야기의 哲學者 듀란트夫婦 他界

半世紀 學問동반자… 죽음도 함께

"今世紀 최고의 學者" 名聲남긴채

역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듀란트옹이 지난7일밤 로스앤젤레스의 세다즈·사이나이·메디컬 센터에서 96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평생을 학문적 동반자로 나란히 살아왔던 아내 아리엘·듀란트여사가 죽은지 2주일도채 못돼 그가 뒤를이어 타계함으로써 부부학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셈이 되었다.



◇윌·듀란트옹

◇듀란트여사

윌·듀란트와 아리엘·듀란트부부는 같은 학문을 공동으로 하는 동반자로 나란히 반세기를 살아 왔다. 두 부부학자는 아내가 15세, 남편이 28세되던해 결혼, 부부의 위치에서보다 함께 공부하는 젊은이들로 출발했다. 아리엘여사는 결혼후 고등학교를졸업하고, 콜럼비아대학에 들어가 역사학을 공부했다. 남편 듀란트는 노드저지주의 세인트·피터대학과 콜럼비아대학에서 철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30대까지 가난한 작가로 일하며 아내에게 대학교육을 시키고 역사및 철학에관한 수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 40세되던해 꾸며낸 첫저서「철학이야기」(26년刊)가 예기치않던 성공을 거두어 베스트 셀러가 되면서 그의이름이 역사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책은 4백만부가 나가고, 세계 19개국어로 번역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듀란트는 이후부터 인류文明의 발전에대한 연구를 책으로 써 「文明이야기」 11권을 차례차례 엮어냈다.

그의「文明이야기」全11卷은 인류문화와 문명의 발달사를 그자신의 철학사관과함께 엮은 것으로, 이 11권의 저서로 「최고의 역사학자」로서의 자리에 올랐다. 부인 아리엘여사는 이 시리즈의7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와 저작에 참가, 7권서부터 마지막11권까지 남편과 함께 나란히 공동저자로서 책 표지에 나타났다. 두사람은 이 시리즈의 10권째인 「루소와 혁명시대」로 68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퓰리처수상작에 이어낸 마지막11권 「나폴레옹의 시대」는 아내 아리엘여사의 이름을 더욱 높여, 남편 듀란트와 나란히 「당대의 톱·히스토리언」으로 꼽혔다. 그녀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할렘가에서 소녀시절을 보냈던 불우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할렘가에서 大學者로」 성공한 그녀의 라이프·스토리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듀란트는 자신이 철학자보다 역사학자로 불리기를 좋아했으며, 역사를「가장 재미있는 학문」으로 꼽곤했다. 듀란트의 역사 연구방법은 단순히 자료정리나 집성에서 그치지않고 그특유의 철학을 대입해서펼쳤으며, 인류역사를 기원전 東洋의 文明여명기서부터 나폴레옹 시대까지 東·西洋을 두루 횡단하며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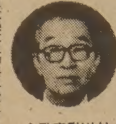
그의 역사책들은 루소, 나폴레옹등과 같이 文明과 역사를 움직였던 커다란 人物들의 人間性 연구도 겸해, 한 인간의 독창적인 人格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캤다. 듀란트는 대단한 독서가여서 언제나 책을 읽고, 노트하는 습관을 지녔으며, 생활에서도 매우 검약해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고 채소를 즐기는 자연주의자로 살았다.

그는 수주전부터 아내처럼 심장발작을 일으켜 의식이 혼미한채로 병원에 입원해있었으며, 아내의 죽음을 알지 못한채 타계했다. 두 부부는 1남1녀를 남겼다. 듀란트의 첫 저서인 「철학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 철학저서로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로 올랐었다.

人蔘에 中性子방어 효과

흰쥐대상 實驗…수명연장

人蔘이 中性子에대한 방어작용을 갖는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이같은 사실은 孔泰勳박사(66·前 東大農大生物科교수)를 주축으로한 姜明昇팀이 지난 7일 고려인삼학회 주최로 한국人蔘煙草연구소에서가진 제6회 고려인삼학회 학술대회에서 「中性子에被曝된 흰쥐의 생명연장에 미치는 인삼제제 효과에관한연구」발표를 통해 알려진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孔泰勳박사

孔박사팀이 東大의 中性子발생장치를 이용, 인삼제제가 中性子의 생체방어효과를 알아보기위한 연구를 착수하기는 79년초。孔박사팀은 우선 中性子가흰쥐를 절반(50%) 죽일수있는 축적線量이3·75밀리렘 이란 사실을알아냈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흰쥐에 인삼의 알칼로이드成分主劑(G2 102)를 투여, 中性子에 대한영향을 조사해왔다。

孔박사팀은 실험을통해 중성자를 하루걸러 3분씩 총4밀리·렘 쪼인 그룹의흰쥐는 31일째되는날 모두죽어버렸으나 인삼 알칼로이드성분주제를 照射하기 35일전부터 먹인그룹은 66일간을살아남아 2·13배의 생명연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孔박사팀은 또 인삼알칼로이드성분주제가 생체에 나타내는 중성자 방어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감마글로불린과 알부민등 血清蛋白의 量을알아 보았다。그결과 인삼알칼로이드성분주제를 투여한 그룹은 상당기간동안 이들수치가 정상치를 유지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국최강 美에 完敗

페더레이션컵테니스 李德姬·金壽玉등 1회전서

한국여자테니스대표팀은 9일 東京에서개막된 페더레이션·컵 세계여자테니스대회첫날1회전에서 대회 6連覇를 노리고있는 최강 美國에 완패, 탈락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한국여자팀은 프로로 활약중인 李德姬를 비롯, 현재국내실업최강자인 金壽玉과 薛昊敬이 분투했으나 세계랭킹 1위의 크리스·에버트·로이드, 돌풍을 일으키고있는 10代스타 안드레아·애거등이버티고있는 1번시드의 美國에 3─0으로 패배했다。

이번 대회에는 32개국이출전, 녹·아웃시스템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1회전전적

美國 3─0 한국

애거 2(6─1 6─3)0 薛昊敬

에버트 2(6─1 6─3)0 李德姬

카잘스·요르단 2(6─2 6─2)0 李德姬·金壽玉

世宗文化회관 內定

五輪조직위 事務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金溶植)는 조직위원회사무실을 世宗문화회관으로 내정한것으로 9일 알려졌다.

慶北 第2區間서도 1位

京畿、서울제치고 2위 골인

密陽─大邱 70·6km 코스 3시간29분33초로

◇6개팀 先頭走者 京釜大驛傳이틀째 密陽─大邱의 제2구간 출발선을 박차고 나선 6개팀선두주자들。 【京釜大驛傳취재반】

제27회 釜山서울大驛伝경주

【京釜大驛傳취재반】慶北이 密陽─大邱간 코스에서도 계속 선두를 달리고있다. 제27회 釜山─서울間 大驛傳 경주대회 이틀째 레이스가 10일 상오10시 盧乙煥 密陽군수의 출발신호로 密陽─大邱간 70·6㎞코스에서 벌어져 慶北이 3시간29분33초로 大邱에 1위로 골인했으며 釜山─大邱간(1백58·2㎞) 종합기록에서도 7시간47분38초로 1위를 고수했다. 京畿는 朴京德이 제2소구에서 慶南, 서울을따돌리고 2위에 나선후 후속주자들이 분전, 3시간30분53초로 大邱에 2위로골인했다. 京畿는 종합기록에서도 7시간52분32초를 기록, 첫날 2위였던 서울을 제치고 2위에올라 섰으며 서울은 3시간33분21초로 2구간에서 3위로 떨어졌다.

慶南은 제2구간서 3시간36분52초로 4위를 기록, 종합기록에서 8시간5분2초로 4위를 마크했다.

이날 레이스는 제2소구 楡川─清道간에서 승부가 가려졌다. 제1소구 密陽─楡川간에서는 각시도가 복병들을 기용했으나 멤버가 풍부한 慶北은 朴元根이 1소구를 선두로 통과하고 崔慶烈, 鄭晩和가 계속 역주, 慶北을 안전권에 끌어올렸다。

京畿는 첫주자 兪貞濬이 크게 부진, 첫 소구를 4위로 통과했으나 가장긴소구인 楡川─清道간에서 朴京德이 맹활약, 첫소구서의 부진을 만회했다。

京畿는 제5소구인 三省─慶山, 6소구인 慶山─晩村洞간에서 林相圭, 李弘植등이 1위를 기록하며 慶北을 맹렬히 추격했으나 최종주자 黃寅哲이 오버페이스, 慶北을 따라잡는데 실패했다。

서울의 李洪烈은 첫소구에서 朴元根(경북)과 잘싸웠으나 黃圭勳, 吳在道등 서울이 기대를 걸었던 주자들이 부진했다。그러나 柳文鍾, 沈鉉澤이 잘뛰어 제2구간서 3위를 차지했다。

첫날 4위였던 釜山은 제1주자 李明鎬가 스타트서부터 부진, 慶南에 추월당해 제2구간서 5위를 기록했으며 종합기록에서도 慶南에 이어 5위를 마크했다。慶南에서는 金鶴洙, 柳在聖이 분전했다.

◆제2일 기록 (釜山─大邱 158·2㎞)

①경북	7시간	47분	38초
②경기	7	52	32
③서울	7	54	35
④경남	8	5	2
⑤부산	8	5	52
⑥전남	8	12	21

◆제2구간 기록 (密陽─大邱 70·6㎞)

①경북	3시간	29분	33초
②경기	3	30	53
③서울	3	33	21
④경남	3	36	52
⑤부산	3	39	54
⑥전남	3	40	26

◆소구간별 기록

◇제1소구 (密陽─楡川10㎞)
①朴元根 (경북) 28분44초
②李洪烈 (서울) 29분36초
③金鶴洙 (경남) 29분37초
④兪貞濬 (경기) 30분7초
⑤李明鎬 (부산) 30분37초
⑥尹琅根 (전남) 31분30초

◇제2소구 (楡川─清道13·8㎞)
①朴京德 (경기) 40분F
②崔慶烈 (경북) 40분19초
③黃圭勳 (서울) 41분23초
④柳在聖 (경남) 41분44초
⑤朴鍾圭 (전남) 41분51초
⑥金禎敎 (부산) 43분40초

◇제3소구 (清道─南松峴9·6㎞)
①鄭晩和 (경북) 29분3초
②宋俊奎 (경기) 29분16초
③吳在道 (서울) 29분20초
④鄭渭植 (경남) 29분34초
⑤朴英培 (부산) 30분8초
⑥李永福 (전남) 31분1초

◇제4소구 (南松峴─三省11·1㎞)
①柳文鍾 (서울) 31분59초
②李善熙 (경북) 32분19초
③成弘根 (경남) 32분24초
④金俊鎬 (경기) 32분44초
⑤權永祚 (부산) 32분54초
⑥沈國鍾 (전남) 34분19초

◇제5소구 (三省─慶山7·6㎞)
①林相圭 (경기) 22분3초
②金鍾允 (경북) 22분8초
③金榮坤 (서울) 22분31초
④金永碩 (전남) 23분24초
⑤鄭必和 (경남) 23분26초
⑥金光澤 (부산) 23분30초

◇제6소구 (慶山─晩村洞10·4㎞)
①李弘植 (경기) 31분34초
②沈鉉澤 (서울) 32분42초
③南仁奎 (경북) 32분44초
④孟東烈 (전남) 32분50초
⑤林鍾九 (부산) 32분59초
⑥金義錫 (경남) 34분43초

◇제7소구 (晩村洞─大邱8·1㎞)
①蔡鴻洛 (경북) 24분16초
②黃仁哲 (경기) 25분9초
③吳世科 (경남) 25분24초
④李炳旭 (전남) 25분31초
⑤嚴淳鉉 (서울) 25분50초
⑥孫晋文 (부산) 26분6초

◇각팀간 기록차

①─②	4분54초
②─③	2분3초
③─④	10분27초
④─⑤	0분50초
⑤─⑥	6분29초

실협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말씀

임철원 회장후보

하소영 부회장후보

최복기 부회장후보

자꾸만 침체되어 가는 카나다 경제현실에 날로 치열해가는 수퍼마켓간의 가격인하 경쟁은 우리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소규모 코너 스토어에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의 살길을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실협」의 기치아래 한데 뭉쳐서 우리의 이익증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함께 투쟁해 왔으며, 우리의 단결된 힘의 과시로서 명실공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읍니다. 협회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역대집행부및이사진의 노고와 협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이 협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읍니다.

그간 협회에서 전개해왔고, 또 시도하여왔던 회원의 실질적인 이득을 위한 사업들이 전체 회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점도 있으나 하루아침에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인내와 꾸준한 협조를 하여주신 회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년전에 무에서 시작된 협회가 년간예산 15만달러에 달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있는 우리의 모임체로 성장한 이제는 드디어 실질적인 혜택을 추구해야하는 도약단계의 문턱에 도달한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협회에서의 실무경험과 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2년간 건전한 협회운영과 회원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창설을 목표로 정·부회장 선거에 나섰읍니다.

협회의 발전과 회원각자의 권익추구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의 기여라는 무거운 짐을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저희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만은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 실질적인 이익증대를 위한 사업

가. 협동조합의 설립및 운영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경제적 약자인 우리를 어느 대기업이나, 도매상, 공급자, 생산자가 도와 줄 것을 기대할수는 없읍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돌파구를 「조직적인 공동구매사업」에서 찾아야 되는바, 지난 수년간의 조사 연구결과 온타리오 주법이 보장해주는 「협동조합(Cooperation Co-Op)」을 설립하는 길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각종 관계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사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연구, 검토해 왔읍니다. 우리 전체회원이 기존 도매상에게 주는 순이익은 년간 500만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회원각자의 투자로써 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공동구매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막대하며 그 이익은 바로 조합원인 회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청사진은 이미 나와있으며 조합원 출자금외에도 추가소요 재원조달등에 있어서도 이미 그 가능성을 타진해 놓고 있읍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때 우리 회원각자의 이익증대는 물론 재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주요 취급품목의 생산시설을 조합산하에 설치할 수도 있읍니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민족자본이 형성되면 우리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한글교육을 위한 기금및 각종 한인문화사업이나 행사등의 지원등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재산이 되지 않겠읍니까? 저희는 협동조합의 임기내 출범을 목표로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 T.T.C. 티켓 판매수당의 조정

판매수당 1%인 T.T.C. 티켓판매는 독점기업의 횡포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거스름돈 한번 잘못내주면 하루종일 헛장사 하게되는, 너무도 상식밖의 일방적 강요인 판매수당의 재조정을 위한 협상의 시도와 항의로써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읍니다.

다. 공병 취급수당 취득

회원가게의 가장 고질적이고 불공평한 문제가 바로 빈병취급입니다. 회원 가게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이의 분류를 위해 막대한 시간을 빼앗겨야 하면서도 무보수의 노력제공이 강요되며 트럭 드라이버 와의 분쟁의 불씨가 되어 왔읍니다. 저희가 현집행부에 재임하는 동안에도 수차 관계장관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 해온바 있으며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우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강력히 추진 할 것입니다.

둘째 :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 권장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주변지역사회를 도외시 하고서는 사업을 해낼 수 없읍니다. 지금껏 소극적인 지역사회에의 봉사참여에서 벗어나 전체 회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실협회원의 이메지는 물론, 나아가 전체 한국계 캐네디언은 카나다 사회에서 공존하려 한다는 인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 방법의 예로서는 협회가 스폰서가 되어 어린이, 청소년합창단의 양노원, 교도소등 위문공연을 추진하겠으며, 각 회원가게와 인근 어린이 스포츠팀(하키, 축구등)의 스폰서를 서 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줄 수도 있겠읍니다.

나. 상도의 확립을 위한 시책

상도의 문제중 교포업소끼리의 과당경쟁등 대내적인 문제는 협회에서 조정, 중재해 보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대 고객, 공급자, 배달원등 가게 경영중 필연적으로 상대하여야 하는 대외적인 상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항에 말씀드린 이메지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에의 봉사로써 대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도 자체 홍보활동을 통해 주의를 환기 시키면서 부당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읍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많은 협회 사업들을 계속 밀고 나갈것이며 또한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회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성실히 실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협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운영의 토대가 되는 선외의 경쟁에 의한 집행부의 선거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잡음, 후유증등 일부의 예상이 공연한 염려에 지나지 않도록 자중할 것이며, 선거전의 승패를 불문하고 다함께 손잡고「바람직한 협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회장단 입후보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회 장 후보 임 철 원(42세) 현 부회장

부회장 후보 하 소 영(43세) 현 회원

부회장 후보 최 복 기(36세) 현 총무

金利1% 引下

物價安定되면 더내려

貸出 19%、預金(만1기년) 18.6%로

家計·貯蓄預金 그대로 / 輸出金融12%잠정적용

支準率도내려 與信여유 2千억

金韓銀총재

한국은행은 9일 임시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출과 예금금리를 평균1%포인트씩 소폭인하하고, 수출금융금리는 내년6월말까지 연12%의 잠정금리를 계속 적용토록하며 은행지불준비율을 현재의 5·5%에서 3·5%로인하, 이날부터 적용토록했다. 이에따라 은행 일반대출금리는 연20%에서 19%로 인하되고 예금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 연19·5%에서 18·6%로 내렸다. 연14·4%인 가계종합예금과 저축예금은 조정되지 않았다. 預貸금리와 함께 한국은행 재할인금리도 수출어음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1%포인트 인하조정됐다.

金埈成한은총재는 이날 금통위 의결사항을 발표하면서 국내물가안정과 국제금리하락으로 여건이 조성된데다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금리를 소폭인하한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金총재는 이번의 금리인하는 한간에서 논의되고있는 안정이나 경기부양의 차원이 아니라 금리의 가격기능을 발휘토록한다는 관점에서 단행된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물가추이와 국제수지 경기동향등을 감안해서 안정기조를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총재는 또 금리인하로 향후1년간 1천억원규모의 기업금융비용 부담감이 예상되며 2%포인트의 지준율인하로 은행에 2천6백억원규모의 추가적인 자금여유가 생기게된다고 말했다.

金총재는 업계에서 요구하고있는 수출금융 융자단가인상에 대해 현재 적정융자비율인 85%선이 유지되고있으므로 더이상 인상할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의 금리인하조치로 대출금리는 ①일반대출이 연20%에서 19%로 ②적금대출이 18%에서 17%로 ③당좌대월이 21%에서 20%로 ④턴론대출이 20~22%에서 19~20%로 ⑤연체대출이 27%에서 26%로 각각 1%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인하됐다.

예금금리는 ①정기예금(1년)이 우대가 연21·6%에서 20·4%로 1·2%포인트 인하되고 ②일반정기예금(1년)이 19·5%에서 18·6%로 0·9%포인트 내렸으며 ③양도성정기예금증서(30일)가 13·797%에서 12·775%로 1·022%포인트 하향조정된것을 비롯 ④우대정기적금(3년)이 22·5%에서 21·5%로 ⑤일반정기적금이 19·5%에서 18·5%로 ⑥통지예금이 10·5%에서 9·5%로 각각 1%포인트씩 내렸다.

◇金利引下內容 (年%)

	現行	改正	引下幅
▲受信			
定期預金(1年) 優待家計	21·6	20·4	1·2
一般	19·5	18·6	0·9
讓渡性CD(30日)	13·797	12·775	1·022
定期積金(3年) 優待家計	22·5	21·5	1·0
一般	19·5	18·5	1·0
通知預金	10·5	9·5	1·0
貯蓄預金	14·4	現行	
家計綜合預金	14·4	〃	
▲與信			
商業어음割引 優良	19·5	18·5	
其他	20·0	19·0	
其他어음貸出 優良	19·5	18·5	
其他	20·0	19·0	
積金關係貸出 優良	17·5	16·5	
其他	18·0	17·0	1·0
當座貸越 優良	20·5	19·5	
其他	21·0	20·0	
턴론 優良	19·5~21·5	18·5~20·5	
其他	20·0~22·0	19·0~21·0	
延滯어음	27·0	26·0	
輸出支援金融	15·0(12·0)	15·0(12·0)	
에너지節約施設자금	12·0	12·0	—
〃 (턴론轉換分)	15·0	15·0	

註: 1)輸出支援金融은82·6末까지年12·0%適用

기업 拘束性예금 3천억 해제

貸出金과 相計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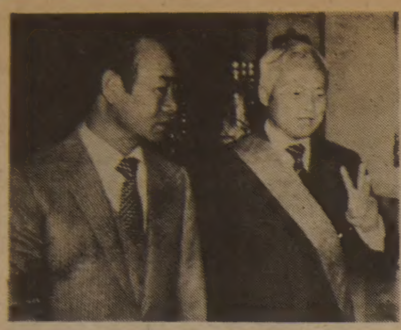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연말 자금사정을 완화해 주기위해 예금으로 대출잔고를 꺼주는 預貸相計조치와 단기운전자금및 국공채인수자금방출등 몇가지 부분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키로했다.

金埈成한은총재는 9일 시중은행이 갖고있는 3천억원 규모의 구속성예금을 해제, 기업대출금과 상계해줄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조치로 기업자금부담이 완화되는것은 물론 민간여신한도에 3천억원의 여유가생겨 은행대출이 활발해질것이라고 말했다.

金총재는 또 올해 배정된 정책자금중 방출이 부진한 시설자금을 일반자금으로 전용, 연말결제자금을 비롯한 단기운전자금으로 방출하고 연말까지 크게 늘어나게될 국공채의 원활한 소화를위해 단자회사, 조합금융증권회사등을 대상으로 1개월이하의 단기인수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金총재는 연말 통화증가율 25%는 그대로 고수하되 자금공급의 부문간조정, 요행자금운용의 효율화등으로 실질적인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은시설자금중 9백74억원과 중소기업특별지리자금중 4백55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전환 공급하고 4·4분기중 발행예정인 4천1백억원의 국공채중 가능한 것은 내년으로 발행을 연기, 시중 자금사정을 완화하기로했다.



韓·泰 投資협정 早期체결 논의

友好협력관계 재확인

全대통령·프렘會談

全斗煥 대통령은 9일상오 청와대에서 프렘·틴술라논다 泰國수상을 맞아 약40분간 단독頂腦회담을 갖고 東北亞 및 東南亞 정세를 비롯한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이날 단독회담에서 양국首腦는 특히 양국간의 당면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아울러 양국간의 공고한 友好협력관계를 재확인 했다고 李雄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프렘수상은 또 이자리에서 푸미폰泰國국왕의 정중한 인사를 全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李대변인은 전했다.

全대통령은 수뇌회담에 앞서 프렘수상에게 保國훈장統一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한국측에서 盧信永외무 金容烋 총무처장관과 權泰雄 駐泰國대사, 泰國측에서는 싯·사웨실라 外相 등 공식수행원이 배석했다.

프렘수상은 이에앞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南悳祐국무총리와 韓·泰수상회담을 갖고 東北亞및東南亞정세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위한 협력증진방안을 비롯 經協·과학·기술교류 증대를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南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1·12및 6·5對北제의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南北韓의 유엔同時가입, 주변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의 交叉승인문제등 정부의 기본외교정책을 설명했다.

南총리는 또 지난2년간 韓·泰양국간의 交易이 年40%씩 증가해온 사실에 留意, 두나라 간의 현안문제인 投資保障協定의 早期체결과 대한항공(KAL)의 방콕 以遠權협정을 위한 조속한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프렘수상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泰國의5차5개년계획에 한국정부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촉구하고 특히 泰國의 造船공업과 鐵道擴張계획을 위한 합작투자증대및 이를 위한 노하우교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회의에 배석한 정부관계자가 전했다.

韓·泰 90일査證면제 협정

정부는 9일 泰國과 査證(비자)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상오10시 외무장관실에서 盧信永장관과 訪韓중인 싯·사웨실라泰國外相간에 서명, 교환된 이협정에따라 양국의 여행객은 90일한도내에서 비자없이 상대국에 체류할수있으며 90일을 초과하거나 就業목적의 入國때는 사전에 비자를받되 수수료는 면제된다.

盧泰愚 政務2長官 어제 歐·阿 巡訪길에

盧泰愚 정무제2장관이 대통령特使자격으로 유럽및 아프리카 各國을 巡訪하기위해 9일 하오9시 KAL便으로 出國했다.

盧장관은 약40일간에 걸친 순방기간동안 방문국 지도자들과 旣存우호관계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순방국에 거주하고있는 한국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盧장관은 또 88년서울올림픽유치에 謝意를 표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울러 다짐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밝혔다.

◇盧泰愚장관

金黨紀委 副委長등 국민黨職者 돌辭退

국민당의 林德圭부대변인은 7일 黨紀委부위원장에 임명된 金輸煥의원은 9일 黨사퇴서를 제출했다.

각각 黨개편에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釜山-서울 大驛傳경주 스타트

어제 釜山市廳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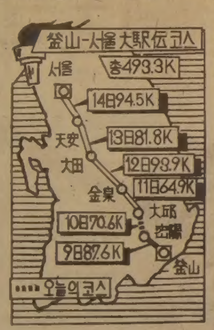
本社주최、6개市道참가 熱戰6일

한국일보社와 日刊스포츠·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제27회 釜山-서울間 大驛傳경주대회가 9일 상오9시 서울·京畿·慶北·慶南·釜山·全南등 6개시도팀 1백15명의 건각들이 참가한가운데 첫주자들이 釜山시청앞을 출발함으로써 총연장 4백93·3㎞를 달려 汝矣島국회의사당앞에 골인하는 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첫날 釜山-密陽간 87·6㎞를 달리는 제1區間 레이스에서는 호화멤버를 자랑하는 慶北이 4시간18분5초로 密陽에 선두로 골인했으며 서울은 4시간21분14초로 2위, 이보다 25초가 처진 4시간21분39초를 기록한 京畿는 3위를 차지했다.

이어 密陽에 4위로 도착한 釜山은 4시간25분58초를 기록했고 慶南은 4시간28분10초로 5위, 全南은 4시간31분55초로 6위를 마크했다.

◇釜山-서울間 大驛傳경주대회 첫주자들이 9일상오9시 釜山시청앞을 출발, 市街를 달리고있다. 慶南·北및 釜山선수들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있다. 【京釜大驛傳競走대회취재반】★기사9면



올 經常赤字 50억弗

豫決委답변 輸出外貨 稼得率 65.8% 對外

국회는 9일 豫決委를 열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財務委도 稅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豫決委에서 申秉鉉부총리는 『작년 對外經常收支赤字는 54억달러이고 금년은 50억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금년은 10억달러규모의 外米도입, 10억달러규모의 인상 金利지불등으로 20억달러가 추가지출됐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赤字가 발생했으나 이 두가지 요인만 없었더라면 경상수지적자폭은 훨씬 개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徐錫俊상공장관은 『60년후반 40%에 달했던 수출외화稼得率이 75년 53%, 현재 65·8%에 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收支改善에 중요한 영향을미치는 部品공업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財務委는 9일로 정부가 제출한 10개稅法案에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10일부터 小委활동과 아울러 民韓黨이 제출한 所得稅法개정안등 5개稅法案에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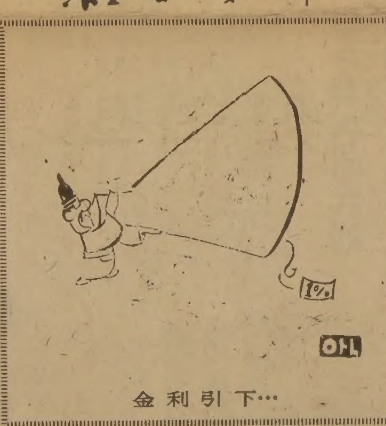
稅法심의 小委구성

財務委는 이날 稅法심의를 위해 13人(民正7 民韓4 국민1 維政同友會1)으로 小委를 구성하고 金融관계법 심의를 위해 民正6、民韓3、국민1、維政同友會1명씩으로 小委를 구성했다.

低質炭 調査착수

국회商工委의 低質炭문제小委는 9일 모임을 갖고 10일부터 13일까지 江原班과 忠南·慶北班으로 나뉘어 석탄생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위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社会漫評



金利引下…

地平線

지난달 30일 일본東京서남방 히라쓰까란 도시에서 地震소동이 일어났다. 경보기의 계고장으로 미리 녹음해 두었던 市長의 긴급대피통보가 중심가의 확성장치를 통해 3분간이나 방송된 것. 위난 地震에 민감한 일본사람들이라, 가재도구를 꾸리는등 한동안 법석이 났으나, 이내「誤報」인 것으로 밝혀져, 큰혼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사소한 기계고장이 빚은「海外토픽」감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誤報」도 있다. 작년6월3일 미국 콜로라도州의 北美防空사령부(NORAD)는 소련이 대륙간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해온다는 경보를 냈다. 순식간에 근 1백대의 장거리폭격기가 시동을걸고, 미사일기지와 핵잠수함에 비상이 걸렸다. 그3분뒤 이 경보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흘뒤인 6월6일에도 같은「誤報」가 거듭됐다. 모든것을 컴퓨터로 자동처리한다는 NORAD의 정밀장치가 어떻게 그런실수를 되풀이할수가 있을까. 조사결과 그원인은 46센트(약 3백원)짜리 칩(素子) 하나의 작동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5년이란 세월, 1억4천만달러를들여 만든 NORAD의시설이 銅錢한닢 크기에 불과한 부품의 결함으로 주저앉아버린 꼴이다.

▼이번 우주왕복선 콜럼비아 2호도 비슷한 경우다. 그 발사실패의 원인은 油壓조정장치의 필터 2개가 막힌 것이며, 그까닭은 윤활유 5ℓ값으로는 25달러어치가 새어나와 엉겨붙은데 있었다. 사소한 고장이 1백억달러나 들인 큰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앞선 콜럼비아 1호역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아주 작은 미스로 발사가 연기됐던 사실과 함께, 하나의 아이러니와도 같은 얘기들이다.

▼여기 담긴 교훈은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도 사람의「손」이 두루 미치지 않고는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된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 1백22개 기관중 32%가, 한해 평균 3차례의 컴퓨터 고장을 경험하고 있다. 그중 쥐가 드나들어 일어난 사고가 14건, 심지어는 접대용 코피를 터미널에 엎질러 5일간이나 컴퓨터가 멎어버린 경우도 있다. 너나 없이 컴퓨터를 들여오면서, 그 관리에는 빈구석이 많다는 얘기다. 언젠가 그 컴퓨터가 어떤 아이러니를 빚을지 걱정이 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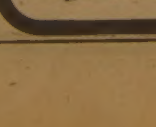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개정식
순두부찌개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도넛샵: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3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30만달러
②년매상 100만달러이상. 2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5,500. 주매상: $7,000.
주매상: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C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6(R) M3B 1Z3

MASTER AUTO BODY
●A급 BODY MAN(16년 경험)
●사고 보험관계 일체처리
●무료견적
●수리중 자동차 대여
●사고차량 픽업써비스
95 PORTLAND ST. TOR.
(B) 255-2111
255-1000
(R) 828-5001
전기덕


감사합니다

지난11월1일 장공 김재준 박사님의 범용기 출판기념과 그 내외분의 80세 생신을 축하하는 모임에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축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 그날 예배순서에 참여하여주신 분들, 축하의 선물을 보내주신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말을 각자 못드리고지상으로 드리는 것을 널리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11월10일

김재준 박사 자녀들일동 드림

목공소

교민 여러분을 위해
목공소를 개업합니다.
어떤일이든지 문의하시면
성심껏 봉사하겠읍니다.

●상점 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카운터, 홈빠, 책장, 찬장등 가구제작

※특히 이번 겨울동안 싸우나를 원하시는분은 10% 할인하여 드립니다.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조상민

蘇政治局 개편 臨迫說

브레즈네프有力후계 그리신등 失脚할듯

革命64周 기념行事에 不参

【모스크바9日UPI=聯】7일 모스크바의『붉은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볼셰비키혁명64주년기념 군사퍼레이드에 레오니드·브레즈네프 黨서기장의 후계자로 유력시되고있는 黨정치국원 빅토르·그리신(67)과 黨서기이며 黨이론가인 보리스·포노마레프(76)등 고위급인물2명이 불참한 것은 소련공산당정치국의 개편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것인지 모른다고 서방분석가들이 9일 말했다.

이서방분석가들은 그리신과 포노마레프등 당내 고위인물이 볼셰비키 혁명기념군사퍼레이드와 같은 중요한행사에 불참한것은 단순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경우 이들의 정치적실각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가들은 특히 그리신과 포노마레프의 혁명 기념퍼레이드불참이 특별히 중요성을 띠는이유는 黨정치국의 개편이 공식발표되는 黨중앙위원회의가 앞으로 10일이내에 열릴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7일의 군사퍼레이드에서 그리신은 참석하지않았으나 그의 대형초상화는 다른 정치국원들의 초상화와 함께 퍼레이드가 열린『붉은광장』에 붙어있었다.

그리신은 1개월전부터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있다.

페르시아灣 協力委 6國 2차정상회담

【매나마(바레인)7日AP=聯】6개 페르시아만산유국들로 구성된 페르시아灣협력위원회(GCC)는 회원국인 오만이 협력위의 정책을 위배, 美해병대의 상륙을 허용함에 따라 1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2차정상회담을 갖고 공동방위체제를 토의한다.

美科學·敎育者들 대대적 反核運動

【케임브리지(매사추세츠州)7日AP=聯】美·蘇간 核무기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기위한 美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의 대대적인 反核운동이 11일미국의 1백20개 주요대학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매사추세츠工大(MIT)물리학과의 헨리·켄들교수를 중심으로한『核전쟁을 우려하는과학자연맹』과 8개의여타관계분야전문가단체들은 11일 美전역의 1백20개주요대학구내에서 核전쟁이 몰고올 인류의 대재앙을 경고키위한 토론회와 시위를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천체물리학자인 칼·세이건교수, 전략무기제한협상의 美측대표였던 폴·원키씨,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 폴·새뮤얼슨교수 노트르댐대학의 데오도어·헤스버그총장등 유명한 관계분야 과학자·교육자들이 강사로 출연한다.

켄들교수는 지난주 反核강연회일정을 발표하면서 11일 있을 이행사를 앞으로 전개될『전폭적인 反核운동의 시작을 의미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켄들교수는 전세계가 현재『치명적인 핵전쟁의 위험』에 직면하고있다고 강조하고『관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이 위험을 일반에게 인식시켜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美과학자연맹의 제리미·스토운 회장은 11일있을 전국대학의 反核토론회가『核전쟁의 위험이 묵인돼온 사회에서 성장한 젊은세대들에게 核무기 경쟁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기위해 마련된것』이라고 말했다.

호메이니 年内 은퇴考慮

英紙보도 健康악화·暗殺우려…側近선否認

【런던8日AP=聯】이란혁명지도자 아야톨라·호메이니옹은 금년말이전에 적극적인정치활동에서 은퇴할것을 고려하고있다고 선데이·타임즈紙가 8일 보도했다.

선데이·타임즈紙는 이날테헤란발기사를통해 오는 12일83세가되는 호메이니옹이 이란회교공화국의 고위지도층에 그의 은퇴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선데이·타임즈紙는 이어 호메이니옹의 측근들도 호메이니옹이 내년2월의 이란회교혁명3주년이전에 그가 선정한 후계자인 후세인·알리·몬타제리를위해 은퇴할 계획인것으로 믿고있다고 전했다.

선데이·타임즈紙는 또 호메이니옹이 지난주 그의 헌법상의 권한을 보좌관들에게 분산시키는 일련의 법령에서 명했다고 말했다.

호메이니옹의 이같은 조치는 악화일로의 그의 건강과 혹시 있을지 모를 그의 암살이 이란을 큰 혼란에 빠뜨릴지 모른다는 점을하는 우려때문에 촉진된것 같다고선데이·타임즈紙는 지적했다.

【베이루트8日AP=聯】이란회교통치자 아야톨라·호메이니옹(83)은 현재 건강이양호하며 아직은 그가 선정한 후계자인 아야톨라·후세인·알리·몬타제리에게 권좌를 물려줄 의향이 없다고 호메이니옹의 측근소식통이 8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호메이니옹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날것이라고 한 선데이·타임즈紙 보도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그가 권좌를 물려주고 정치일선에서 은퇴하고 싶어한다는 시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란內 이라크軍포로들 테헤란 테슈마티에 수비대에 수용된 이라크군 전쟁포로들. 이 사진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테헤란9일AP=聯】

美軍출동때 日후방支援

美·日 한반도有事時 대처계획 論議

【東京9日=聯】美·日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극동유사시연구는 미군이 긴급사태를 맞아 출동한경우 일본이 후방에서 지원하는문제를 주요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것으로 9일 알려졌다.

시오따·아키라(塩田)日방위청 방위국장은 9일 중의원 안보특별위원회에서 美日간의 극동유사시연구는 미군이 유사시 출동할 경우를 가정한 연구라고 밝히고 미국측은 자위대기지의 공동사용문제를 생각할수있다고 밝히고 그이상의것은 고려하고있지않다고 말했다.

한편 외무성의 구리야마(栗山)조약국장은 이 유사시연구와 관련 일본영해내에서의 미국함정에 대한 공격은 일본영역에대한 공격이며 일본의 자위책이 발동될 사태라고 말했다.

홀드리지 美차관보 "對中共판매武器 防禦用에만局限"

【콸라룸푸르7日UPI=聯】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순방중인 존·홀드리지 美국무성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7일 레이건행정부가 對中共판매무기를 방어용무기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는 중공에 무기를 판매하기전 아세안국가들과 사전 협의를 할것이라고 다짐했다.

인도네시아·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지아를 방문중인 홀드리지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공에 판매될 무기가 오로지 방어목적용이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매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규모가 크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蘇頂上회담 즉각開催를"

퍼시 美議員회견

【로즈먼트(美일리노이州)8日UPI=聯】찰즈·퍼시 美상원외교위 위원장(일리노이州·공화)은 7일 현 국제정세는 美蘇양국수뇌가 정상회담을 개최, 직접 대화를 나누지않고는 해결할수 없을만큼 위험한 시점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하고『바로 지금이 양국정상회담을 개최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퍼시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선거구인 일리노이州공화당 여성당원연맹대회에참석한후 가진 회견을 통해 이와같이 주장하고 레이건 대통령과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은 이제 직접만나 세계적인 분쟁문제들을 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퍼시 위원장은 또 지난 6일에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市에서『전쟁은 착오로도 발발할수가 있다』고 전제하고『가장좋은방법은 레이건 대통령이 브레즈네프에게 직접 침략이나 무력사용을하지 않는것이 현명할 것이라는점을 설득 시키는것』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號 來12일發射

【케이프카나베랄8日AP·UPI=聯】美항공우주국(나사)은 8일 앞서 윤활유오염으로 발사가 연기됐던 유인우주왕복선 컬럼비아號를 오는 12일 하오9시30분(이하 한국시간) 발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마크·헤스 나사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발표하고 지난 4일 컬럼비아호의 1차발사시도를 실패로 돌아가게했던 2개보조동력장치의 오염된 윤활유와 필터가 새것으로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헤스대변인은 1차발사시도당시 일부 소모된 연료를 보충하기 위한 작업이 작업상의 위험성때문에 극소수요원들을 제외한 모든 발사현장관계자들이 소개된가운데 8일 조심스럽게 개시됐다고 전하고 이작업이 9일중 완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外信안테나

◆발트하임 후보辭退說부인

쿠르트·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이 차기 사무총장후보에서 물러날것이라는 소문이나도는 가운데 발트하임총장의 대변인은 6일밤 발트하임총장이 3차연임을 위한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풍문을 강력히 부인했다. 【유엔本部=AP】

◆벨기에 執權基民黨패배

8일 실시된 벨기에총선거의 중간개표결과 벨기에집권당인 基民黨이 패배하고 야당인 自由黨이 크게 득세할것으로 나타났다. 【브뤼셀=UPI】

난로넘어져 불 母女燒死

【釜山=聯】9일 상오10시30분께 釜山市西區長林洞18의9 金길씨(32)집에서 석유난로가 넘어지는 바람에 불이나 金씨의 부인 裵정순여인(27)과 딸 ○영양(1)등 2명이 불에타 숨지고 金씨도 중화상을입어 釜山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고있으나 중태다. 이불로 金씨집 3층슬레이트건물의 4평짜리 방이 전소됐다.

파리에「흙의建築」研究붐

시멘트·철근등 절약 利點많아

흙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건축자재。현재도 세계인구의 3분의1이 흙집에 살고있다.

『흙을이용한 건축을 되살리자』는 학술세미나와 주장들이 최근 파리에서 열기 시작했다.

『건축가들이 흙의 건축을 연구하는것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향수때문이 아니다。에너지위기는 흙의 건축연구를 촉진시켰다』고 2년에 걸쳐 학술세미나장의 흙의건축 전시회를 준비한 장·데디에씨는 말하고 있다.

흙의건축은 가마에서 굽지않고 햇볕만으로 말린 벽돌과 찰흙을써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퐁피두센터 높이의 2배에 달하는 바벨탑도 흙만으로세워졌다. 로마제국이 리용에 골족의 수도를 건설할때도 흙만을썼다.

흙의건축의 전통은 예메니 사막의 건물이나 팀부크투담에만 남아있는게 아니다. 미국의 뉴멕시코州의 고급주택가에도 흙의건축전통이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아도비라 불리는 흙벽돌집이 최고급주택으로 통한다.

흙의건축은 여러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멘트·철근·목재를 절약할수 있어 건축비가 3분의1로 절감될 뿐더러 보온과 냉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수 있다.

『흙건물은 누구나 가질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그누구도 흙집에 살수있다. 흙집은 있는자나 없는자 모두가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고 흙의건축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리디아·밀러여사는 주장하고 있다. 밀러여사는 변호사인 남편과함께 45년 흙의건축연구를 시작한이래 5채의 흙집을 지었다.

흙집이 내구성이 없을거라는 일반인의 선입관과는달리 흙은 어느건축자재보다도 오래가고 단단한 건축자재라는게 흙의 건축가들의 지론이다.

그들은 파리에 6층짜리 흙집을 누가 세우려든다해도 이를 말릴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흙의건축에대해 자신만만해 하고있다.

百톤以上 鋼船건조

원진造船 來年初 東海岸처음

【東海=聯】강원도 동해시 소재 원진조선(대표 金○○)은 내년초부터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1백톤급이상 강선을 건조하게 된다. 원진조선은 그동안 기술진 및 기계시설부족으로 선박수리만을 해왔으나 인력및 시설확보를 하게돼 대형선박건조를 시작하게된 것.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李石씨·徐廷範씨「한국문학상」受賞

한국문인협회 제정 제18회 한국문학상수상자로 詩集『花魂』을 낸 李石씨와 수필집『그生命의 故鄕』을 낸 수필가 徐廷範씨가 공동당선했다. 시상식은 12월중순.

메아리

婚俗은 어느나라 할것 없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법이요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런 달라진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꾸준히 늘어나서 최근에는 매년 4천건이 넘는것으로 집계된 사실이다. 그 결혼중 약 90%에 해당 하는 절대다수는 우리 여성들이 외국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이고 우리남성이 외국여성을 배우자로 삼는예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요즘의 국제결혼은 대부분 자의로 이루어지는것이나 지난날의 그것은 국가에서 강제로 하게했던 시기도 있었다. 고려가 몽고에 항복한 다음, 몽고는 貢女라 하여 고려에 처녀를 보내라고 강요하였다. 몽고의 요구에 응하려고 고려 조정은 結婚都監, 寡婦處女推考別監을 설치하면서까지 국제결혼을 할 신부감을 구하는데 애를 썼지만 몽고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고려여성들은 기어이 응하지 않아 정부가 크게 곤욕을 치러야 했었다.

권장만으로 안되니까 보상을 후하게주어도 역시 불응하여 여전히처나 승려의딸을 잡아다보내는 등 눈물겨운 사연은 헤아리기조차어려웠다. 이처럼 국가의 의사에 의해서 강요되었던 국제결혼 즉 貢女의 제도는 마침내 우리나라에 조혼의 풍습과 데릴사위의 관습을 낳게 했으며 몽고에서는 王室 내부에 高麗風俗이 유행하게 하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던 수모도 고려말 공민왕의 反元정책으로 일단락 되는듯 하였으나 이번엔 조선시대에 들어서 明에 대해서 貢女를 하게 되어 상대만 바뀌었다. 이 貢女는 계속되다가 中宗16년 즉 서기 1521년에야 종지부를 찍게됐다.

국제 결혼

물론 오늘의 국제결혼은 지난날의 貢女로인한 타율적이고 강제된 국제결혼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해마다 증가되어 간다면 전통적인 혼속이나 또는 우리 생활 문화의 풍토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증가가 구체적으로 우리 풍속과 전통적인 가치관에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수있는 계제가 아닌듯 하다.

나의 이력서 윤치영 (87)

<题字·尹致暎>

外交활동때마다 統一·유엔加入力說

3代國會시절 推進운동 모임이끌어

分斷의설움 解決노력

몇몇해만 더 지나면 南北이 分斷된지 어언 40년에 이른다. 38線이 분단될 때 壯年이던 내나이는 벌써 80중반에 접어들었다. 그토록 분단의 비극을 되씹고 南과北의 통일을 외쳐댔건만 統一로 가는길에는 한치의 진보도 없었다.

역사를 회고컨대 38線의 근본적인 책임은 日本에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등 연합국에 있다.

나는 유엔에서, 또 미국에서의 외교활동중 이 점을 수없이 강조하면서 한국의 통일과 유엔加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강대국이 져야될 應當한 책임이라는 논리를 폈다. 물론 南北통일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론이 성립되겠으나 우리의 통일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분단의 誘因子인 強大國이 현상의 固着을 바라고 있는 한 통일에의 길은 遼遠할 수 밖에 없다.

나는 對美외교에선 分斷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또「애치슨線」을 되살리지 말것과 소련의 南下정책에 강력한 쐐기를 박을것을 주장했고 유엔에서는 소련의 팽창정책을 경고하는 발언을 했다. 나는 유엔에서 體制는 변했어도 옛 帝政러시아나 소련의 南下정책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元祖인 카를·마르크스와 엥겔스조차도 일찌기 러시아(잠차 소련)의 팽창정책을 통렬히 비난했음을 지적했다.

나는 유엔에서의 소련을 생각하면 비신스키의 얼굴이 떠오른다. 『李承晩 徒黨이 전쟁을 일으켜 北侵을 南侵이라고 했다』고 악을 쓰던 비신스키의 그 묘한 얼굴이 갈수록 코믹하게 느껴진다.

50년대 安保理에서 한국의 유엔가입결의안에 거부권을던지며 한국의 가입을 무조건 거부해오던 소련이 그뒤엔 南·北동시가입을 주장하기도했다. 이는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정책의 修正이었다. 소련도 이젠 국제정세의 多邊化에 대응, 비신스키가 유엔에서 毒舌을 퍼붓던 시절과는 좀더 다른 태도를 보이고있는 것같다. 그러나 소련의 팽창주의는 그때나 이제나 변함이 없고 한반도문제에 중대變數로 잠재하고 있다고하겠다.

유엔總회에서 중국의 王대표를만나고 쳤을때 그와 한말이 생각난다. 王대표와 나는 東亞정세를 얘기하면서 한국이나 중국의 통일은 모두 번창할 나라를 잡지않으면 안되며 우리 분단의 나라들이 미국을 어느정도 믿어야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을 믿으면서도 믿어지지아니하고 의지하면서도 안심이되지않는다』는 말에 동감을 하면서 東亞의 현실을 개탄했다.

王대표는 淸朝末 風雲期에 태어나 亡國—日帝强占—解放—建國—6·25戰亂을 몸으로 겪어온 나와 外交는 不可分의 관계가있었다. 美·日유학때 국제법과 외교학을 전공했으나 나에게있어 최대관심사가 外交임은 두말할나위도없다. 어렸을때부터 나는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弱小國이 사는길은 국제관계의 원활한운영, 즉 외교라고 생각해왔다. 더구나 建國에이어 6·25戰亂을 겪은후부터 이같은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對美 對유엔외교만이 나라를 구할수있다고 확신한것이다.

◇筆者는 유엔加入이야말로 우리나라가 世界의 一員으로 당당히활동할수있는 발판이 되리라고판단, 加入추진운동을 주도했다. 사진은 3代국회시절 추진운동본成大會서 致辭를하는筆者.

6·25를 겪은뒤 나는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진력했으나 소련등 공산권의 반대로 그렇지만 국제정세에 어두운 국내인사들의 白眼視 속에서는 가슴을 아프게했다.

2代국회의장시절부터 나는 국회에서 유엔가입의 필요성을제기, 결의안통과에 이어 여러차례 대회를 가졌으며 나중 이운동은 鄭一亨등의 도움을 얻어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도했다. 유엔가입운동은 국민들에게 외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했다.

아뭏든 나는 3代국회에선 유엔加入特委위원장과 전국추진위원장을 맡아 활발한운동을 전개했으나 정부의 微溫的자세와 국제현실때문에 뜻을 이루지못했다.

나는 유엔총회에 갈때면 으레 워싱턴에 들러 옛舊韓國공사관 자리를 찾곤 했다.

한국일보 詩壇

도배

崔湖林

잘익은 과일을 고르듯
무늬 고운 벽지로
때저린 세월을 도배한다.

타성이 얼룩진 일상사
쓸모없는 과거를 버리듯
낡고 멍든 벽지는 뜯어내고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생기도는 꽃무늬를 펼친다.

어려운 생활 꾸려온 익숙한 솜씨로
아내는 삭삭 잘도 재단하여
안간에 없이 골고루 풀칠을 하고
나는 애정의 틈을 메우듯
빛나가는 무늬를 맞춘다.

세평 남짓한 방
퇴색된 사랑을 새롭게 단장하니
어느 틈에 소담한 행복이 가득찬다.

政局往來

[illegible]

"北傀、金正日체제 구축과정서 불장난 우려"

[illegible]

알리는 말씀

지난 10월 24일 선수권 대회 후 가진 모임에서 협회 클럽 활동 의 일환으로 사냥 클럽을 조직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클럽에서는 일차적으로 회원 확보와 아래와 같은 의제를 갖고 모임을 갖고저 하오니 사격및 사냥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계시는 분은 이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무 경험자환영)

1. 사냥의 일반적 사항
2. 사냥의 실제
3. 사냥 면허 취득 요령 (안전교육 필기, 실기시험)

일시 : 1981년 11월 20일(금) 오후 7시
장소 : Choi's Restaurant
연락 및 문의 : 755-7635 백 / 757-1097 한

캐나다 한인 사격협회 회장 백경탁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정부회장단 입후보 등록공고

회칙 제10장 29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 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 함.

선거일 1982년 1월2일 (토요일) 오전11시
선거장소 한인회관 (20 Mobile Drive)
등록마감 1981년 12월 22일(화) 오후4시까지
등 록 금 각 입후보당 $500 (현찰 또는 은행보수 반환 없음)
등록서류 가. 등록신청서 (선거관리 위원회서식) 1부
나. 이력서 정, 부회장 각 1부
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라. 사진 명함판 각 2매
마. 추천서 1부 (선거관리 위원회 서식에 의하여 1981년도 회비 납부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것)
바. 선거참관인 명부 1부 (2명)

1981년 11월 14일

한국노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언필

공고

1981년 7월 23일 오후5시 본회 정기 이사회에서 82년도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 하였 으므로 이를 공고함.

선거관리 위원장 최 언 필

위원 김근섭
김준순, 이희주
안주호, 최규찬
한덕창.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회 장 정 인 기

대광동창회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

저물어가는 이해에 우리 대광의 아들들이 한자리를 마련하였읍니다. 부디 꼭 참석하셔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일시 : 1981년 11월 21일(토) 오후 6시
장소 : Million Gold 식당 2386 Kingston Road Scarboro (1 block West of Midland)
프로 : 다양한 게임과 흥겨운 댄스. 행운권 추첨(푸짐한 상품 마련)
회비 : 카플당 $20.00
연락처 : 이남규 742-5289 / 서동헌 499-9925

대광동창회 회장 김예정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스토어 헬퍼 급구
능력있는분 풀타임 우대함
☎ : 924－5155 Mr. 박

주말에 근무할 분으로(토, 일)
그로서리 캐쉬어 구함.
☎ : 531－3491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주중오후(4~11시)에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합니다. (도너스 가게)
스카보로. ☎ : 284－9325 (Mrs. 남)

영어에 능통한자로 1년6개월이상
MEDICAL SECRETARY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연락처 : 493－4468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연령 관계없이 애들을 돌봅니다.
삼복식품옆 펀치지역
☎ : 745－4521 (미세스. 손)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8시~오후4시)
☎ : 531－2689

인형만드는 재봉사 구함
인형만드는 10명의 재봉사와
카터와 끝맺음 하시는분 구함
경험 있으신 분은 포맨(FOREMAN)으로씀
500 KEELE ST. UNIT 408
☎ : 762－7241

회계사 구함(상점경험 요함)
자격 캐나다 대학이나 칼리지 이수
히스 CO. ☎ : 261－2914

GAS ATTENDANT구함
☎ : 782－6311

매매및 양도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스토아 사정에 의해 급매코저함
☎ : 621－3412, 231－5351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스토아 급매
주 3천불 매상
☎ : 278－5944

밀튼에있는 버라이어티스토어 세일
좋은 수입과 위치
건강상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팔고자함.
☎ : 878－5432(Mr. 프레스)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가정형편상 급히 처분하고자 함)
☎ : 526－7179 해밀톤
(오전10시~오후5시 연락바람)

벡커 후렌차이스 매매
☎ : 742－1281 (Mrs. 최)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2DOOR COOLER 매매
거의 새것임
☎ : 298－3584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야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 E. LEPAPE ONT. LTD. REALTOR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2개소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집매매 또는 세놓음 ; 학교와 교통편리 ☎ : 368－9018
4 BDRM. 2 W.R.M. REC.RM. C.AIRCON.
ROYAL YORK RD. AT MANCHESTER ST.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
7721 YONGE ST & CENTRE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ROYAL TRUST

극장및 3개의 가게가 달린 코너에 있는 부동산
매매(블루어 선상에 있음)
극장(580석), 모든장비.
면적(6,000스퀘어피트, 파킹장소 있음
써브웨이 부근.

보다 자세한 정보는
☎ : 532－3391, 924－0117 (KISHOR JANI)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샤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피크링프라자(2개 스토아중 선택)
주매상 : $8000—(1600또는3300스퀘어피트)
에스킹 : $89,000＋스탁
● 오샤와(MAIN ST)
주매상 : $9000(INCLUDING LUNCH COUNTER
＋로타리 티켓)
렌트 : $375, 아스킹 : $42,000＋스탁
※BAGOT REALTY INC(REALTOR)
☎ : 1－579－4010
AFTER HOURS 683－8154 프랭크·마그네스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
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 ★ ★
공장에서 꾸준히 일할 한국 남자를 구합니다.
스카보로 지역에 위치함.
문의처 : BILLO ☎ : 690－5177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 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헌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감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의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양 장 점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삼복식품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설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인 벤 토 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3963 MR. 오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 (R)651－9324
차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 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활진함)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
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꽃 집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엘모와 함께 식사할 수 있겠지?" "그럼요. 하지만 그저 빈·소시자와 강남콩이나 먹을까 하는데요"

"이리와, 엘모야…씻으러 가자"

"자, 귀뒤도 씻는걸 잊지마라"

"강남콩을 먹으려고 이렇게 씻지는 않았는데!"

中共, 외국인에 바가지극성

航空料·음식값등 2~3배 더받기도

중공사람들은 흔히들 「우리는 전세계인을 친구로한다」고 자랑하곤한다. 그러나 중공은 계속뛰어오르는 생활비와 외국인에대한 경제적차별로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많은 외국친구들의 인심을 잃고있다.

중공의 외국인들은 외환증권이라는 특수한 통화를 사용하며 상품구입이나 서비스료 지불에 몇배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것이다.

항공요금이나 식당의 음식값도 중국인보다 2~3배 비싸며 카피트하나를 사려하면 역시 중국인보다 대여섯배 비싼값을 치러야한다.

월리엄·텔의 사과命中

아들이냐 딸이냐 論爭

국제科學統一회의 開幕

共産圈등 百9개國 學者들참가

글자의 발달

千字春秋

허 웅 〈한글학회 이사장〉

세계에는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그 한글자가 나타내는 대상과의 관계로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한 낱말을 한 글자로 적는 「낱말글자」(또는 뜻글자), 한음절을 한 글자로 적는 「음절글자」, 그리고 한소리(음소)를 한 글자로 적는 「음소글자」의 세 가지인데, 음절글자와 음소글자는 「소리글자」에 속한다.

그런데 글자 발달의 역사로 보면, 대개 뜻글자에서 소리글자로 발달되어 오고, 소리글자 중에서도 음절글자에서 음소글자로 발달되어온다. 음소글자는 글자를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발달된 글자이다.

중국의 한자는 뜻글자이다. 그러나 그중의 반 이상은 소리글자와 뜻글자의 결合으로되어있다. 이를테면 「紡」의 왼쪽은 뜻을 암시하지만, 오른쪽은 소리를 나타내는 따위이다. 이 글자가 우리말을 적는데 차용될때에는 음절글자로 바뀌었다.

「讀」자는 우리말의 「은」이란 한음절을 나타내는데 쓰였다. 이러한 방법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가나」가 만들어졌다.

이집트 글자도 비슷한 경로를 밟아 발달되었다고 한다. 옛날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는 중국의 상형글자 비슷한 뜻 글자였다. 「해」나 「산」이나 「물」을 나타내는 글자는 중국의 「日, 山, 水」의 옛 꼴과 비슷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글자도 순수한 상형글자만으로 되어 있지않고, 음절글자와 음소글자가 섞여있다고 한다.

이 글자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알파베트가 생기게 된다. 이를테면 쇠머리의 그림은 차차 꼴을 바꾸어 A자가 된 것이다.

세계의 글자는 이렇게 바뀌어왔다. 그것은 뜻글자가 가진 근본적인 결함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나라에서는 뜻글자인 한자를 써야 지능이 높아진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신문에 나타나곤 한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의 지능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말인가? 그리고 옛날 상형글자를 쓰던 사람들의 지능이 오늘날 음소글자를 쓰는 사람보다 지능이 높았단 말인가?

流星의 賦 〈230〉

李 炳 注 作
李 友 範 畵

秋風何處至 ㉘

모눈종이 위의 生 〈249〉

趙 善 作
金 光 培 畵

모눈종이위의生 ⑯

LISBON AUTO COLLISION INC.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Mr. Lee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Exchange Tower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5270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수분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 0905 님파 김

보 석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Mrs남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 MR. LEE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태 권 도

손영수 태권 할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961-7100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합니다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535-7772 630 BLOOR ST. W. TOR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100% 효과보장
☎: 368-9018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534-1085 김 춘 학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니혼·비데오 센터: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구 혼

구 혼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초, 재혼을 불문코 성실한분을 찾고자 합니다.
재능을 갖추고 있음(특히 가게하실분)
☎: 469-1521

집·방세·하숙

방세놓음 (독신자 원함)
$180 PAPE서브웨이에서3분거리.
☎: 466-3764, 282-0236

6RM HOUSE FOR RENT(도바코트와 칼레도니아근처), 버스정유장 근처. 렌트: $600+유지비
☎: 533-4481(마이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매주 일요일만 입주해서 애기 봐 주실분 531-0277 Mrs.황

경복동창 회원제위

금년도 경복 동창회 X-Mas 파티겸 망년회를 아래와같이 갖고저하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1년 11월 28일(토요일) 오후 6시30분-새벽1시 까지
장 소: Don Valley Holiday Inn (Don Valley & Eglinton) "Barcelona Room"
연락처: 이윤호 275-0035
남상현 846-2444
채희홍 449-6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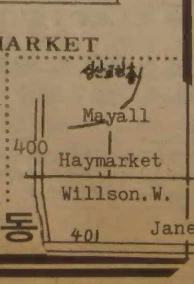
경복중.고교 동창회 배

특별성회초청
성산부흥사경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때가벌써 되었으니
부흥강사: 정문호 목사(서울 신용산교회)
강사소개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한번와 보시오.
일 시: 주후 1981년12월2일(수)-6일(주일)5일간

날 짜	새벽기도회	낮공부와예배	저녁집회
2일 (수)			7시 30분
3일 (목)			7시 30분
4일 (금)		오전 11시	7시 30분
5일 (토)	6 시	오전 11시	7시 30분
6일 (일)	6 시	오후1시30분	7시 30분
6일 (일)	오후5시에 칼빈신학교 제1회 졸업식거행		

장 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토론토 성산교회당
65 MAYALL AVE. VIA WILLSON AND HAYMARKET
전 화: (416)977-5202, 743-6622
예배안내: 주일낮1시30분 학생회 1시~4시
4시 청년회 4시 성경공부
수요밤7시30분 유년주교 주일낮1시30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토론토 성산교회
당회장: 계화삼 장로: 이영일 제직원일동

제 2 회
토론토 각교회 학생회
대항 성경퀴즈 대회

때: 1981년11월28일(토) 하오1시~4시
곳: 토론토제일한인장로교회 본당 963 PHARMACY AVE. SCAR
참가자격: 토론토 시내 각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원 대표4명
퀴즈범위: 구약의 창세기, 신약의 누가복음 (영어와 우리말 사용)
신청방법: 전화접수 공병화(626-5382) 조성섭(421-2469)
신청마감: 81년11월22일(일)
시 상: 우승, 준우승및 각 개인별 참가상
참 가 비: 교회별 $10-

주최: 토론토 제일한인 장로교회 청년회

인 사 말 씀

존경하는 실업인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는 11월26일 실시될 실업인협회 총회에 즈음하여 아직도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소한 본인이 주위에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의 강력한 추천과 저자신 지난 4년간 본협회의 이사로서 협회라는 조직속에 깊숙히 관여한 경험을 통하여 이제는 보다 강력하고, 보다 실질적인 우리의 협회 발전이라는 지상목표에 대한 사명감과 의욕에서 감히 여러 훌륭하신 선배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젊음과 정력을 이곳에 바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써 송구한 마음으로 이번 정 부회장 선거에 조기연, 김이열 두분과 한팀이 되어 입후보 하였읍니다.

존경하는 실업인협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협회는 지난 수년간 유능하신 역대 회장단의 헌신과 노력으로 고율의 밀크리베이트며, 자체 BRAND의 빵 생산등 성공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대와같이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전된 경제사회에서는 과거의 업적만을 자만하여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연구와 조직적인 투쟁을 통하여 쉬지 않고 전진하여야만 하겠읍니다.

이점에서 볼때 지난 3년간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면을 하였읍니다. 물론 본 협회 업무는 협회원 개개인의 최고 목표인 최대이윤의 확보와 공동체로서의 협회의 장기적 발전을 생각할 때 고려되어야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만, 다행히 여러분의 성원으로 저희팀에앞으로 2년간 본협회 집행부의 임무가 주어진다면 저희들은 아래와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의 성취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1. 조직적인 기획 조사실의 운영

이제 협회는 연 15만불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큰 단체로서 발전하였읍니다만 아직도 우리협회는 집행부 회장및 극히 소수의 분에 의한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되고있는 실정인바, 저희들은 이곳 경제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재율로 구성된기획조사실을 설치하고, 협회가 우리 회원에게 극대 이윤의 혜택을 드릴수있는 협상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단기및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읍니다.

2. 협회재정의 공개화

본 협회는 이제 연 십오만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명실상부한 대단체 입니다.

이와같은 대단체의 운영은 회원 각자가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재정의 공개화가 선행 됨으로써 만이 성공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여 이의 공개를 약속 드립니다. 특히 현재 협회의 신용조합 기금에는 여러분의 밀크 리베트및 빵 리베트에서 모여진 10여만달러 이상, 여러분의귀중한 재산이 적립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자기구좌의 적립금이 얼마인지 아시는 회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매주 발간되는"실협뉴스"란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공고 함으로써 회원상호간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협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3. COMPLAINT처리의 조직화

우리 회원들은 최저 1일 14시간이상 장시간 오픈하는 업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곤함 외에도 또다른 피곤함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있읍니다. 그것은 호시탐탐 적은 우리의 이윤을 송두리째 착취하려는각종 형태의 세일즈맨및 딜리버리맨들의 불손함과 횡포인 것입니다. 우리 회원의 전체적인BUYING POWER는 잠재적인 회원수를 합친다면 최저 주 3MILLION이상 으로서 온타리오 주 내에서는 벡커나 맥스밀크의 구매력을 훨씬능가하는 POWER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회원 여러분 누구나가 주지하듯이 이제는 더 이상, 적어도 우리의 업계에서만은 소수민족이 설움을 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이점에서 저희들은 협회내 불평상담처리부를 설치하고, 각종 공급회사및 도매상경영실무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의 억울하고 분한 크고작은일들을 단결된 힘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타파할 수 있도록노력 하겠읍니다.

4. 협동조합(구매공동조합)의 설립

이의 설립에는 복합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 설립의 필연성에는 회원 여러분 누구도 부정하시지 않을줄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기존한인 도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조언과 대화를 통하여 공존 내지는 통합을 기함으로써 우리회원 전체의 최대 이윤 확보에 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체계잡힌 협동조합의 설립이 불가능 하다면, 특히 기존 도매상에서는 영리성의 문제로 인하여 취급키 힘든 소프트 드링크의 조합의 채널을통한 공급을 조속히 실시하겠 읍니다.

(예) CAN POP의 경우 : 저희들 연구에 의하면 단일된 힘으로 대량 구입하고 주1회 각 회원들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현시점에서 연중 모든 종류의 캔팝을 케이스당 5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하실에 대량재고를 적재할 필요가 없읍니다.

BOTTLE POP의 경우 : 위탁생산에 의하면 벡커의 자체팝 43센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의한 K.B.A자체의 BRAND POP공급

5. 집중적인 선전 및 장려 지원 방안의 모색

현재 이곳 그로서리 업계에 있어서의 많은 FOOD CHAIN스토어의 대규모화및 신규확장 정책에 의하여 우리 회원들은 항상 큰 위협을 느끼며, 언제 어느때 우리의 인근에 체인 스토어 내지는 동일업종의 상점이 오픈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에대한 한 방안으로써 객관적으로 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회원의 상점에 대하여 SUPPLIER및WHOLESALER과의 협상에 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연구하고 이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아끼지 않겠읍니다.

또한 일반 회원들에게는 협회 차원에서의 써플라이어및 홀세일러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연중 그 순서를 바꾸어가며 품목별 세일을 실시 지원하도록 하겠읍니다.

6. 실협뉴스란의 효과적 운영

예산의 큰 비중을 할애하여 운영되는 본협회지는 결코 협회집행부의 어용지 일수는 없읍니다. 저희들은 실협란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로하는 이곳 경제사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전문인에 의한 지식을 소개하겠 읍니다.

7. 협회고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활용

8. 회원취급 주종목에 대한 집중적 이윤 향상책 추구

A. 아이스 크림 리베이트 문제
B. 밀크의 크레딛및 반환문제(특히 실버운경우)
C. 메트로 뉴스등 잡지회사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개선책
D. 선, 스타등과의 서비스및 크레딛문제협상

저희들은 이상의 문제들이 본 협회의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할 큰 과제로 생각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읍니다.

끝으로 저희들 차선겸, 조기연, 김이열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본 협회의 집행부로서의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추호의 공명심이나사심없이 협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저희들의 모든 정력을 결코 아끼지 않을것을 약속 드리오며 인사의 말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1. 11. 5일

차 선 겸 (37세)

- 연세대학상대 경영학과 졸(68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72년)
- 경영학 석사학위 수여
- 세무사 자격증 수여(72년 재무부)
- 재무부 근무(1969－1974)
- 캐나다 이민(74년)
- 한인장학재단 이사(79년 ～현)
- 토론토 코리안 와이즈맨즈클럽 회장(81년)
- 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81년)
- 실업인협회 이사(79년～현)
- 실업인협회 총무이사겸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80년～현)

조기연(40세)

- 경희대학교 체육대 졸(63년)
- 중, 고등학교 교사(64년～73년)
- 캐나다 이민(73년)
- 재캐나다 사격협회 회장(80년)

김이열(41세)

-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63년)
- 대한석유공사 근무(64년～66년)
- 주식회사 홍국상사 영업과장및 소장역임(66년～74년)
- 한국석유공업 규격협회 이사(74년)
- 토론토한인회 총무(79년)
- 양로원건립위 사무장(81년)

실업인협회 회장단 입후보팀

회장 : 차선겸 부회장 : 조기연 부회장 : 김이열

알 림

교민여러분의 성원으로 꾸준히 성장하여온 폐사는 기업과 고객이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기틀을마련하여 기업 이윤의 일부를 고객여러분에게 환원하는 명실공히 공기업 으로서의 자세를갖추고자 그 첫단계 작업 으로 서아래와 같이 우선고객(PREFERED CUSTOMER) 을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아울러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 래

(1)정의 : 우선 고객이라 함은 자금지원, 시장정보, 판매조직등 기업이 필요로 로 하는 일들 을 지원하는 댓가로 기업으로부터 일반고객에 우선하여 특혜를 받는 고객을 뜻합니다.

(2)목적 : 전략상품의 구매기금 확보와 이에따른 이익 배분.

(3)요령 : 불입하시는 구매기금은 우선 고객주라 부르며, 구좌당 $1,000—(가칭—협동주), $5,000—(단합주), $10,000—(지원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특혜를 드립니다.

구 분	협 동 주	단 합 주	지 원 주
불입금액	$1,000—	$5,000—	$10,000—
혜 택	○ 전략상품및 공동구입 상품의 염가분배 (원가+HANDLING CHARGE) ○시장정보제공	좌 동	좌 동
		○전 구매액에대한 1% 할인	○전 구매액에대한 2% 할인 ○폐사주식 공개및 경영참여의 우선권 부여
※불입금은 언제든지 해약, 환급될 수 있으며, 1년이상 거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기간중 금융기간이 지급한 이자외에 폐사에서 불입금의 1%를 가산하여 사은금리로 지급합니다.			

(4)불입방법 : ○1년만기 TERM DEPOSIT으로 하되 명의는○○○ IN TRUST FOR(주)한인연합상사로 하시거나(이자는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본사에 직접 불입하시면 폐사가 수속을 대행하여 드리겠읍니다.

(5)불 입 처 : 폐사 또는 폐사가 위임한 금융기관
(주 : 현재 폐사 거내운행인 BANK OF MONTREAL 에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한인신용조합 또는 한국외환은행으로 곧 변경 위임할 예정입니다.)

(6)운영방법 : ①여러분의 불입으로 조성된 기금은 여러분의 요청이나 폐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여 적시의 전략구매에 활용될것입니다
②전략구매에 따른 자금 집행이 필요할때 폐사는 구매증빙서류(상품대전 지급수표및 송장등)를 첨부하여 당해금융기관에 지급(대출)을 의뢰할것 입니다.
※동 대출은 상품구매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7) 해 약 : ①
필요하실때는 언제든지 해약하실수 있으며 폐사로부터 현금이나 요청에따라 상품으로 찾으실수 있고 또는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해약, 인출하실수 있읍니다.
②만기전 해약으로인한 이자율의 변동은 당해금융기관의 규정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8) 실 예 : CASH & CARRY에서 주 3,000—을 구입하시는 고객이 지원주($10,000—)를 불입할 경우—
①연간총 구입액 : 3,000.00 x 52(주) = 156,000.00
②연간 할인액 (2%) : $156,000.00 \times \frac{2}{100} = 3,120.00$
③전략품목 구매에 따른이익 : (전략품목 구매액이 총 구입액의 30% 이고 전략품목의 가격이 REGULAR PRICE보다 평균 10% 싸다고 가정함) $156,000.00 \times \frac{30}{100} \times \frac{10}{100} = 4,680.00$
④불입금의 연간이자 (연17% 가정) : $10,000.00 \times \frac{17}{100} = 1,700.00$
⑤폐사지급 사은금리 (1%) : $10,000.00 \times \frac{1}{100} = 100.00$
⑥연간총 이익 : 2+3+4+5= 9,600.00
즉 연간 $9,600—의 가외이익을 얻으실수 있읍니다.

SPECIAL SALE LIST

		Regular	Special
Chocolate, All Brand	36's	$ 10.69	$ 9.89
Dristan Tablet	6x24's	11.00	9.98
" Nasal Mist	6x15ml	9.55	8.79
Bicycle Playing Card			18.95
"Bic" Lighter Blister Package			.69
Duracell Battery	'D'		24.69/DZ
	'C'		"
	'AA'		19.95/DZ
	'AAA'		
	9V		21.95/DZ
Glad Garbage Bag	24x10's		33.29
Bee Hive Corn Syrup	12x1L	19.75	17.79
Jello Jelly Powder	24x3oz	14.35	13.65
	24x6oz	17.55	15.85
Libby's Deep Brown Bean Tomato Souce, Pork	24x14oz	16.55	13.39
Unico Tomato Paste	24x13oz	19.45	17.45
Fluffo Shortening	36x1LB	29.40	26.50
Brown Cow Chocolate Syrup	12x400ml	16.55	14.59
Quench Crystal Pouch	4x92g	1.58	1.09
Pablum Baby Cereal	12x16oz	22.80	20.49
Kal Kan Cat Food	24x6oz		6.99
Canada Dry(all flavour)	24x10oz		5.79
Nestea	"		5.49
Wilson Crush	"		5.29
Cottonelle Tissue	24x4's	35.05	32.35
Viva Paper Towel	18x2's	25.55	18.69
Kleenex Facial Tissue	72x100's	34.45	31.00
Leaf PAL Bubble Gum	240x2¢	3.59	3.19
Mike and Ike Candy	24x25¢	4.35	3.95
Smoked, Roast Almond	24x35¢		5.99
Bozo Bubble Gum	24x25¢	4.35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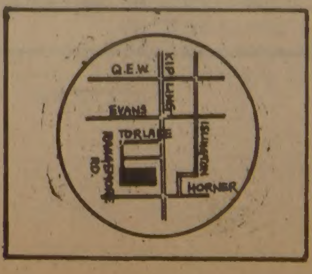
그외에도 다양한품목에 대하여 염가특별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알고자 하시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MR. 김또는 MR. 백)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

27 RANGEMORE RD, TOR, ONT..

전화 : 251—6578, 6579

대표이사 김현모 배